



5

주 제 88 (1999)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8(1999)년 제 5 호

(루계 제 619 호)



◇◇◇◇◇◇◇◇◇◇

차 례

◇◇◇◇◇◇◇◇◇◇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4
잃었던 길을 찾은 이야기	7
장군님과 가마마차	9
전선길에 피여난 진달래	9
인민의 명승지들마다에 새겨진 사랑의 전설	10
어버이수령님을 길이 받드시여	12
김정일 찬가	13
그 길 (외 2 편)	14
그날 아침	14
그 념원 펼치니	14
이 땅은 어떻게 아름다와지는가	15
하늘같은 그 은정속에	16
연백벌의 새벽	17
빨찌산의 집 (외 1 편)	18
봄이 웃는다	18
한 어학자의 궁지	19
땅과 인생	20

들에서 만난 사람	28
승패에 대한 시	33
봄날의 언약	38
빛나는 미래가 우리앞에 있다.....	39
세월과 순간	40
풍년종다리	41
세월에 비낀 운명	42
봄날의 저녁	48
향 기	49
우리는 혁명의 대하가 되리.....	57
내 마음	57
류다른 봄	58
쇠물이 웃는다	59
다시 한번 논의에 부치다	60
창조리 (1 회)	66
나는 우리 집 창문을 사랑합니다.....	72
수확려행	73
《상사곡》	78
실재한 인물인가, 허구적인 인물인가?	79
정신적건강의 비결	80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최근년간에 창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들을 읽고-

리창유

우리의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인것만큼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며 지상의 최대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인민의 어버이를 하늘땅 끝까지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념원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5년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에 바쳐진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함께 겪지 않은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그가운데는 사상예술적으로 이채를 띠는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김정, 《조선문학》 주체 84년 10호), 《상봉》(리희남, 《조선문학》 주체 85년 7호), 《고향의 가을날에》(박준섭, 《조선문학》 주체 87년 4호), 《매혹》(김준학, 《조선문학》 주체 87년 9호) 등도 있다.

이 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을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를 통하여 뜨겁고도 깊이있게 그려낸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살뜰히 보살펴주시며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매한 성품으로 그려져있다.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에서만 보더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몸소 한쌍의 청춘남녀 노동자의 사랑이 훌륭한 결실을 보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한편 아홉살난 팔남이란 소년이 올린 청원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는 동심이 비긴 그 어린 학생의 소망을 실현시켜주시려고 손수 회답편지를 보낼 결심을 하신다. 또한 작품에는 한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한 늙은이가 가져온 엽초를 달게 피우시며 기뻐하신다던가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는 그의 동생이 당한 불상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가 사는 마을을 찾으시는 장면들이 가슴뜨겁게

그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 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보인 이 작품은 《령도자가 인민을 찾아가며 인민들속에서 배운다는 새로운 정치관점, 로선작성과 정책집행에서 근로자들의 소망과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헌신적인 정치풍토》를 사회주의건설방식으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의 작품들에서 그려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공산주의적인간성, 참다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

단편소설 《상봉》에 그려진 위대한 수령님과 상대인물들인 항일혁명투쟁시기 소왕청에서 생활한 리치백로인이나 무산지구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 조운호, 항일혁명투사 손원금, 작품의 중요한 인물인 대형자동차운전사 로력영웅 리중구의 관계만 보더라도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얼마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아끼고 사랑하시였는가를 형상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이 상대인물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을 리치백로인이나 조운호처럼 잠깐 만나뵈온 사람들도 있고 손원금이나 리중구처럼 전혀 만나뵈옵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속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충성의 별로 아로새겨져 한식술, 한피줄이 되어 영생하고있는 인물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누구이든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성근히 바친 혁명전사라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이기시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시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한평생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신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의 귀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의 영원불멸할 형상의 세계가 있고 이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비결이 있다.

우의 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풍만한 생활속에서 생동한 생활세부를 펼쳐나가면서 진실하게 형상할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

과 《매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생활적으로 품위있게 그려낸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을 살펴보자.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 적개조가 완성된 이후인 지난 50년대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냥터로 가시는 길에 호수가주변에 널려있는 불에 그을린 고임돌을 보시고 전쟁과 복구건설에 전념해온 우리 인민이 이제는 어죽도 써먹고 정서생활도 한다시며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신다.

목장 작업반 반장인 한 처녀가 보낸 사진을 외국대사에게 보여주시며 두 대륙의 대표들이 다 처녀총각의 결합을 지지한것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아홉살짜리 어린 소년이 올린 청원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후대들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시며 우선 회답편지를 보낸 다음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애가 사는 마을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이렇듯 작품에서는 우리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인민의 참다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가 생활적으로 뜨겁고 진실하게 잘 그려져있다.

단편소설 《매혹》에도 감동적인 생활세부들로 이야기가 꾸며져있다.

한낮에 생활의 《재미》를 낚시질하는 근로자들이 《물결을 일으켜놓는것을》 싫어할가봐 자신께서 타신 유람선의 발동마저 끄게 하시며 카터와 회담하는 중대사도 뒤로 미루시고 60년전부터 찾고 또 찾던 한 항일혁명투사의 유가족인 량귀동녀를 친히 만나주시고 자신의 한평생에는 어제처럼 기쁜 날도 그리 많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하기에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의 안해인 로잘린부인은 (주석님에게는 이 외교회담보다도 그 녀인과의 상봉이 더 중대한것이었던 말인가?!)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한낱 티끌처럼 여기게 된다.

낚시군들의 기쁨을 위해 력사의 배를 멈추시고 60년전에 헤여진 옛전우의 딸과의 상봉을 위해 이 세계에 미증유의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을 안아올 그런 사변적인 외교활동조차 뒤로 미루시는 이런 수령을 인류가 지금껏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그러기에 카터도 그의 부인도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을 주석님과 대비하면 할수록 혹은 하느님과 소년처럼 혹은 반디불과 태양처럼 너무나 뚜렷이 대조》되게 여겨졌고 자신들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주석님의 독특한 정치 문법과 언어를 이제서야 비로소 한글자한글자 겨우 떠듬거리며 읽는 소학교학생》으로 간주하면서 《주

석님의 나라, 주석님의 이 대가정을 구태의연한 <포함외교>로 깨뜨려보겠다는것은 정말이지 답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만용》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 《매혹》 등은 이렇듯 생동한 생활적세부를 깊이있고 뜨겁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사랑의 정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느끼게 하고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과 상대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깊이 파고들으로써 수령님께서 지니신 령도예술과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격식화,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사냥의 아침》에서 목장의 한 처녀작업반장이 보낸 사진을 보시며 남편의 키가 안해의 키보다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발명》해낸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며 이들의 결합을 위하여 함께 사냥터로 간 외국대사에게 《국제적협조》를 《요구》하는 룡담을스스럼없이 하시는 아버지수령님.

《매혹》에서 카터에게 우리 조미사이의 적대와 불신의 동토대에 온갖 꽃이 피어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오면 알라스카에 연어낚시질을 가시겠다 하시며 한바탕 룡말로 우스개소리를 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참으로 이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딱딱하게 하지 않고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생동한 세부를 탐구하여 생활그대로의 진실로 느껴지게끔 잘 그려내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에 깃든 생활적내용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정중하고 품위있게 그리고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안겨오도록 형상하기 위한 깊은 탐구와 사색을 가하였음을 실증해주고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적지 않은 작품들이 아직도 회상실기를 읽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작가가 현지지도에 깃든 수령님의 높은 뜻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심장으로 터득하지 못하고 현지지도의 사적내용을 고스란히 엮어 소설화하려는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레외없이 작가의 손끝재간으로 늘어놓은 미끈한 문장서술은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이 감명깊게 안겨울수 있는 생동한 세부를 찾아볼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현지지도 사적내용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거리를 잡았다 해도 거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깊이 그려낼수 있는 생활세부를 탐구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라렬하는 현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잘 말하여준다.

우의 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다음으로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세

협세계를 깊이 펼쳐보이고있는 점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고향의 가을날에》, 《상봉》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제3인물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수령님 혹은 작가의 시점을 통하여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서 내면독백의 형식, 혹은 지나간 나날의 추억을 따라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공간상 자유롭게 생활을 펼쳐보이면서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수법은 사실상 높은 창작적자질을 소유한 작가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형상수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작가들의 높은 예술적기량과 창작적열정, 대담하게 착상하고 형상한 용단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고향의 가을날에》에서는 회령에 건립된 김정숙동지의 동상과 회령고향집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성품과 위대한 인간세계를 내면독백과 상상수법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정숙동무.)

수령님께서는 몇걸음 다가가시였다.

(동무가 보구싶어서 또 왔소. 마음같아서는 자주 와보고싶는데 일이 바쁘다나니 이렇게 10년만에야 다시 왔구만.)

(수령님, 그 10년이 백년, 천년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참으로 일년 삼백에 순다섯날 그 어느 하루도 수령님을 잊으신적 없었던가! 이 순간 온 우주는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꽉 차있는듯싶으시였다.

(흐르는 세월이 참 아깝소. 백두산시절의 정숙동무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한결 젊어지는구만.)

(수령님께서도 그렇게 제낀것양복을 입으시니 펍 젊어보입니다.)

(우리 장군이 그렇게 했소.)

수령님께서는 자랑스레 말씀하셨다.

어머님께서도 기쁘셨다.

...

《상봉》에서는 무산광산을 찾으시여 대형자동차 운전사인 로력영웅 리종구동무를 만나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부득이하여 만나보이지 못하였거나 단 한번 만나보신 여러 충신인물들에 대한 회상을 결부시켜 수령님과 작자의 시점에서 직접적인 묘사로 펼쳐보이는 수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있다.

...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면 자신께선 걸음이 늦어지는 이러한 상봉은 드문히 당해보군하시였다.

조운호와도 그러했고 손원금이와도 그러했다. 이번엔 기어이 만나서 쌓였던 회포도 나누고 못

다주신 정도 기울여주시려고 했건만 찾아가면 벌써 저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지금처럼 가슴아픈 미련을 남기게 되는 《류다른 상봉》을 자주 겪게 되는것이였다. 이것이 과연 나라일을 돌보고있다는 피치 못할 사정때문이란 말인가? 몹시도 안타까운 일이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시였다.

(참, 안됐어. 말 한마디 따뜻이 해주지 못한채 그 귀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으니... 하다못해 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더라면...)

수령님께서는 고르롭지 못한 무거운 숨소리를 내시였다.

이렇듯 우의 두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서 (혹은 작가의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직접적인 묘사로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자유분방하게 펼쳐보이고있는 점에서의 구성에서 이렇다 할 사건이 없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꾸며나간 점에서 그 공통적인 특성과 형상수법의 우점을 잘 나타내고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의 심리적체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적묘사와 내면독백을 많이 펼쳐보이는 이 형상수법은 외형적인것보다 내심적인것, 현상적인것보다 본질적인것을 깊이 파헤쳐보일수 있으므로 작품의 철학성을 높여주고 이야기를 결실하게 이끌어나가는데서 효과적이다.

우의 두 단편소설에서는 이러한 형상수법을 능란하게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와 혁명적동지애, 다정다감하신 성품과 한없이 뜨거운 인간애를 잘 그려보이고 있다.

전사와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모두가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숭고한 세계, 영원불멸할 모습.

참으로 우에서 취급한 단편소설들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밝고 숭엄하게, 눈물겹도록 가슴뜨겁게 잘 그려져있다.

이것은 최근년간 창작된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 나타난 혁신적특성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실천에 귀중한 시사를 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떨쳐일어나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삶과 투쟁에 커다란 사상정신적량식을 줄수 있는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써내기 위한 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달려들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들인 우리 작가들의 본분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문필전사된 도리이기도 한것이다.

잃었던 길을 찾은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묘향산에 대한 실무시찰의 나날 비로봉지구를 등산하실 때 있는 이야기다.

어느날 이른아침 실무시찰답사단은 비로봉등산길에 올랐다.

답사단은 다섯개 조로 나누었는데 그중 4개 조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먼저 떠났고 한개 조만은 사정이 생겨 잠깐 동안을 두고 뒤따라 떠나게 되었다.

뒤떨어진 한개 조는 앞선 조를 따르느라고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담배 한대도 채 태우지 못한 짧은 시간을 지체했다가 인차 뒤따라섰는데 아무리 걸음을 빨리해도 앞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미역을 감을 정도로 땀이 많이 흘렸으나 여전히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시고 떠난 그들이 축지법이라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하였다.

한시간나마 산골짜기 오솔길을 달린 그들은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지칠대로 지쳐 길가의 바위들에 앉아 쉬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쉬면서 지형도를 펴놓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길을 잘못든게 아니요?》

지형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조장이 이렇게 말하자 네명의 조원들도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요?》

저저마다 지형도와 산골짜기를 번갈아보며 위치를 알아내려 하였으나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가 몹시 깊고 험하여 처음 오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아낼수가 없었다.

지금은 비로봉으로 오르는 등산길이 세멘트로 포장되어있고 거리와 안내표식까지 갖추어져있어 길을 헛갈릴 념려가 조금도 없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좁은 오솔길에 거리안내표식은커녕 어떤 데는 길조차 숲에 덮여있어 좀처럼 방향을 가늠

하기가 어려웠다.

더우기 비로봉지구등산길은 도넛길, 화장암길, 만폭길 등 갈림길들이 하도 많아 이고장 사람들도 가끔 하비로 가는 길을 힘들게 찾는 때가 드문하였다.

조장은 할수없이 앞선 조를 무선전화기로 찾지 않을수 없었다.

《진달래답사단! 진달래답사단! 위치를 알려달라. 위치를 알려달라!》

진달래답사단에 날아오는 전파를 받고 한 일군은 자기들이 있는 위치가 하비로어귀라고 알려준 다음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시더니 무선전화기를 손수 드시였다.

《내 말이 들리는가? 동무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라.》

무선전화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이 울리자 길을 잃은 그들은 그이의 바쁘신 걸음을 멈춰세운 죄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인차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있는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드릴지 몰라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주눅이 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있는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수화기에서는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자기들이 있는 위치도 모르겠냐? 그것 참 야단났구만. 그럼 그 주변의 특징적인 지형들을 알려라.》

조장은 주변에 있는 바위와 나무 그리고 골안의 생김새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수화기에서 그이의 목소리가 또 울리였다.

《동무들이 있는곳은 도넛길이다. 그러니 화장암길과 만폭길을 지나와야 한다. 알겠는가?》

수화기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또 울릴뿐 대답이 없었다.

《어서 말하라. 길을 모르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있는 도넛길은 몹시 험한 골짜기여서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또 한참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그럼 내 지시대로 움직이라.》 하고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있는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큰 바위가 있지 않는가?》

《예! 큰 바위가 있습니다.》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울리였다.

《큰 바위에서 70~80미터 내려오면 개울이 있는데 그것을 건느면 느티나무가 두그루 있을것이다. 찾아보고 보고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웃음을 담으시고 답사단성원들을 둘러보시였다.

도네편에는 한번도 가보신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아실가?

일군들은 그이의 천리혜안의 통찰력이 너무도 놀라와 서로 마주볼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르며 수화기에서 울릴 대답소리를 기다렸다.

한참후에 대방에서 전파가 날아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느티나무가 두그루 있습니다!》

감격에 넘친 목소리였다.

수원들은 신기한 눈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그자리에 서서 못박힌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느티나무에서 왼쪽으로 40~50미터 오르면 철쭉꽃이 핀 등성이가 나질것이다. 거기 가서 보고하라.》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묘향산의 깊고 험한 골짜기를 마치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시며 지휘하시는것 같았다.

얼마후에 저쪽에서 철쭉꽃이 핀 등성이를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이께서 이번엔 그 등성이를 내려 조금 가면 담소가 있는데 그것을 돌아내리면 오솔길이 나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이렇게 장군님의 무선전화지휘를 받으며 드디어 비로봉지구로 오르는 원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산에 와서 길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것은 등산의 재미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길을 잃었던 한개 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후 답사단성원들은 물론 묘향산사람들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큰 화제거리로 되었다.

묘향산에서 한생을 살아왔다는 사람들도 가끔 길을 잃곤하는데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이곳의 골짜기와 산밭과 계곡들을 환히 꿰뚫고계실가?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천문지리에 도통하시고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한몸에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김우경

답시

장군님과 가마마차

박전걸

날씨도 쾌청
바람새 좋아
령님어 굽이굽이 가마마차 달리네
날개돋친 롱마우에 올라앉은듯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마음
저 하늘의 흰구름인양 두둥실

어서 가자 마차야
전술훈련 떠나간 중대를 따라
이서 가자 마차야 풍성한 식탁을 싣고
휘이-호이 휘파람도 절로 나는데
문득 마구오는 야전승용차
마차앞에 멈춰서는 야전승용차

아, 꿈 아닌 꿈같은 기쁨이
금시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어이 알았으랴
자나깨나 그림던 최고사령관동지
이 외진 산길에서 만나뵈울줄

-가마마차로구만
흥미가 동하싯듯
마차안을 살펴보시는 장군님의 눈빛
일시에 피어나는 기쁨의 미소
-동무넌 정말 없는게 없구만
저 가마마차 달린다는 노래 절로 나오겠소

행복에 겨운 병사 어쩔줄 모르는데
아쉬운듯 장군님의 서운하신 말씀
-그런데 기본이 빠졌소
훈련에서 땀흘린 병사들의 입맛엔
얼벌벌한 풋고추가 제격이요
꼭 풋고추를 놓아주라구

순간
병사의 가슴속에
세차게 파도치는 뜨거움의 격정이어
배불리 먹이는것만이
동지들에 대한 사랑인줄 알았더니
아니였구나 정녕 아니였구나

떠나온 고향도 식성도 다르지만
누구나의 그 모든 식성을 다 헤아려주시며
다심한 고향집 어머니의 사랑까지 합쳐주시는
아, 세상에 단 한분
우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이여

병사들의 식사보다 중요한 일 있는가
어서 떠나라고 이르시는 말씀
최고사령관의 야전차가 비켜준 길로
가마마차 달려가네 사랑의 해빛을 싣고
중대의 가마마차 달려가네
병사들을 찾아서 찾아서

가사

전선길에 피어난 진달래

림무아

천리전선길 이어가시던 우리의 장군님
아름답게 핀 진달래 꽃을 뜨겁게 바라보셨네
조국진군길 너를 보시며 인민을 생각하시던
백두의 그날 수령님 모습 숭엄히 그려보셨네

가시는 길은 멀고 험해도 우리의 장군님
열정에 웃는 진달래꽃을 소중히 안아보셨네

삼자연못가 붉게 핀 너를 두볼에 비벼보시던
못잇을 그날 어머님모습 정답게 그려보셨네

조국의 운명 한몸에 안고 전선길 천리에
추억도 깊은 진달래꽃을 언제나 안고가셨네
조국을 위한 3대장군의 그 자욱 빛내고싶어
전선령길에 오늘도 피여 영원한 봄빛 뿌리네

인민의 명승지들마다에 새겨진 사랑의 전설

산과 들 그 어디나 푸른빛이 질어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는 내 조국의 봄계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랑만이 어려서인가 날씨마저 화창한 즐거운 이 봄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정화시키주는듯한 청신한 기운이 감도는 봄날의 이 아침 우리는 평양의 명승으로 이름높은 대성산유원지를 찾았다.

웅단마냥 펼쳐진 푸른 잔디밭, 여기저기 천천만첩으로 활짝 피어나 질은 향기를 풍기는 꽃송이들, 소슬한 바람결에 연록색 잎사귀들을 살랑거리는 각양각색의 나무들...

계곡을 따라 사뭇치며 흘러내리는 물줄기들과 울울창창한 송림속 곳곳에 아담하게 꾸러진 휴식장소들, 끝안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인민의 기쁨 담아내고 돌아가는 현대적인 유희기구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 어디를 둘러보나 대성산의 수려한 경치를 마음껏 즐기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한껏 넘쳐난다.

행복에 취해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가슴뭉클 젖어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

오늘 조국땅 그 어디를 가나 펼쳐진 인민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경치들, 그것이 과연 천치조화로 생겨난것인가.

이 땅에 산이 솟아나고 물이 흘러 수수천만년, 명승지도 많았고 이름난 경치도 많았건만 그 언제 이처럼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피난적이 있었던가.

인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경치, 더 좋은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신 그 로고를 우리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마 알고있는가.

조국땅위에 인민의 념원이 활짝 꽃핀 락원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세월의 눈바람, 찬비를 다 맞으시며 휴식도 없이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위대한 사랑의 력사, 인간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인민들은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 이제는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고있건만 주신 사랑적으신듯 어버이수령님 명절날의 휴식마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지 않으셨던가.

주제67(1978)년 5월 1일이였다.

온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을 마음껏 즐기고있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어느 한 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파헤쳐진 웅덩이들과 널려있는 바위돌들을 예돌아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들이 찾아와 즐기게 된 유원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느덧 점심때가 다가와 일꾼들은 수령님께 잠시 휴식하실것을 말씀드렸다.

바로 그때였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질을 타고 어디에선가 노래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모두가 저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강구는데 이번에는 또 요란한 박수갈채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명절의 휴식을 즐기는 근로자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였다. 잠시 아무 말씀없이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걸음을 옮기시며 쉬는것은 후에 하기로 하고 어서 돌아보자고, 유원지를 빨리 꾸려야 할게 아니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는 명절의 기쁨을 한껏 안겨주시고도 자신께서는 한때의 휴식마저도 미루어가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하늘에 닿았건만 아직도 모자라신듯 먼지이는 험한 길을 재촉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경치를 마련해주시기 위해서는 온갖 로고를 다바치시면서도 그 아름다운 경치를 자신께서는 언제 한번 즐기신적 없거니.

어버이수령님은 오로지 한평생 인민을 위해 티없이 순결한 사랑을 바쳐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혁명의 대성인이시였다.

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훌륭하게 꾸려진 인민의 명승지, 문화휴양지들마다에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인간사랑의 정치를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의 자욱자욱도 어려있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한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온 나라가 몇해째 어려운 행군을 하며 중중첩첩한 난관을 헤쳐나가는속에서도 칠보산과 룡문대굴, 구월산과 정방산 등 명승지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꽃피워가시는 길우에서 명절날의 휴식도 잊으셨거니.

주제86(1997)년 5월 1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사리원방향으로 조용히 달리고있었다.

눈보라 몰아치던 설날아침부터 일요일은 물론

명절날마저도 현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순간의 휴식도 모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건만 온 나라가 다 쉬는 명절날 또다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길을 떠나시기 직전이었다.

일군들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시느라 로고속에 낮과 밤을 보내시며 단 하루도 쉬지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1절의 다문 몇시간이라도 휴식하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오늘은 정방산으로 갑시다. 정방산유원지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놓았는데 지체 말고 가봅시다. 오늘은 명절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방산에 찾아와 휴식할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들의 명절놀이에 지장이 없게 아침일찌기 돌아봅시다.》

이제 다녀오셔야 할 먼길보다도 오히려 인민들이 즐길 명절놀이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며 서둘러 승용차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만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승용차는 정방산을 향하여 쾌속으로 달렸다.

마침내 장군님께서 정방산에 도착하시었을 때에는 아직 골짜기들과 수림속에 해발도 채 스며들기전이었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풍치수려한 정방산일대에 펼쳐진 유원지를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정치사상교양구역, 대중문화휴식구역, 체육 및 유희오락 구역들이 시원하게 펼쳐진 인민의 새 유원지.

진귀한 나무들이 들어찬 울창한 수림이며 온갖 꽃들이 만발한 산보길들과 푸르른 공원들, 계곡을 누비며 흐르는 정가로운 벽계수의 유정한 물소리며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산봉우리들... 독특한 자연미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봄기운에 한껏 휩싸인 정방산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색있게 건설된 정방차집과 고요한 산촌의 정서가 안겨오는 낯서터와 참판도로들, 교색창연한 력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시었다. 그러시면서 모든 문화휴식시설물들을 정방산의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게 건설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을 거듭 치하하시었다.

《이번에 인민군인들이 큰일을 하였습니다. 정방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군인들이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또하나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시름이 놓이는것 같습니다.》

너무도 기쁘시여 유원지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시는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치밀어오르는 걱정을 어쩔수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방산유원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인민들이 휴식할 장소인것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그 대책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시간이 흘러 장군님께서 떠나셔야 할 때가 되었다.

아침해가 동산마루에서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사리원시와 주변일대에서 근로자들이 길목이 메도록 유원지로 들어서고있었다. 명절을 맞은 정방산유원지는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였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과 랑만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인민의 행복상이 비껴흐르는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유원지를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면에는 만족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오신것을 인민들이 알면 명절놀이를 미루고 달려올것 같으시여 오실 때처럼 조용히 떠나시었다. 앞에는 이제 또다시 가시려는 수백리 먼길, 구월산현지도의 길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인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 기쁨이 더없이 크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절날은 이렇듯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랑의 길우에서 밝아오고 저물어갔다.

참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명승지들마다의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에도 인민위해 비치지는 두분의 절세의 위인의 사랑의 세계가 비껴있거니 **《이민위천》**,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고수해오신 좌우명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에 관통되어있는 근본정신, 근본지의이다.

정녕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한평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이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인민의 기쁨 넘치는 명승지들이 일떠서고 우리의 행복은 나날이 커가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천세만세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인민의 기쁨을 담았는가, 봄날의 푸르른 하늘가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진다.

본사기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최근년간에 창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들을 읽고-

리창유

우리의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인것만큼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며 지상의 최대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인민의 어버이를 하늘땅 끝까지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념원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5년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에 바쳐진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함께 겪지 않은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그가운데는 사상에술적으로 이채를 띠는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김정, 《조선문학》 주체 84년 10호), 《상봉》(리희남, 《조선문학》 주체 85년 7호), 《고향의 가을날에》(박준섭, 《조선문학》 주체 87년 4호), 《매혹》(김준학, 《조선문학》 주체 87년 9호) 등도 있다.

이 작품들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을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를 통하여 뜨겁고도 깊이있게 그려낸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이민위전》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살뜰히 보살펴주시며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매한 성품으로 그려져있다.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에서만 보더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몸소 한쌍의 청춘남녀 로동자의 사랑이 훌륭한 결실을 보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한편 아홉살난 팔남이란 소년이 올린 청원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는 동심이 비긴 그 어린 학생의 소망을 실현시켜주시려고 손수 회답편지를 보낼 결심을 하신다. 또한 작품에는 한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한 늙은이가 가져온 엽초를 달게 피우시며 기뻐하신단가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는 그의 동생이 당한 불상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가 사는 마을을 찾으시는 장면들이 가슴뜨겁게

그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 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보인 이 작품은 《령도자가 인민을 찾아가며 인민들속에서 배운다는 새로운 정치관점, 로선작성과 정책집행에서 근로자들의 소망과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헌신적인 정치풍토》를 사회주의건설방식으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의 작품들에서 그려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공산주의적인간성, 참다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

단편소설 《상봉》에 그려진 위대한 수령님과 상대인물들인 항일혁명투쟁시기 소왕청에서 생활한 리치백로인이나 무산지구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 조운호, 항일혁명투사 손원금, 작품의 중요한 인물인 대형자동차운전사 로력영웅 리중구의 관계만 보더라도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얼마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아끼고 사랑하시였는가를 형상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이 상대인물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을 리치백로인이나 조운호처럼 잠깐 만나뵈온 사람들도 있고 손원금이나 리중구처럼 전혀 만나뵈옵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속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충성의 별로 아로새겨져 한식술, 한피줄이 되어 영생하고있는 인물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누구이든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성근히 바친 혁명전사라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이기시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시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한평생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신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의 귀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의 영원불멸할 형상의 세계가 있고 이 작품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과의 비결이 있다.

우의 작품들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과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풍만한 생활속에서 생동한 생활세부를 펼쳐나가면서 진실하게 형상할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십여차례 현지지도하여주신 공장, 어버이수령님의 체취와 은정이 그대로 스며여있는 공장을 만년대계로 더 잘 꾸리고 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공장을 하나 돌아보아도 거기에 깃든 수령님의 로고부터 생각하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아가시여서도 그 부대에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업적을 돌이켜보시고 협동전야를 찾으실 때에는 그 풍요한 들판에 새겨진 수령님의 로고와 한없는 은정을 회억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이 위대하고 고결한

충효의 세계.

하나의 공장연혁사에 새겨진 장군님의 충정이 이처럼 깊고 뜨거울진대 장구한 세월 온 나라 방방곡곡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바치신 충효의 화원을 다 돌아본다면 그것을 어찌 저하늘의 못별과 대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국으로 강성부흥하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그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떨칠것이다.

한인준

김정일찬가

아싸까 쉼마일라

내 천진한 어린애마냥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취하였는가
그이 사상의 위대성
찬란한 아침노을에 비길가!
영광스러워라 그이 **김정일!**

매혹에 찬 그이의 말씀 내 무엇에 비기랴
그이의 목소리 숲의 설레임이런가
피꽃새의 아름다운 노래이런가
그이 말씀은 메마른 이 가슴에 흘러드는
참된 인생의 영원한 샘
탁월하여라 그이 **김정일!**

그이의 말씀
푸르른 이 가을날
꽃물결 출렁이는 호수가에 선
이내 몸 어루만지며 애무하거늘
내 그이의 가르치심을 인생행로를 알리는
수정같이 맑은 종소리에 비기노라

소박하여라 그이 **김정일!**

그이의 품 봄날의 해빛이런가
가을날의 중요한 대지이런가
지구우에 나래치는 그이의 사상
그이는 평화의 선도자
그이는 단결의 중심
그이는 행복의 상징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정일!**

활화산과도 같은 그이의 위대한 힘
봄날의 우뢰소리에 비길가
그이의 사상 진리와 광명의 메아리로
온 천지를 진동하여라

내 섬광처럼 떠오르는 시상 담아
불멸의 그이 이름 적노라
온 천지 그이의 품속에 안기리니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필자는 니제르작가협회 총서기임)

그 길 외 2 편

김휘조

넓은 길이 아닌
누런 석비레로 다진
산촌의 수수한 길
대한무렵 찬바람
멀리 가까이
허연 눈보라를 말아올리는 길

그 길로 가셨다 장군님은
아직 인적없는 길에
차바퀴자국 남기시며
흔들리는 차창가에 잠시 드셨던
쪽잠에서 깨어나시며

한 굽이 돌아서면 또 한 굽이
거친 바위굽이가 마주오는
령마루 이깔들 무거운 가지들이
꺼어질듯 휘청거리는

그 길로 가셨다 장군님은
첼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어제도 온밤 공장들을 찾으신
그 길들은 먼데
눈보라속 아득히 뒤에 먼데...

또 한 굽이 돌아서자 산촌길은 끝나고
앞에는 그이 미소 비껴가는 태천땅
언제의 산악
콩크리트의 산악이
하늘을 들고 솟구친 태천땅

가슴속에 안고오신
그이의 크나큰 구성을 펼쳐갈 큰길이
발전기소리도 울리는듯
시원히 트인 큰길이
드디어 앞에 활짝 열렸나니

그렇게 이 땅의
강행군길은 끝나고있었다
그렇게 이 땅의
락원의 행군길은 시작되고있었다

그날 아침

아직 새벽어스름이
흩어지지 않은 때
그이 먼 태천땅에 오신 그때는
나무들에 산발들에 높은 언제에...
새벽어스름이 흩어지지 않은 때

꿀안을 깨우는 물소리에
창문 활짝 열어젖힌 마을도 돌아보시고
산기슭 발전기실에 들리시여
부드러운 동음속에 태어나는
전기량도 헤아려보시고

웅웅- 힘찬 소리

소나무 푸른 높은 령을 넘는
송전선으로
더 많은 빛과 열이 굽어칠
앞날도 밝혀주시고

아, 장군님 발전기실은 나서시었을 때
동녘엔 금시 동녘엔 금시
하늘을 일고 솟아오르던 불덩이
생명의 불덩이
그날 조국의 아침해는
태천땅에서 솟고있었다
그이 계신 태천땅에서

그 념원 펼치니

그이를 모시리, 다시 모시리

또 오시겠다고

약속을 두고가신 장군님
더 큰 기쁨속에 모시리

그 생각에 발전소마을은
더 일찍 잠을 깨고
그 생각에 어른들은 걸음 재우쳐
푸른 산밭사이 언제가 솟는
일터로 가고

아이들은 떠들며 웃고 떠들며
대령강가 하얀 조약돌을 골라
양어장 잔디 푸른 방쪽에 엮고
양어장에선 꼬리치는 잉어때
금빛 물방울을 튕겨올리고

강기슭에 아담한 집 한채
소형발전소앞에선
그이 오시는 날 모시겠다고
아지치는 살구나무에
로인들이 물을 주고
산모퉁이엔 꽃송이, 망울여는 꽃송이...

아, 하루하루 그림같이 가꾸어지는 땅
그 념원 아름다우니
태천땅이 더 아름다와지누나
그 념원 펼치니
이 땅에 또하나 선경이 솟는구나

이 땅은 어떻게 아름다와지는가

신무경

내 종이배 띄우던 내가에
발전소가 솟고 호수가 생겨
배를 타고 즐기는 웃음소리 들을 때면
이 가슴에 뜨겁게 스며오는 생각
이 땅은 어떻게 아름다와지는가

봄이 온 산기슭 꽃들의 향기로
고향이며 너는 아름다와지는가
들에 우짖는 종다리의 노래로
조국이며 너는 아름다와지는가

전선길 가시다가도
푸르른 벼포기들에
우리의 소원 엿어보시고
북방의 눈길 헤치시다가도
수려한 명산 기묘한 바위우에
인민의 웃음 먼저 실어보시는 장군님

험한 눈길 자욱자욱
전선천리 굽이굽이
찾아오는 계절의 아름다움우에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먼저 세워보시는 장군님

내 어찌 스쳐지날수 있으랴
고향의 령길 하나인들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

얼어붙은 차를 녹이시며
겨울밤의 찬바람속에 계시지 않으셨는지

어찌 그 어찌 무심히 지나랴
외진 살골짜 작은 내물 하나인들
그 내가에서 우리 장군님
물려드는 피로를 찬물로 쫓으시며
발전소자리를 찾으시지 않으셨는지

대지에 물어 알수 있으랴
산천에 물어 다 헤아리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월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으시고
날과 달을 보내시고 계절을 넘기시며
장군님 바치시는 그 로고

그이 천신만고의 자옥을 따라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이 땅
강성대국의 눈부신 모습이
목숨처럼 무성해가는 내 조국이며

아,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강토에 행복의 꽃이 되고
쏟으시는 그 심혈 하나하나
무르익는 인민의 열매가 되어
내 사는 이 땅이 아름다와지는구나
우리 사는 조국이 부강해지는구나

하늘같은 그 은정속에

《김일성상》 계관인 명준섭

나는 요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어떻게 세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였는가 하는 물음이 담긴 편지를 받고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어떤 작가의 재능이나 노력에 대하여 생각지 말라, 작가에 대하여 말하기전에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을 먼저 생각해보라고 대답하곤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에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지구상에는 령도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위대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미래, 혁명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것처럼 뜨겁게, 지극하게 사랑하시는분은 없다.

우리 평양학생소년궁전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아버지수령님께서 59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7차(주체88년 3월)나 다녀가셨으니 이 의미를 무슨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랴.

사랑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지은 집, 우리 궁전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이 어려있는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탑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 위대한 사랑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아도 훌륭한 시가 되고 노래가 될것이다.

나는 지금 그 위대한 사랑을 만분의 일도 다 노래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자책감에 휩싸여있다.

내가 작가생활을 시작한것은 20년이 넘는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해에 한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작은 손에 《삼천리》 연필을 쥐여주시고 장대재기슭에 있던 2층벽돌집 학교로 이끌어주시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진흙덩이로 땅크를 만들며 뛰놀던 그 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생소년궁전리전을 잡아주시려고 장대재언덕우에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종주먹을 쥐고 달려가던 때가 엇그제일같다.

오늘도 파아란 소년궁전소조원증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퐁퐁 뛰던 소년시절을 추억할 때면 나의 가슴에는 아름다운 동심의 무지개가 비끼곤한다.

바로 그 궁전의 처마밑에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때없이 우리 궁전에 찾

아오시여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한생 그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리라 마음다지곤하였다.

장대재언덕우에 꽃잎같은 자옥을 찍으며 자라나는 이 소년의 작은 꿈을 꽃피워주시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아버이장군님께서 내가 대학의 넓은 교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걸음마를 떼던 아기와 같이 따듯이 손잡아주시며 길을 힘차게 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내가 쓴 한편한편의 미숙한 작품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 나날들을 더듬어볼 때면 나는 행복의 무아경에 잠기곤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의 미숙한 작품들을 보시고 몸소 지도하여주시신 작품들이 180여편을 헤아린다. 그 로고속에 나는 작가로 성장했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시인이 되었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를 썼을 때는 것처럼 기뻐하시며 **《김일성상》** 계관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조선지식인대회의 조선소년단축하문을 썼을 때는 아주 잘 썼다고치하하시며 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사랑의 손목시계까지 채워주시 아버지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시신 사랑의 승용차를 트랙에 세워놓고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시신 햇빛따사로운 살림집에서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친 나는 평양학생소년궁전창립 35돐을 맞으며 세상에 부럼없는 오늘의 우리 행복,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서사시로 써서 온 세상에 웨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막상 붓을 들었으나 몇천권의 글로도 다 쓸수 없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기에는 서사시라는 그릇이 너무도 작은것 같아 모대기던 나는 내자신 어린 시절과 오늘의 체험으로부터 사랑의 궁전을 노래할 시인의 위치와 구체적인 대상들을 찾게 되었다.

장대재언덕에서 내 가슴에 고였던 체험의 세계는 화산처럼 터져올랐으나 어느 하나도 감도없이 말할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시로 다 형상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이른새벽 남먼저 우리 궁전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도 서보았고 멀리 흘러간 소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더듬어갔다.

이런 나날에 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

리 수령님의 력사는 흐르고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진다는 종자를 찾게 되었으며 가슴을 짝 채우는 흥분으로 단숨에 붓을 달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 서사시는 결코 시인의 재능이나 열정의 산물이 아니다. 내 어린 시절도 포함한 이 나라 아이들을 위하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어버이장군님께서도 지금까지 나온 시들 가운데서 이 서사시가 최고의 최고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을 주시었으니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으랴.

나는 때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군한다.

너는 이 시각도 위대한 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과 사상으로 호흡하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있는가?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오늘만이 아닌 먼먼 래일, 아니 내 한생이 끝날 때까지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락원으로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기울여 노래하리라고.

연백벌의 새벽

채동규

새벽녘 들가에 나서니
동견하늘에 층층
검푸르고 희붉은 빛이 서린다
짙하게 폐부를 여는 비릿한 눈물내음새
잠을 깨는 들새들의 재잘거림

내 기분 하냥 흥차다
이제 건듯 날이 밝으면
마지막포전에 모내는 기계 누비리
모공급수 옥이에게 품은 정도 터놓으리
이런저런 속구구로 부푸는 가슴

서른나이 오늘토록 나를 길러준 고향땅
연백벌의 새벽풍경이
끝없이 내 넋을 매혹시켜서인가
어머니도 분조장도 어찌 못하던
늦잠꾸러기 굶은 버릇
오래전에 푹 떼버린것은

푸른 모 어서 내여달라고
논물이 웅석처럼 속삭이는 소리
꿈에도 내 귀전에 들려와서인가
아니면 엿저녁 못다배운 새 노래
옥이를 구슬려 재미스레 배우고싶어서인가
이 새벽도 선참 들가에 나선것은

나는 연백벌의 새벽이 좋다!
장화목에 바지가랭이 쑥쑥 쑤서넣으며
안개발 휘저어 활기차게 걸음 옮기면
수로물도 좋아라 제먼저 앞서달리는

사람들과 기계들 기발들의 설레임
등뒤에 저만치 기쁘게 느껴지는

청춘의 복된 감정에 취해서가 아니다
한갓 부지런한 농민된 습관이 아니다
새벽노을 타붙는 하늘을 우러러
이 시각도 내 삼가
숭엄히 옷깃 여며 고개를 치여드나니

오,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가을날에
연백벌은 나의 벌이라고 정다해 불러주시며
먼먼 렬차길로 오셨던 때도
이른새벽
이러한 새벽

그날의 기적소리에 추억을 기울이며
그 새벽의 노을빛에 량심을 물들이며
영생의 자욱 뜨거운 이 땅우에
강성대국 새날을 힘껏 당겨오고저
하늘보다 먼저 농민의 마음에 동이 트는
아, 연백벌의 새벽이여!

생활과 운명의 전환점을 그 새벽에 두고
날마다 참스럽게 이 땅을 가꾸어가려니
오늘중에 모내기 말끔 끝내여
쌀풍년 통장훈을 제일먼저 부를테다
온몸에 불끈불끈 힘이 돋치는
새벽무렵 한때 노을무렵 한때-

빨찌산의 집 외 1 편

백의선

태고의 장설이 쌓여 있는 백두산
하늘을 가리운 원시림속에
빨찌산3대장군 사시던 집은
주소도 없었다
문패도 없었다

구름위에 치솟은 천만산악
눈바람도 멎어 서던 층암절벽
빙설천지 그 어디에 길이 있어 왔던가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부모처자 리별하고 찾아오던 집

혁명전에 총잡고 나선 빨찌산들
굶주려도 얼어도 피를 흘려도
만리눈벌 헤치며 찾아오던곳
형장의 이슬되고 타향의 흙이 돼도
깨끗한 땀만은 와서 안긴곳

어떻게 왔는가 길도 없이 주소도 없이
이야기하라 밀림아 그 기나긴 밤아
꺼질줄 모르던 이 집의 정다운 불빛이
어디 가나 비쳐오던 운명의 등대였거니

짓밟히고 언가슴 따뜻이 녹여줄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의 기둥이 있고
인생의 진리가 빛발치는곳

아, 천만이 찾아와 안기여 산
김일성민족의 고향집이어
그 누가 모르랴 해가 솟는곳을
해빛처럼 빛나는 3대장군 그 이름이
빨찌산의 주소였다
인민의 주소였다

봄이 웃는다

나도 아이되어 달리고싶구나
나도 아이처럼 웃고싶구나
장강마을 새 호수 은반우에서
즐거이 뛰노는 귀여운 아이들아

저기 기슭에선 우리 장군님
갈길을 잊으신듯 웃고계신다
까르르-터치는 너희들의 웃음소리
은반우에 은방울이 구르는것이냐
떨기떨기 봄꽃이 뿌러지는것이냐

산기슭엔 선경마을 배경처럼 펼쳐지고
언제우의 파아란 지붕아래선
발전기의 동음이 음악처럼 울리니
너희들은 너희들은
은반의 무대우에 무희들이로구나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우리 장군님 기쁨에 젖은 목소리
북방의 천리눈길 어려운 행군길에

얼었던 몸 쌓였던 시름
아이들 그 웃음에 다 녹이시는 장군님

얼마나 좋으냐 아름다우냐
그림 아닌 그림속에 웃는 아이들아
동화 아닌 동화속을 달리는 아이들아
우리 장군님에겐
너희들이 온통 기쁨이란다
너희들이 한생의 행복이란다

한껏 웃어라
한껏 달려라
이제 우리 장군님
명절같이 즐거운 이 놀이터를
삼천리나 되는 넓은 땅에 다 펼쳐주시려니

산과 들 멀리멀리 퍼져가는
장군님의 호탕한 그 웃음소리
아이들의 맑고맑은 그 웃음소리...
아, 봄이 웃는다
북방의 겨울하늘밑에서
화창한 봄이 웃는다

한 어학자의 금지

1960년대중엽의 어느해 가을이었다.

한 젊은 일군이 리극로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 쓰신 <북청방언>을 읽었는데 고심찬만한 노력이 깃든것이 알립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것은 선생님이 왜 그런 책을 쓰느라고 정력을 소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허, 어허허, 이 사람아, 자네는 무엇때문에 전연초소에서 눈비를 맞으며 서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거야-》 그는 뒤머리를 긁으며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선생은 입을 꺾꺾 다시면서 《뻔한 일이라는거겠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거지. 나는 민족의 유산을 지키는거야.》라고 말했다.

《지방사투리가 무슨...》

그는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자네는 무슨 학교를 나왔나?》

《중학...》

《그럼 공부를 많이 했구만.》

신생은 입을 삐죽거리었다.

《선생님은 <북청방언>이 모욕당하여 노여워하는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같은분들이 하필 쓸 글이 없어 지방사투리를 수집정리하는 일을 하는것이 이상스러워 그럽니다.》

《자네도 웅고집이 있구만. 내가 그것이 민족의 넋을 지키는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사투리 하나하나가 제자식처럼 귀해.》

선생은 말대상이 안된다는듯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일제때 우리 조선을 구원할 길을 찾아 모대기였네. 하여 국제로동운동의 중심지로, 로동계급의 신사상의 발원지라고 하던 도이쉴란드에 찾아갔던 일이 있었네. 거기에서 도이쉴란드로동계급의 지도자의 한사람이라고 하는 울브리히트를 만났네.

그 사람의 알선으로 쏘련에 가서 레닌을 만났지. 그런데 글썽 레닌은 나를 만나자 별로 인사말도 없이 <조선의 계급구성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지 않겠나.

나는 어리뻑뻑하여 <계급, 계급?>하고 되뇌었지. 그랬더니 글썽 그 령감이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그으면서 <하랴쇼!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소.》

그의 말에 흥미를 느낀 그는 《그럼 합격이 됐구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선생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퇴짜맞았소. 그래 그냥 돌아오려다가 사내대장부 한번 먹은 마음 있어 그 길로 도이쉴란드에 다시 갔네. 그런데 말을 몰라 국제로동운동 경험을 배울수 없더군. 그래서 도이쉴란드 흠볼트종합대학에 들어가 동방어학강의를 하면서 얻은 돈으로 도이쉴란드말을 배웠지. 그때 돈이 없어 배고픈 고생도 많이 했네. 대학문짜를 여닫는것도 어찌나 무겁던지.

그후 귀국하여 서울에 와 최일천이 수집한 우리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자료들을 읽고서야 눈을 번쩍 떴네. 그때야 조선에 20대의 젊으신 나이에 계급전의 일신에 서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이끄시는 위인이 있다는것을 알았네.》

《최일천이란 누구입니까?》

그는 호기심에 차 물었다.

《수령님따라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던 지식인출신이었는데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력사가 하도 위대해서 그것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서울에 나와 집필사업을 한 사람이네. 최일천은 서울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소사>를 집필하다가 왜놈들의 추적이 심해지자 그때까지 수집한 항일전쟁자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를 찾아와 그것을 감춰달라고 했소. 나는 트렁크 하나에 가득찬 그 자료들을 모두 읽었소. 그래서 이 눈이 텅지. 한때 위인을 만나겠다고 도이쉴란드요 쏘련이요 하고 온 세상을 찾아헤매이던 나는 내 나라에 와서 세기의 위인을 찾았소. 우리 민족은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셔야 하오. 나는 어학자이니 어학으로 그이를 받들어모시는거요.》

이렇게 환회에 넘쳐 말하는 리극로선생의 얼굴에는 크나큰 금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박승록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땅과 인생

리 빈

벌들이 차갑게 떨고있었다. 가을바람이 오슬오슬한 추위를 몰아왔다.

작업반장 김덕중은 논머리에 앉아 움직일줄 몰랐다. 갈아엎은 논판의 흙냄새를 들이키며 생각을 더듬었다...

(...그래 언제까지나 감들기를 기다리고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 감이 드는 사이면 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수확고가 뚝 떨어지겠는데...)

속이 타들었다. 문득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요?》

《량정군입니다.》

《세포비서동무, 집으로는 가지 않고 왜 돌아나왔소. 앓아누운 어머니가 몹시 기다리겠는데...》

《...》

량정군은 묵묵히 그의 곁에 앉았다. 김덕중은 세포비서가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자기를 걱정하여 찾아온줄 잘 알고있었다. 고마웠다. 량정군은 인정이 깊었다. 아니, 의리에 밝은 사람이었다.

하기는 인정을 떠난 의리가 어디 있으랴.

두사람은 오래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당장 땅속에 묻어야 할 2모작알그루 밀종자를 뿌리지 못하게 된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씨뿌리기가 늦어지는만큼 소출이 적어 진다.

날알 한알한알이 천금같은 이 《고난의 행군》시기 그만큼 더 생긴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겠거늘 그것을 잃다니, 안된다!... 아, 그런데 시간 얻을 방도는 없지 않는가...

김덕중은 오래전부터 밭 2모작에 힘을 기울였다.

작업반적으로 해마다 서너정보씩 앞그루 밀보리를 심어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보태고 집집승먹이로도 사용했다. 2모작이 은을 내는데 따라 집집승이 늘어 많은 거름이 논밭으로 나갔다.

기본직분인 영농사업과 함께 농장원들의 살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작업반장으로서 김덕중은 여기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가 없었다.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련속 들이닥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인민들의 식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보니 김덕중은 마음이 괴로와 견딜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이때껏 나는 두벌농사를 지어 우리 작업반

하나의 살림을 꾸리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는 그래선 안된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골의 이름없는 나에게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최고의 영예, 최대의 신임을 안겨주시었는데 다른 때도 아닌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이때 고작 제 집안 살림 하나에 매달려살수 없다. 2모작은 알곡증산예비의 한 고리이다. 2모작으로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자. 2모작-그것은 국가계획이 아니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작업반안에 맡겨진 국가알곡생산계획의 수행 그 하나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농업전사의 량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것은 지난해 8월말이었다.

김덕중은 쌀만 있으면 사회주의를 지킬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오늘날 《고난의 행군》에서 농업전선이 사회주의건설의 《1211교지》라고 밝힌 당의 호소를 작업반원들에게 꾸준히 해설하며 당면한 가을걷이준비에 앞장서나갔다. 그사이 2모작과 관련한 여러가지 탐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종래의 밭 2모작방법은 버리고 논에다가 이를 적용할것.

밭에서는 앞그루 밀보리 소출이 적은바 그의 주요원인은 봄철 가물피해이다.

-논을 보자.

밀보리를 앞그루로 논에 심으면 임의의 시각에 물을 댈수 있기때문에 수확을 높일수 있고 모내기를 늦게 하는 큰모의 유리성을 백방으로 리용할수가 있다. 아울러 뒤그루 벼모옮기기는 기계가 담당한다. 또한 밀보리는 화학비료를 한차례 듬뿍 합친것보다 더 큰 지력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에 기승을 부리는 이른봄철 김에 대한 밀보리의 억제작용까지 가산하면 실로 소득이란 대단하다....

심중한 타산이 이렇게 종합되었을 때 김덕중은 기쁘기만 한것이 아니였다. 불안도 컸다. 한것은 유익성의 크기에 비례되는 로력의 막대한 투자가 절감되었기때문이었다.

2모작은 단작에 비하여 품이 많이 드는데다가 한몫을 둘로 나누어도 성차지 않을 정도로 바쁜 고비에 앞뒤그루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긴장성은 극도에 이르며 또한 이른바 《보리장마》라는 기

후적특성에 의해 햇밀이 포전에 선채 이삭에서
썩어 날수 있는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보리장마》
가 아닌 그이전의 5월에 만약 비가 많이 오는 경
우 그로 인한 팽해는 밀보리에 치명적이다.

때문에 2모작은 많은 사람들이 질색할 지경으
로 시끄럽고 아름차다...

그렇다고 예비로 안고있는 두벌농사를 걷어치
워야 하겠는가? 아니다! 2모작농사를 반드시 크
게 해야 한다.

...하루일을 끝내고 탈곡장에서 열린 은파군 양
동리 제7작업반 초급일군모임에서는 작업반장 김
덕중의 제안 《밭으로부터의 논으로 2모작 적지전
환 및 그 면적확대》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여기에는 농장관리위원회 작업반담당지도원이
참가하였다.

적지를 논에다가 정하는 문제는 참가자들모두
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종전보다 앞
그루과중면적을 몇배로 늘이자는 두번째 제안은
큰 물의에 부딪혔다.

분조장들가운데서 절반은 호응해나섰다. 반대
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의견은 이려하였다.

오늘날의 한알한알의 낱알은 사회주의를 지키
는 한발한발의 총탄맛잡이로 귀중한만큼 모든 힘
을 다해 생산을 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로
력으로 그 많을 면적을 다루어낼수 있겠는가, 앞
그루처리, 뒤그루모내기가 반드시 한주일안에
 끝나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애당초 손을 안댄것
만도 못하게 된다, 모내기철은 원래 부지깽이가
떨 지경으로 일손이 딸리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
앞그루를 그처럼 많이 심어놓으면 어느 손이 그
것을 다 처리한단 말인가,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잡아놓았던 노루를 놓쳐버리게 될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뒤그루모내기를 제때에 못끝내어 질질
끄는 사이면 강냉이밭들과 첫단계 모를 낸 하루
가 다르게 김에 묻히고만다, 가능성과 현실성의
호상관계를 보다 심중하게 고려하자 하는 등으로
론의가 구구하였다.

이런 사정을 누구나 잘 알고있는 김덕중은 이
들의 의견이 리해되었다. 그렇다고 조건에만 묶
일수는 없었다. 난점들로 말하면 이들보다 오히
려 더 깊이 알고있는 자신이였지만 반드시 해야
할일이기에 결심했던것이다.

김덕중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단 한사람의 반대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두벌
농사는 말그대로 두굽의 품을 요구하는만큼 작업
반전체의 뭉친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
공하지 못한다.

하여 그는 절절히 호소하였다.

《동무들, 이 일은 어제날의 기준으로 오늘을
재여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의무
에 앞서 량심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요구를 자
로 삼으면 해낼수 있습니다!》

침묵이 깃들었다. 한참후였다. 관리위원회 담
당지도원이 침묵을 깨뜨리기 저어하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농사란 한번 때를 놓치면 망해버리고 말기때
문에 타산에서 그 어떤 사소한 오류도 허용할수
없소. 적지의 면적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수 있으
나 그때에 가서 걸리는 로력곡선만은 우리 마음
대로 정할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소. 명백한것은
하나의 말잔등에 두개의 안장을 지울수 없다는거
요. 실패가 없도록 힘에 알맞게 목표를 세우는
방향에서 과중면적을 고려해보지요.》

낮으나 주장이 강한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 까닭인지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
공감인가?

그렇다. 한마리의 말에 두개의 안장을 엮을수
없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여
다 정당하겠는가 김덕중은 자신에게 물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마리의 말에 안장 둘이
라도 지워야 한다. 말 한마리에 하나의 안장, 이런
기성상식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대
오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낼수 없다. 기성상식
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물현상의 발전이 그 정상
궤도에 놓여있을 때 합법칙성을 가진다. 하다면
《고난의 행군》이 정상궤도이겠는가. 《고난의 행
군》은 그자체의 고유한 상식, 고유한 궤도를 가
지고있다. 바로 그 상식, 그 궤도가 한 잔등에 두
개의 안장을 지워서라도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하
는것이 아니겠는가.

아름차게 큰일, 그것도 아차아차한 계절적고비
에서 치뤄야 할 모험적인 전투를 놓고 분조장들,
관리위원회 담당지도원들 어찌 근심이 없으랴.
하지만 자신은 그 근심과 타협할수가 없었다.

《동무들, 대규모2모작이 모험인것만은 사실입
니다. 모험을 동반하지 않는 성공이란 없기도 하
지만 이 일은 우리들이 합심하여 잘 짜고들어 내
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기때문에 나
는...》

《반장동무, 내 말을 좀 들소.》

관리위원회지도원이 난처한 기색으로 그의 말
허리를 끊었다.

《모험인줄 알면서도 내밀자구요? 아까 어느 분
조장동무도 말했지만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지 않소. 예?... 앞그루를 거두
고 뒤따라 갈고 씨레를 치고 모를 내자면 여기에
최소한 7일은 걸려야 하는데, 이 7일동안이면 전
단계 기본모내기를 전부 깨끗이 마무리하고 2단
계큰모를 전부 다 내고 논밭 애벌김까지 기본적
으로 끝내야지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닌 한해농
사운명이 좌우되는 마당에서 7일을 보낸대도 모
르겠는데 그걸 떼우다니. 나는 관리위원회앞에서
여기 7작업반사업을 책임진 담당지도원으로 이
문제를 강건너 볼모듯할수 없단 말이요. 국가계
획과제도 아닌 밀 몇톤을 더 내자고 하다가 논밭
을 전부 물속에 묻어놓을것만 같아서 난 벌써부
러 숨이 막히요. 숨이!》

그는 참말 가슴이 답답했던지 목깃단추를 벗겨

놓고 마지막말에 힘을 주었다.

《여느 작업반이라면 또 모르거니와 사적지작업반인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는 다른 단위에서 생기는것과는 성격이 판 다르기때문에 보다 심중해야 합니다. 사정은 이렇소.》

듣고보니 사태의 심각성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던지 분조장들의 낮빛은 굳어졌다.

김덕중은 이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았다. 농장관리위원회앞에서 7작업반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담당지도원, 작업반의 중하를 짊어진 분조장들이고 보면 힘겨운 일앞에서 위구를 느끼지 않을수가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타이르기만 하고 흥정판을 벌려놓고 있을수는 없었다.

(이들을 분발시켜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는데로 이끌어가기 위해 내가, 작업반장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이순간 김덕중은 자신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의 무게를 새롭게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가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동무들, 2모작 면적확대, 이것은 국가계획이 아니기때문에 의무성은 없고 다만 매 사람의 자각성에 발을 붙여야 하는만큼 나는 호소하는것이지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2모작의 운명이 결정되는 6월이 어떤 시기입니까...》

밤은 노루꼬리만큼 짧고 낮은 한달처럼 긴데 할 일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급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피를 쏟지 않을수 없으리만큼 힘겨운 고비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벌농사라는 큰 덧짐을, 하나의 말잔등에 두개의 안장을 지우자니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몇번이나 그만둘가 하고도 생각해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김덕중은 작업반장이기전에 인간인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더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사기들의 초소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인민들이 식량곤란을 겪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매일, 매 시각 심려를 놓지 못하고계시는데 코피가 두렵고 말썽이 두려워서 증산예비를 못본척한다면 그것은 량심에 대한 배신으로 될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노예로 되겠는가.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는 《고난의 행군》대오에는 적당히 살아나갈 그런 자리가 결코 없다. 하기에 그전의 사고방식을 깨버리고 시대의 흐름 다시말해서 《고난의 행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논밭 한가운데에 쓰러질 각오를 가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자 세상에 없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실천으로 고수해야 할 영예롭고 중대한 사명이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지워져있다. 나 하나의 입건사나 하고 제 가정이나 돌보자고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속물, 의리를 모르는 배신자로 될것이다.

《동무들, 나는 결코 욕망에 눈이 어둡거나 주먹구구로 이 일을 작정하지 않았습시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요구로 자신들의 의지를 한층 더 굳히면서 발휘하는 최대의 마력, 여기에 2모작확대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매 사람이 자기 마력의 한계점까지 힘의 여유를 남기지 않고 짱그리 쏘아부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초급일군들이 어떤 자세에서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누구든 여유를 두고 일하면 몸은 편하겠지만 량심은 편치 않을것입니다. 동무들, 우리가 어느쪽에 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누구의 체면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닙니다. 분조장동무들, 쓰러질 땐 쓰러지더라도 내밀어봅시다. 담당지도원동무, 우리 반 사업을 놓고 남달리 속을 쓰는 동무를 나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깊은 관심이 나에게 힘을 준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우리를 잘 도와주시오. 나와 함께 앞채를 메고 반을 이끌어나갑시다!》

김덕중은 말을 이어나갈수록 깊어가는 자각과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 주먹을 틀어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주먹, 그것은 마치 그들모두가 것처럼 하나로 굳게 뭉치기만 하면 그 어떤 장벽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신심의 상징처럼 힘있게 느껴졌다.

담당지도원은 머리를 수긏하고 잠시 무슨 생각을 더듬고나서 《중소. 부딪쳐봅시다.》하고 대답하였다. 면적조절을 주장하던 분조장들도 수긍해나섰다.

작업반력량의 극한계선까지를 밀천으로 한 2모작확대계획,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의 자각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도 지상공론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때문에 김덕중은 작업반모임들에서는 물론 3, 4를 베는 논판과 탈곡장, 벼단운반길... 이르는곳마다에서 때와 대상에 구애없이 두벌농사의 의의를 해설하고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처럼 일하자, 혁명적군인정신이 곧 두벌농사 승리의 열쇠이다, 군인건설자들이 충성의 언제로 우리당을 받들었다면 우리 농업전사들은 로적가리로당을 받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언제나 힘든 일들마다 앞장에 선 그의 절절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마련된 앞그루 밀파종이였다.

매개 분조별로 선정된 적지의 울퉁 버를 와닥 와닥 베치우고 뒤따라 트랙토르가 모조리 갈아엎었다. 그다음 며칠동안 해별과 바람을 쏘이면서 감을 들였다. 온 작업반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막 씨뿌리기에 들어붙었을 때 청송맞게도 비가 내렸다. 땀은 인차 설익은 떡반죽처럼 꺼분거려서 도저히 종자를 묻을수가 없었다. 급기야 일은 중지되었다.

모든 농장원들의 마음은 비뿌리는 하늘마냥 컴컴해졌다. 알곳은 비는 그칠듯말듯 하면서도 오래 끌었다. 마치 그것은 마음 조급한 사람들에게 악을 올리려고 일부러 계정을 부리는듯싶었다.

아닌게아니라 어찌나 등이 달았던지 1분조장은 하늘에 대고 주먹을 흔들면서 역증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원, 저놈의 하늘 물크러졌다. 제기랄것. 가을 비는 가시아비 턱밑에서 굶기마련인데 웬놈의 비가 이리도 밀이 질겨?》

어떻게 하면 밀 한알이라도 더 얻을수 있을까 하여 빈진 논판을 해가 지도록 해매이던 김덕중은 농장원들을 다 들여보낸 다음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아 밤이 깊도록 일어설줄 모르는것이였다...

그는 곁에서 덩덤히 무슨 생각을 더듬고있는 세포비서, 량정군이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저으기 조심은 하면서도 마음속 한탄을 어쩔수가 없었다.

(징조가 좋지 않단 말이야. 힘들게 뎨 첫 자국이 이렇듯 비에 된방망이를 얻어맞아 비칠거리게 똥으니!)

안타까웠다. 자기의 타는 가슴 하나로 갈아엎은 논판의 줄기를 말끔 날려버리고 감을 맞출수만 있다면 가슴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대고싶었다.

이제 날이 개이고 다시 감을 들이자면 4~5일이 걸린다. 갈아엎은 흙밭은 생땅과 달라 감이 드는데 곱절 낱자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차라리 비온뒤 좀 늦게 시작할걸 잘못 서둘렀다고 후회하였다.

(4~5일이면 씨불임적기를 다 놓쳐 알곡 4~5톤이 날아난단 말이야. 아, 날씨를 예견 못한 내 잘못이지...)

생각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미 육신은 그 무게를 지탱할 힘을 잃은것처럼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와 량정군이 담배 한대를 다 피웠을즈음 분조장들이 또 나타났다. 자기네 작업반장을 벌판에 떼놓아두고서는 차마 발길이 집으로 향하지 않는 모양이였다.

김덕중은 자기를 아껴주는 그들이 고마웠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우랴싶은 배심이 머리를 들었다. 속담에 《의가 맞으면 천하도 반분한다》 하지 않았던가.

량정군이 먼저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아끌며 따뜻이 위로하였다.

《반장동무! 온 마을이 다 떨쳐나설게요. 건강한 몸에서 건전한 사고가 나오기 마련이요. 한잠 폭자고나면 좋은 궁리가 떠오르테니 너무 걱정마시오.》

《집에 들어가야 잠이 올것 같지 않아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반장동무가 자릴 못뜨는 심정을 분조장동무들이 잘 압니다. 여럿이 다 달라붙어 반장동무를 떠엽기전에 어서 일어 서라구요.》

...김덕중은 입이 소래같이 써서 저녁을 몇술 뜨다말았다.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부부일체》라고 안해도 부시럭거릴뿐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에게 언짢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감축하고 늘 함께 속을 앓는 안해였다. 오늘밤도 김덕중은 그러는 안해가 고맙기도 하였고 미안하기도 하였다.

김덕중 그는 한평생을 남달리 많은 근심거리를 안고사는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포로가 되여본적은 없었다. 이밤에도 비록 잠은 못들었으나 위험한 정황속에서의 지휘관의 위치를 깊이 자각하고있었을뿐아니라 작물의 생육기일을 단축 혹은 연장하는데 써오던 곡종별 여러가지 수단들을 하나하나 추려 머리속에 새겨나가고있었다. 두통거리가 있을 때마다 흔히 그러해왔듯 이번에도 안해와 조용조용 의견을 나누었다. 농사로 함께 늙어온 안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수로서 많은 경우 걸린 고리의 해결방도를 찾아내었으며 정 궁리가 미치지 못할 때에는 따뜻한 위로와 힘있는 고무로써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조자였다.

앞그루 밀을 심기 위해 갈아엎은 논판이 감들기를 기다리는 4~5일간에 그만كم 늦어지는 밀의 생육기일을 봉창하는 방법에 어느 경험을 써먹을수 있겠는가?

부부사이에 오고가는 생각은 백가지여도 전부이 한 물음에 복종되였다.

그사이 밤은 얼마나 깊었던지...

어느덧 우리안의 장닭이 해를 치며 호기롭게 울어댔다.

새날이 시작되는 그무렵, 그렇게도 무겁던 머리가 놀랄만치 가벼워지면서 문득 좋은 생각이 번개치듯 일어났다.

《종자 싹틔우기!》

그는 버럭 환성을 울리며 벌떡 일어났다. 토방머리에 잠들었던 검정개가 그 소리에 놀랐던지 불안스레 공공거렸다.

안해는 기쁨의 물기가 핑그르르 어리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종자 싹틔우기>, 신통한 궁리군요. 4~5일을 봉창할뿐아니라 그만كم 앞당기기도 하겠어요. 어쩌면 끝내 그런 생각을...》 하고 목이 메여 말꼬리를 흐리었다. 남편의 멧힌 속을 풀어주지 못해 얼마나 애가 끓던 그였던가.

김덕중은 옷을 주어 입으며 서둘렀다.

《여보, 소우리 여물가마에 물을 덥히요.》

종자창고로 달려나간 그는 밀종자가마니를 하나하나 안아서 소우리부엌으로 날라갔다. 경비원 늙은이가 보다못해 참견했다.

《이보게 반장, 왜 혼자 애를 쓰나. 몇사람 불러낼게지.》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기는 종자가마니를 나르기보다 더 힘들어요.》

경비원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뒤에 대고 혼자말로 중얼댔다.

《비서, 분조장들이 몽땅 밀려나가서야 데려올

수 있도록 제몹이 밀종자가 되어 땅속에 묻히기라도 할듯이 밀밭을 뜨지 못чан케 끌머리를 앓더니 끝내 나갈 구멍수를 찾아냈단 말이야. 일하자는 사람을 멈춰세울 힘은 없나부야... <지성이 감천>이라더니. 참, 쯔-쑤!!

동들무렵.

여덟가마니의 종자밀은 미지근하게 덥힌 가마물에 잠겨 점차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

씩을 티워 심어놓은 밀은 땅이 얼기전에 벌써 소담하게 자라났다. 포기마다 실한 덕에 추운 겨울을 끄떡없이 견뎠다.

새해 농사철에 들어섰다.

질어가는 봄과 더불어 김덕중은 나날이 긴장되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에 당이 제시한 농업부문 과업을 수행하자면 이 봄에 한해 일의 절반이상을 해제껴야 하는데다가 여느때없이 크게 벌린 2모작농사가 걱정되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는것이였다. 많은 걱정거리가운데 하나는 비였다.

(비가 지내 많이 오면 야단인데...)

다른 농사에는 비가 많이 와야겠지만 밀에는 비가 까다롭다. 밀이란 낱알은 가물에 건디는 힘이 비교적 강하지만 과습에 의한 팽해에는 곱작 못한다. 때문에 밀 심은 논들마다 깊숙이 배수로들을 여러갈래 짚놓았다. 그러나 밭과는 달라 논은 적은 비에도 습도가 부족 올라가고 한번 올라간 그것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기때문에 자칫하면 견잡을수 없이 망해버린다. 이 점이 바로 밭 2모작에 비한 논 2모작의 치명적약점이다. 하늘에 구름이 한점만 떠돌아도 김덕중의 마음은 전부 흐리었다. 그러면서도 2모작농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크게 노린점은 자기 단위를 본보기로 2모작에 기여하는것이였다.

이 확신적인 생각에 오래동안 집착되다보니 만약 랑패로 끝나는 경우 그것은 큰 실책으로 된다는 자각을 품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이 강화되었다. 이로 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생사결단의 기로에 들어서기라도 한듯 그의 마음은 엄숙해졌다. 까닭에 랑습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배수로와 같은 불철저한 물리적방법에만 기대를 걸수가 없었다. 랑습해를 화학의 힘으로도 막을수 있는 기술수단이 없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없었다면 이제 새로이 고안해내기라도 하여야 한다.

김덕중은 농업과학원을 찾아갈 결심을 내렸다.

(그런데 하루도 몸뚱 거름이 없으니 어쩐다?)

한몹을 둘로 나누고싶은 농번기였다.

《아, 정말 힘들구나!》

느닷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새어나왔다. 제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그는 흠칫 놀랐다.

(한숨을 쉬다니?! 의지에 쫓이 쓰는가?)

허를 깨물었다.

지금 결코 험하게 살 때가 아니지 않는가.

...부지깽이까지 뛰는 드바쁜 모내기가 한창 벌어졌다.

김덕중은 낮동안에는 몸을 잠그고 밤에는 트랙터 노씨래교대운전공으로, 모판관리공으로, 양수공으로 일하느라 출창 벌에서 살았다.

세포비서 랑정군은 그를 좀 채우려고 애를 쓰다못해 한번은 벌칙 성을 냈다.

《반장동무! 동무는 혹시 자기가 없으면 작업반 모든 일이 망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무쇠로 만든 트랙터도 무리하면 고장이 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혹사하고야 어떻게 견뎌내는가 말이요!》

《비서동무가 곁에서 그렇게 내 걱정을 해주는데 내가 왜 넘어가겠소.》

1단계 모내기의 빠른 진척과 함께 밀은 나날이 여물어갔다. 농장원들은 누렇게 물드는 밀논을 바라볼적마다 너무도 대견하고 흐뭇해서 탄성을 터뜨리곤하였다.

《땅은 그저 사람의 지성을 쏘아부른것만큼 대답한다니!》

《우리 반장이 그렇게도 아글타글 애를 쓰는데 곡식이 어찌 주인 맘을 몰라보리오. 아무렴!》

《이보소들, 구경만 해두 배가 부름메. 관동팔경이 어쩡소, 관서팔경이 어쩡소 해두 곡식구경이 그저 장땅이라니!》

일손들마다에 신바람이 일었다.

지난해 가을 2모작을 토론할 때 심히 우려한 그 목메일 7일이 비로소 눈앞에 닥쳤다.

김덕중은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해졌다.

2모작이 은을 내는가 못내는가 판가름은 밀의 수확고보다도 그것으로 하여 산생된 련쇄공정(큰 모내기와 논밭애벌김매기) 등 들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맞물려 손색없이 진행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사업의 설계일뿐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자면 사람의 손발이 움직여야만 한다.

김덕중은 모임이 끝나는 길로 아직 미처 만나보지 못하였던 늙은이들을 밤늦도록 찾아다녔다. 이번 7일간의 로력 한자루 한자루는 여느때 두세 배보다 더 긴요하므로 로력에비를 최대한 동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늦모내기때엔 죽은 중도 꿈틀한다》더니 참, 우리 조상들의 말 그르데 없다. 고양이 손마저 밀려쓰고싶을 지경이니.)

아무리 눈섭에 불이 달리도록 급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도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인정밖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바랄수 없다.

김덕중은 만나야 할 로인이 살고있는 집 울대문밖에 이르러서는 매번(만약 내가 이 집 늙은이의 자식이라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수 있을

가?) 하고 피로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묻곤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런 심정을 품고 이야기를 펴다보니 감동되지 않는 상대란 없었다. 늙은이들마다 《바쁜 반장을 우리 집 걸음까지 하게 만들어서 안됐네. 나가야지. 그게 뭐 반장 자네 한사람의 일이라구.》, 《황소 힘도 힘이요 참새 힘도 힘일세. 종이장도 맞들면 낫지.》, 《반장이 앞채를 메구 뉘다끄는데 목석인들 어찌 움직이지 않겠나.》, 《반장 이보라구 더는 수고로이 다니지 말게. 늙은이들한테 일하자는 말이 어디 그리 쉽다던가. 반장이 사정을 안해도 틀림없이 다 나와. 밥술갈 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며 혼연히 응해나섰다.

김덕중은 그런 진심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다. 두번세번 사의를 표시하지 않고서는 물러설수 없는 미더운 늙은이들, 부모처럼 친근하고 존경이 가는 늙은이들이었다.

《이렇듯 고마운 마음들속에서도 성사를 못하면 그 죄는 내게 있다.》

첫 돌격으로 밀베기를 하루에 끝낸 날 밤이었다.

김덕중은 달구지를 끌고 밀을 실러 나갔다. 밀그루논판을 트랙도르가 기운차게 갈아엎고있었다.

밀단을 한창 싣고있노라니 3분조장이 분조원들에게 지계를 지워가지고 옥 밀러나왔다. 김덕중은 그들의 열의가 무척 반가웠지만 일부러 엄하게 따졌다.

《분조장동무, 동문 어째서 시키지 않는 일에 뛰어드오. 응 ?》

《제일을 누가 시키고말고 합니까.》 반죽좋은 대답에 어둠속에서 어느 녀인이 냉큼 말을 달았다.

《우릴 쫓아버리면 밀단 대신에 반장아주버닐 지고갈줄 알라구요. 일꾼이 빈 지계로 돌아가는 법 없지요.》

살뜰한 인정에 목이 메었다. 이들이 나온 목적은 일도 일이거니와 소갈데 말갈데를 가리지 않고 밤낮 뛰어다니는 이 작업반장을 돕기 위해서리라. 저편에서 인정을 소중히 여길수록 이편에서는 저들을 더욱 아끼고싶었다. 일만 아는 사람은 결코 작업반장 자격이 없다.

《분조장동무, 밀은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 실어들일테니 어서들 돌아가 쉬오. 노루꼬리만한 봄밤에 왔다갔다 길에서 다 새고마오. 래일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오늘밤은 자야지.》

어느 처녀의 향기가 짙하고 날아왔다.

《설사람이야말로 반장동지예요. 반장동지는 맨날 남들보다 곱절 고생하면서. 사람 몸이 뭐 무쇠면 견딜가.》

《!...》

김덕중은 가슴이 뜨거웠다. 목이 메여 말을 할수가 없었다.

...논갈이, 썩레질, 모뜨기, 모내기, 밀탈곡...

7일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모든 공정들이 아득바득 힘겹게 맞물려 돌아갔다. 사람도 기계도 한계점에서 능력이 발휘되고있었다. 이가운데 한고리만 깨여져나가도 7일전투작전은 위험에 처한다. 김덕중은 사람들을 믿으면서도 그역시 사람이어서 간신히 유지되는 극한계선을 불안속에 초조히 지켜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로력이 열명만 더 있어도 숨이 나가겠는데. 아, 어째서 사람에게 손이 둘밖에 없을가.》

어느 공정을 봐도 역시 로력긴장인 까닭에 그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절로 새어나오곤하였다.

해가 뜰무렵, 마지막논판의 밀단들을 끌어들이고나서 미처 허리도 펴기전이었다.

관리위원회 담당지도원이 기사장의 지령을 가지고 달려왔다.

《...7작업반의 부림소 전부를 5작업반과 6작업반에 넘겨줄것.》

김덕중은 담당지도원에게 묻지 않고서도 지시의 의도를 곧 이해하였다.

(5, 6반들은 지난해에 입은 큰물피해를 아직도 채 가시지 못한 단위들이라 일감이 잔뜩 밀렸을게다.)

그는 즉시 함께 일하던 한 청년에게 《동무는 이제 여섯개 분조장들을 급히 찾아가 부림소 전부에 몰이군 하나씩 덧붙여 5반, 6반으로 보내라고 하시오.》 하고 지시했다. 담당지도원이 펄쩍 뛰었다.

《작업반장동무, 당장 내 밭잔등에 불이 떨어져서 찢찢 매는 판에 로력을 떼내다니?! 남을 도와주더라도 숨이나 좀 돌린 다음에 봐야 하지 않나 말이요. 예?!》

《5반, 6반은 남의 땅이 아니지 않소. 큰물피해가 빚어낸 부담에는 우리 몫도 있지요.》

《?!》

이날밤 김덕중은 밀마당질을 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식량사정을 생각하면 거둔 낱알을 하루도 탈곡장에 묵일수가 없었다.

자정이 넘었을 즈음이었다.

끄덕끄덕 졸며 탈곡기앞에 쌓이는 북데기를 건너내고있던 김덕중은 은연중 눈벌이 조용한데 주의가 미쳤다. 트랙도르발동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이었다.

(어느새 마지막논배미 썩레질을 마쳤는가?)

그랬으면 좋으련만 시간으로 보아 일이 끝난것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적마다 버릇처럼 늘 그러해왔듯 량정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탈곡기뒤에 드립다 떨어지는 밀짚을 묶느라 땀을 뻘뻘 돌리고있었다. 그에게 논판에 나가 트랙도르가 왜 멎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말할가 말가 망설이던 김덕중은 공연하게 그까지 불안하게 만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들로 나갔다.
썩레를 찬 프락포르르는 논뜰우에 올라서있는데
손전지를 켜든 운전수가 그옆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끝났소?》

《…》

《고장난게로구만. 어디요?》

《변속기가… 일단 하나 겨우 말을 듣는데… 이제
몇군데 두어번만 돌면 그만일걸 참 재수가 없
이…》

죄스러운듯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어물어물 대
답하던 운전수는 용서를 바랬던지 서둘러 변명을
했다.

《그만하면 그럭저럭 쫓을수 있제는 됐습니다.》

김덕중은 기분이 나빴다. 프락포르가 뿔고나가
던 최후돌파구가 막혀버린것이다.

그는 축 처져내린 운전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위안했다.

《뭐 미안해할건 없소. 이때껏 견지한것만도 동
무의 공로야. 난 이미전부터 속을 조이고있었는
데 이제야 뭐 다 잡아제끼지 않았소.》

이것은 진심이었다.

프락포르르는 기계화작업반으로 가야 《수술》을
받을수가 있었다. 겨우 말을 듣는 일단으로 10리
밖기계화반까지 가느라엔 날이 샅것이고 《수술》
이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모른다. 7일 전투기
간에 다시는 프락포르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조금 남은 일감을 마무리짓지 못한채 그냥 떠
나기가 차마 괴로운듯 프락포르르는 느릿느릿 굴러
갔다.

김덕중은 안타까웠다. 이 논배미만 공굴고나면
프락포르 작업대상은 그것으로 전부 끝난다.

(그런데 마지막고비에 목이 걸렸으니 참 공교
롭기란…)

모내는 기계, 손모내기돌격대원들은 썩레질꼬
리를 물고 바싹바싹 따라온다. 래일이면 7일-마
지막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만하면 그럭저럭 쫓을수 있다》는 말에 기대
를 건 김덕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논판으로 들
어섰다. 여기저기 손더듬질을 해보니 높고낮은데
가 드문드문하였으나 그런대로 《그럭저럭》 쫓을
수 있었다.

모내는 기계를 들이대고 땀다 밀면 미끈히 넘
어갈 논바닥이었다. 그러나 김덕중은 결심을 내
릴수가 없었다. 깊은데 묻히고 높은데 올라앉는
버는 아무래도 제 수확을 못낸다. 2모작 앞그루
의 팬참은 성과를 이 흙집의 위안으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크나 적으나 뒤
그루에 구멍이 뚫린다면 앞그루의 열매가 그 아
무리 크다해도 그것은 2모작의 의의를 손상시킨
다. 때문에 《그럭저럭》은 쫓지 못한다.

짜늘한 논판 한가운데 우뚝 선채 한동안 생각
에 잠겼던 그는 이윽하여 농기구창고로 달려갔다.

소가 끄는 나무썩레를 돌려메고 논판으로 나왔
다.

두드러진 바닥에 썩레살을 박고 소명예를 어깨
에 걸었다. 다리를 번디디며 질근질근 당겼다. 프
락포르 썩레가 갓 이겨놓른 논흙은 흐물흐물하여
서 끄는 힘을 쓸 때마다 조금씩 썩레살에 끌려왔
다. 두드러진 흙을 우묵한곳으로 끌어갔다. 한번,
두번… 다리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썩레만도
한짐이 잘되는데다가 진흙이 한아름씩 안기다보
니 한자욱을 옮기는데도 진땀이 흘렀다. 다섯번
을 끌지 못해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허
리도 시큰거렸다. 딱딱한 나무명예가 어깨를 파
고들었다. 참을수 없이 쓰리고 아파서 만져보니
살가죽이 벗겨졌다.

(아차, 내가 급한 마음에 설쳤구나!)

뺏겨고리를 벗어 어깨에 대고 다시 명예를 뺏
다.

흐린 물에서는 전지불이 소용없다. 여기저기
손으로 더듬어가며 논판 높낮이를 가늠하고 썩레
를 끌었다. 시간이 흐르는데 따라 다리는 끝없이
밀바닥으로 빨려들어가는것만 같고 한번 빠진
다음 뽑아내자면 다리가 푹 떨어져나가는듯 거리
였다. 어깨는 말뚝이라도 박힌듯 쿡쿡 쑤셨다. 몸
은 자주 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눈앞이 핑글핑
글 돌아갔다. 그럴수록 김덕중은 피가 나게 허를
깨물며 모지름을 썼다.

《이제… 열번만 더 끌면 끝난다.… 그때까지
만… 그때까지만 견디자. 견디자, 견디!》

부드득부드득 이를 갈며 부르짖었다.

흰하게 먼동이 났다.

마지막으로 썩레를 돌려놓을 때였다. 눈앞이
아찔했다. 꺾 어푸러지는 찰나 썩레를 끌어안았
다.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량정군이 달려왔다. 때를 같이하여 썩레를 친
프락포르가 들이닥쳤다. 거기에서 담당지도원이
뛰어내렸다. 두사람은 급급히 김덕중을 논뜰으로
 옮겨놓았다. 지도원이 서둘렀다.

《세 포비서동무, 반장동무를 프락포르에 태워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눈을 뜬 김덕중이 손을 가로저었다. 량정군이
잠간 무슨 생각을 더듬고나서 반장동무에게는 병
원의 약보다도 여기 흙냄새가 더 큰 효과를 낸다,
청심환을 먹이고 병원에는 가지 말자, 왜 생긴
병인지야 명백하지 않는가고 지도원을 리해시켰
다.

지도원이 놀랐다.

《청심환이라고요?》

《…》

김덕중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
거워났다.

(아, 우리 세 포비서동무는 얼마나 나를 깊이 알
고있는가! 사려는 또한 얼마나 깊고… 이런 리해

보다 더 큰힘이 무엇이겠는가.)

감동은 힘을 낸다. 김덕중은 일어섰다. 량정군이 그의 어깨맡을 부축했다.

《고맙소. 세포비서동무.》

거듭 뜨겁게 사의를 표하고싶었으나 목이 메여 더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량정군은 그 말을 들은동안 등 저르기 성이 나서 그를 나무랐다.

《반장동무, 혼자 고생이 잘된것 같지 않소. 일꾼들이 앞채를 멘다고 해서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나 말이요. 몇사람만이라도 함께 하면 못 쓴다오?》

김덕중은 대답이 궁해서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감정을 표시하려는것인지 얼마간 잠자코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물론 래일도 평생을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나는 그들을 아끼지 않을수가 없소.

곤하게 자는 사람을 불러내기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매개 작업반성원들의 건강을 돌볼 의무가 있지 않소. 하거니와 일감을 보니 혼자 해냄직하더라니...》

량정군은 그의 말을 더는 듣고있기가 피로운듯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북두칠성을 그윽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 김덕중작업반장처럼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 자신을 어떻게 바쳐왔던가?) 하고 새삼스레 새겨보았다.

프락토프결으로 다가간 김덕중은 마치 힘이 진하여 매여달리길라도 하는듯 뒤바퀴우에 두손을 얹으며 언짢은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이 프락토프는 2반거로구만. 지도원동문 우리 반 프락토프운전수를 만나 사정애길 들은 모양이군요.》

《예. 어찌겠소. 마지막고비가 목에 딱 걸렸는데. 2반 반장이 처음엔 저희네도 일감이 그득 밀렸다고 딱 잡아매는걸 내가 7반농사도 농사지한 2모작에 구멍이 뚫리면 이렇게 되겠는가 했더니 선뜻 주더구만요.》

(2모작을 코에 걸고 남에게 지장을 주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2모작은 제힘으로 해야 한다.)

김덕중은 2작업반 프락토프운전수에게 곧 돌아가라고, 2반 반장동무에게 내가 미안해하더라고 전하라고 하였다. 지도원이 놀라와했다.

《내 처사가 잘됐던 잘못됐던 시비는 둘째치고 이왕 끌어온 차야 써야 할게 아니요!》

《이 논도 그만하면 모를 쫓을수 있소.》

《미안하오만 사람이 곤 썩레질에 논판이 얼마나 고르로와졌겠소. 한번 휘 돌리고 보내기요.》

《예. 물론 한바퀴 돌리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2반은 지장을 받을텐데...》

《그만하오! 낸들 뭐 그걸 모르고 밤이 편한줄

아오? 하지만...》

썩레질에 걸려 뒤그루 벼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못해서 여론이 구구해지면 영웅반장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는가. 김덕중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업일꾼이 아닌가.

《나는 담당지도원으로서 농장관리 위원회앞에 여기 7작업반 사업을 책임져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동시에 반장동무의 남다른 영예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도덕적의무가 있소. 도덕적의무가! 미안하오만 나는 도덕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근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있소.》

진심이 두드러진 열변이었다.

《솔직히 털어놔주어 고맙소.》

김덕중은 진지하게 대답하였다.

《명예란 말이지... 역시 그랬구만. 지도원동무의 립장에 리해가 갑니다.》

김덕중은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담당지도원이 불만과 의혹이 짙은 눈길로 김덕중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김덕중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를 도와 편 보람을 보지 못하게 된 마음 편할수 없겠지.)

《지도원동무, 나의 명예를 위해 솔직한 말을 해주어 고맙소. 그러나 고맙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털어놓겠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이때껏 명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소. 그러나 론의에 오른만큼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터보이겠소. 나는 명예를 시대의 량심으로 리해하고있소. 그것은 누가 불인다고 해서 생기고 폐여난다 해서 없어지는 그런 간판 같은것이 아니지 않소. 시대의 요구를 량심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살다가 설사 신세를 망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한이 없소. 량심이 지키는 명예는 신세가 어찌되었던 그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음성은 낮았으나 대지앞에 다지는 맹세처럼 엄숙하였다.

2모작농사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

앞그루로 밀 평균 정당 5톤, 뒤그루로 주작논 벼 6~7톤을 거두었다.

이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분에 넘치는 감사를 보내시면서 온 나라 농촌들에서 본을 받는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성실한 일꾼들의 로력투쟁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은정을 베푸시었다.

우리의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은과군 양동리사람들, 그들은 알곡성벽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농업전선의 충직한 전사들로서 영원히 자세를 변치 않을것이다.

들에서 만난 사람

송병준

축축한 눈이 촘촘히 내리고있었다. 이따금 바람이 불 때마다 눈발은 섭돌아치며 엇비스듬히 비끼여 땅에 떨어지곤했다. 설날에 내리지 못한 봉창을 이제야 하려는것 같았다. 그 눈발속으로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두툼한 보위색 솜옷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짓수긋한채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다. 달천협동농장 기사장 장세동이였다. 그는 지금 들판에 나간 관리위원장을 찾아나선 길이었다.

군경영위원회에서 농장의 두벌농사작물배치안을 오늘중으로 보고하라는 연락이 왔던것이였다. 전갈으면 그쯤한건 기사장이 적당히 보고해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해말에 새로 선거된 관리위원장 박세철은 누구든지 사업체계와 질서를 에누리하는데는 조금도 용서가 없었다. 년령과 지난날의 우정 같은것도 통하지 않았다.

장세동은 요즈음 그러루한 일로 매사에 신경을 쓰자니 골이 아프고 힘이 더 들었다. 달천협동농장 장세동이라고 하면 농장에서는 물론 군적으로도 농사일에서나 사업수완에서 손꼽히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생활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장세동은 우에서 어떤 땅이든지간에 콩을 심으라면 콩을 심고 강냉이를 심으라면 강냉이를 심도록 했다. 간혹 우의 지시를 되받아넘긴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무탈한 사업방식이였다. 예순살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모나게 일할 필요가 무어랴. 그는 둘다리도 두드러가며 건너가는 타산이 밝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외나무다리도 뛰어건너가는 결패스럽고 내밀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급비료문제만 놓고보더라도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많은 량을 해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사실 농장의 구석구석을 손금처럼 훑히 꿰뚫고있는 장세동이로서는 도대체 타산이 시지 않았다. 하건만 관리위원장은 자급비료의 예비는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있다는것이였다.

아서라, 하겠다는 사람에게 못한다고 할 필요가 무어랴. 장세동은 해자루같은 입김을 날리며 2작업반으로 가는 재등에 올라섰다. 눈덮인 들판에서는 두엄을 나르는 트랙토르의 발동소리와 소달구지의 왕방울소리가 겨울의 풍경을 한층 돋구었다. 그는 솜옷주머니에 랑손을 찌른채 관리위원장이 포전에 있지 않을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은 아무곳에서도 보

지 않았다.

그는 할수없이 마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작업반트랙토르가 통탕거리며 지나가다가 장세동을 보고 운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체를 했다.

《관리위원장 못봤소?》

장세동은 고개를 쳐들고 운전수에게 소리쳤다. 《위원장동지 말입니까? 군병원에 갔다와선 방금 살구재작업반으로 갔습니다.》 젊은 운전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큰소리로 대답했다.

《병원엔 왜?》 장세동이 의아하여 되물었다.

《책임운전수가 충수를 수술했지요.》

그 바쁜속에서도 관리위원장은 병문안을 갔다온것이였다. 장세동은 운전수에게 떠나라고 손짓을 하고는 살구재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밖에 모르는 관리위원장에게도 그런 인간적온기가 있었던 말인가. 충수염수술은 하찮은것이였다. 하지만 바쁜 관리위원장이 한 농장원의 병문안을 위해 50리 길을 갔다온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실 그랬다. 장세동은 박세철과 10년간을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다감한 사람인줄은 몰랐다. 그렇다. 꼭 10년이 되였다.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처음으로 박세철을 만난 그때로부터.

…군경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친 장세동은 해가 기울무렵에 농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군에서 회의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곧장 집으로 가는 성미였다.

그가 지름길로 해서 농장지경에 들어섰을 때는 사위가 아주 캄캄했다. 장세동은 전지불을 번쩍이며 리소재지를 향해 휘적휘적 걸고있었다. 그런데 길옆의 발가운데서 불빛이 반짝했다가 꺼지였다. 장세동은 의아하여 그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전지불을 비치였다. 누군가 두엄더미앞에서 웅크리고앉아 라이타불을 번쩍이고있었다.

《누구요?》 장세동은 그쪽을 향해 소리쳤다.

《…》 《거기서 뭘하오?》

그가 재차 소리쳤을 때 《거름무지를 구경하것습니다.》 하고 공손히 말하며 웬 사람이 장세동의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 군에서 검열나온 사람이 아닌가?)

장세동은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전지불빛에 얼핏 보인 사람은 등에 배낭을 진 젊은 청년이였다.

《어디서 오는 사람이요?》

장세동은 아무래도 이상스러워 또다시 캐물었다.

《군경영위원회에서 옵니다.》

젊은이는 점잖게 대답했다. 그제야 장세동은 군경영위원장한테서 달천농장에 기술지도원으로 새로 온 농대졸업생을 보내니 잘 도와주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서 반색을 했다.

《그럼 우리 농장에 기술지도원으로 오는 동무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알아준 것이 사뭇 기쁜듯 서둘러 대답했다.

《내 이 농장 기사장이요.》 장세동은 자기 소개를 했다.

《그렇습니다. 전 박세철이라고 합니다.》 그도 진심으로 반가와했다.

그들은 함께 밤길을 걸었다.

《그런데 거름무지를 구경한다는 건 무슨 소리요?》

장세동은 아까 박세철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넋지시 물었다.

《밭빼기마다 두엄무지를 소담하게 쌓아놓았길래...》 박세철은 어쭙게 대답했다.

장세동은 기본이 좋았다. 무엇인가 착실한 농사군다운 모습을 박세철이한테서 느꼈던 것이었다.

《정말 많은 일을 해놓았구만요.》

박세철은 흐뭇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땅은 속이지 못하네. 거짓을 모르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아글타글 애쓰지. 하긴 그래야 농사짓는 보람이 크다네.》

장세동은 왜 그런지 그가 구면처럼 가까와 생활속에 뛰어드는 박세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사장동지,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헤여질 때 박세철은 선망 어린 눈길로 기사장을 쳐다보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고 농을줄을 물랐다. 그런데 며칠 후 박세철은 장세동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한 것은 박세철이 살구재작업반에 나가 분조장에게 채 썬지 않은 거름을 낸 농장원들의 로력점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거름을 포전에 실어낸 농장원들은 관리위원회에 소털뽑아 제 구멍에 꽂으려는 사람이 기술지도원으로 왔으니 기사장도 꼴이 아프게 되었다고 뒤소리를 했다.

장세동은 경험이 없고 생활을 모르는데서 오는 착오라고 박세철을 너그럽게 이해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박세철을 끔찍이 여겼다.

새 살림집을 번듯이 지어주고 군에서 가족을 이사시켰으며 새로 지은 집에 불이 잘 안든다는 것을 알고는 주저없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과 굴뚝을 손질해주기도 했다. 그들사이에는 년

령적 차이가 있지만 퍼그나 자별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그들의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 것은 박세철이가 살구재마을 작업반장으로 된 후부터였다. 농사문제를 놓고 둘사이에는 자주 마찰이 일어났다. 박세철이가 기사장이 포치하는 농사지령을 성근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농장원들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는니, 적지적작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느니 하면서 관리위원회의 지령을 거역하다가 호되게 비판을 받곤 했다.

몇해전 봄이었다. 장세동은 자신이 담당할 살구재작업반의 작물배치안을 검토하다가 다시 작성하라고 밀어놓았다. 모내기를 해야 할 논에 봄보리를 심겠다는 것이었다. 차칫 잘못하면 벼농사를 망칠 수 있었다.

《봄보리도 심어야지. 하지만...》

장세동은 말꼬리를 흐리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힘이 들겠지만...》

《아니, 우리한테 지금 로력이 모자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처지요.》

장세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거기에는 확고한 주장이 숨어있었다. 했으나 박세철은 기어이 논에 봄보리를 심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세동은 속이 좋지 않았다.

《도대체 동문 뭘요? 상급의 말을 뭘로 생각하는가 말이요. 모내기를 제때에 못하면 동무가 책임지겠소?》 장세동은 화가 치밀어서 박세철을 관리위원회에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박세철은 태연한 표정을 짓고 여유있게 입을 열었다.

《기사장동지, 가을에 가서 알곡수확고를 놓고 따집시다. 그때 수확고가 떨어지면 내 책벌을 받지요.》

《책벌이 문제가 아니요. 상급의 지시를 걸썬 대하는 동무의 그 태도가 문제요.》

장세동은 모질게 질책했다. 물론 그해 박세철이 작업반 모내기를 다른 작업반보다 뒤늦게 끝낸 것만은 사실이였다. 허나 결과는 가을에 가서 나타났다. 봄보리를 수확하고 모를 낸 포전에서는 다른 논에 못하지 않게 수확이 났으며 봄보리까지 합치면 알곡소출이 거의 1.5배나 더 났다. 그러나 왜 그런지 그들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지지 못했다. 그이후에도 둘은 농사문제를 놓고 충돌이 잦았다. 말하자면 박세철은 장세동의 사업에서 말썬 존재로 되었다. 그랬던 박세철이가 지난해말에 뜻밖에 관리위원장으로 선거될 줄이야...

장세동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였다. 농장원들이 박세철을 따르는데야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장세동은 천천히 살구재마을로 내려갔다. 눈발

속에서도 마을의 여기저기서 농장원들이 왁작 떠들며 넓다란 구덩이를 파고있었다. 한쪽에서는 구덩이안에 진흙다짐을 하는가 하면 비닐박막을 까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뭇들 하오?》 장세동이 물었다.

《물거름을 저장할 구덩이를 파뒀습니다.》

얼굴이 갱뽀한 분조장이 곡괭이를 휘두르다가 기사장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관리위원장동문 어디 있소?》

장세동은 농장원들을 둘러보며 또 물었다.

《방금 작업반포전으로 나갔지요. 논밭에 낸 거름성분을 따져보겠다고 기술지도원을 데리고 갔지요.》 작업반장이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문지르며 대답했다.

이때 들에 나갔던 기술지도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농장원들은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한동안 숨을 쉰다가 입을 열었다.

《작업반장동무, 이거 야단났수다.》

《?...》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기술지도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관리위원장동지가 우리 논밭에 번 거름을 따져보고 비료의 효과성이 높지 못하다고 하면서 모두 발효퇴비장을 만들어 다시 썩이지 않으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허참, 그게 옳긴 한데... 로력이, 철이 문제란 말야.》

기술지도원의 말에 분조장이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장세동도 어이가 없었다. 논밭에 낸 퇴비를 무효라고 하다니, 참 사람두... 그 퇴비는 이미 우에다가 생산하여 반출한것으로 보고한것이였다. 원칙을 지킨다고 관리위원장은 오히려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것 같았다.

《분조장동무, 너무 걱정마오. 내가 관리위원장한테 말하겠소.》

장세동이 이렇게 분조장을 위안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자급비료를 실속있게 내자는건데 우리가 결함을 고쳐야지요. 관리위원장 말대로 발머리에 발효퇴비장을 제격 만들어야지요.》

작업반장이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반장동무 말이 옳수다. 잘 썩은 자급비료를 제격 만듭시다. 괜히 형식적으로 거름을 내면 가을에 가서 후파가 드러나기마련이지요.》

결에 있던 농장원이 반장의 말에 호응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합시다. 땅에 량심을 묻어야지 그래서야 안되지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관리위원장을 지지해나섰다.

《?!...》

장세동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은것 같았다. 자기는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말했는데 농장원들은 오히려 그 호의를 거절하는것이 아닌가. 농장원들은 그전과 퍼그나 달라진것이였다. 장세동은 무참하여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어딘가 농장원들과 자기는 간격이 있는것 같았다. 그는 마음이 서운했다. 그전처럼 자기를 따르던 농장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그는 아무 말을 못하고 덤덤히 서있다가 《관리위원장동문 아직 포전에 있소?》 하고 기술지도원에게 물었다.

《있을게 뭇니까. 온 들판을 구보로 달리는데. <가물치늪>으로 갔지요.》

락심했던 기술지도원도 신심이 생겼는지 활기있게 대답했다.

(《가물치늪》?...)

장세동은 한순간 의아하여 속으로 되뇌이였다.

《언제부터 관리위원장이 <가물치늪>에 눈독을 들이더니 이번엔 끝장을 보려는것 같습디다.》

작업반장이 담배를 피워물며 의미있는 소리를 했다. 장세동은 그 소리를 들으니 속이 좋지 않았다. 《가물치늪》은 그가 지난해 자급비료를 생산하려고 트랙포트로 늪물을 퍼내려다가 물이 어찌나깊은지 기름값도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손을 털고 그만둔 늪이였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끝장을 보겠다고 달라붙다니. 그러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세동은 급히 들길에 나섰다. 옛날부터 가물치가 많다고 《가물치늪》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감히 그 늪에 들어서지 못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수 없는 수렁지대였다. 전후에 황소 한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늪에 들어갔다가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지고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등비료가 있는 《가물치늪》을 보고 군침을 삼키면서도 늪의 물을 퍼낼수가 없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있었다.

장세동은 문득 며칠전에 《가물치늪》 작업반장을 만났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장세동이 관리위원회에 앉아 안경을 코에 걸고 농장자급비료반출실적표를 들여다보고있는데 누군가 문을 들부시듯 두드리더니 찬바람을 안고 한사람이 방안에 들어섰다.

《팔자가 늘어졌군. 남은 들판에서 두엄을 내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기사장은 따뜻한 방안에서 책만 보고있군그래.》

《가물치늪》 작업반장이 첫마디부터 빈정거렸다.

《자네도 좀 출세해서 기사장이 돼보지.》

장세동은 안경너머로 소꿉친구를 건너다보며 약을 올려주었다.

《난 재목이 못되어 하지 못하지만 한다면 자네

처럼은 안해.》

《허튼소리 하지 말고 찾아온 용무나 말하게.》

장세동은 우락부락하는 작업반장을 쳐다보았다.

《관리위원장이 <가물치늪>을 파내어 자급비료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자네도 알다싶이 그 늪이야 그림의 떡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작년에 기사가 달라붙었다가 끝내 성사를 못했다고 알아듣도록 말했네만 막무가내란 말일세. 우린 그 늪과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자급비료를 생산한단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답안을 하려고 왔네.》

《가물치늪》작업반장은 사뭇 성이 나서 투덜거렸다. 장세동은 푸들쩍거리는 소꿉친구를 이윽로 쳐다보다가 《내가 말은 해보겠네만 그 사람 고집도 보통이 아닐세.》 하고 동정을 했다.

《좁 형편을 보고 내리먹이라구 하계. 냇다 민다더니 벽을 문이라고 한다니까.》

《가물치늪》작업반장은 들어올 때처럼 와당탕거리며 나가버렸다.

장세동은 그가 나간 다음에도 한동안 일손을 붙잡지 못했다. 왜 그런지 마음이 어수선했다. 이 불길을 바가며 발을 퍼했다고 승산을 따져보고 일판을 벌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고 뛰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며 사람들간에 불꽃이 튀기마련이다.

그날저녁 장세동은 관리위원장이 포전에서 들어오자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박세철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방안의 어느 한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들바람에 끄슬려 고동색이 된 그의 기름한 얼굴에는 자못 심중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기사장동문 내가 공연히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객기야 무슨 객기겠소. 다만 사업에서 심사숙고하길 바랄뿐이요.》

장세동은 평소에 생각하고있었던바를 털어놓았다.

《물론 심사숙고해야지요. 백번을 타산해서 한번 실천하라는것이 당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산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타산인가,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다는 타산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세동은 관리위원장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말하는바람에 속이 흠칫했다.

박세철은 눈길을 장세동에게 돌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기사장동무, 동문 혹시 내가 결함을 이야기하면 싫어할가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공연한 생각입니다. 사실 난 당의 믿음에 비추어볼 때 아직 일을 쓰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난 지금도

우리가 처음 들에서 만났을 때 마을로 돌아오며 해주었던 동무의 조언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장세동은 관리위원장의 말에서 허심하고 진정 어린 마음을 받아안았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던가?…)

장세동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때 박세철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한것만은 틀림없을것이다.

관리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에 싸인 밖에서는 칼바람이 불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힘에 부칠겁니다. 그러나 알곡소출의 결정적 고리는 좋은 자급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농업부문에서 열여제길것을 바라시는 이 시각에 사무실에 앉아서 타산이나 하고 말공부나 할수는 없지요. 발고랑을 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들에 자기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장세동은 관리위원장의 말에 속이 흠칫했다. 그러면 나는 들에 마음을 바치지 않는 인간이란 말인가. 장세동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만큼 들판을 메주잡듯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온 농장포전을 뛰어다니며 한평생 농사를 해온 장세동이였다. 그는 관리위원장에 대한 섬섬한 마음이 밀물처럼 흘러듬을 느꼈다.

박세철은 창가에서 물러나 미소어린 얼굴로 기사장을 바라보며 신심에 넘쳐 말을 이었다.

《기사장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장원들은 꼭 해낼겁니다. 두벌농사도 하나의 혁명이라는걸 그들도 아니까요.》

그리고는 모자를 쓰고 일어서며 《가물치늪》에 가보아야겠다고 했다.

《아니 저녁식사도 안하고?…》

장세동은 깜짝 놀라 박세철을 쳐다보았다. 언제나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해서인지 관리위원장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보였다. 그러나 광채가 내뿜는 두눈만은 열정에 불타는듯했다.

《저녁은 프락포르운전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처보고 저녁을 싸가지고 <가물치늪>으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

장세동은 그만 굳어진듯 그자리에 서있었다.

눈은 언제 멎었는지 몰랐다. 재빛하늘을 헤치고 서쪽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녁무렵의 황혼이 마지막 붉은 해빛으로 들판을 물들이고있었다.

장세동은 논둑을 건너뛰며 걸음을 다그쳤다. 마음이 초조했다. 그는 먼발치에서 들가운데에

있는 《가물치늪》 주변에 농장원들이 벽적거리고있음을 알아보았다. 트랙토르와 소달구지도 여러대 보였다. 무엇인가 그곳에서 큰일이 벌어지고있는것 같았다.

장세동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와와 떠들어대고 트랙토르발동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가까이 다가가던 장세동은 깜짝 놀라 그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느새 그 거창한 늪물을 다 퍼내고 감탕흙을 파내고있는것이 아닌가. 농장원들은 성수가 나서 트랙토르런결차와 소달구지에 늪흙을 실었다. 작업반장이 늪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아니, 저 사람이?!...)

며칠전까지만 해도 관리위원장과 담판을 하겠다고 욱욕 버르던 작업반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며 돌아가지 않는가.

이때였다. 늪속에서 무슨 고함소리가 터졌다. 장세동은 영문을 몰라 앞으로 다가갔다.

《니란이요. 니란을 찾았소!》

늪안에서 환희에 찬 목소리가 울렸다. 농장원들이 와르르 그쪽으로 쓸어들었다.

(니란이라니?!...)

장세동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가물치늪》 작업반장의 손에는 거무칙칙한 니란덩어리가 쥐여져있었다.

《기사장! 이것 보게. 니란이 나왔네. 니란이!...》 장세동을 알아본 《가물치늪》 작업반장이 기쁨에 겨워 말했다.

《어디 좀 보자구.》

장세동은 사람들을 헤집고들어가 반장의 손에서 번들거리는 니란덩이를 받아들였다.

《기사장, 난 정말 바보였구 청맹과니였네. 관리위원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보물을 옆에 두고도 영원히 보지 못할뻔했네.》

장세동은 반장의 말이 그대로 자기를 후려치는 채찍처럼 생각되었다.

자기는 이 땅에 태를 묻고 나서자란 사람이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총명이었고 자기기만이었다. 50여평생 이 늪가를 지나다니면서도 이런 보화가 묻혀있는것을 보지 못한것처럼 매일 이마를 맞대고 마주앉아있으면서도 관리위원장 박세철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것이였다. 기사장이 관리위원장을 보지 못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알수 있었으랴. 《가물치늪》 반장에 대해서도 그저 웅고집쟁이로만 알았지 저렇게 관리위원장처럼 심장을 움직이게 할 생각은 못하지 않았던가. 나같은 사람이 무슨

일꾼이고 기사장이란 말인가.

장세동은 쓰라린 회오와 자책에 가슴이 아팠다. 자기와 같은 인간은 응당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

《가물치늪》 작업반장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관리위원장이 언젠가 하는 말이 땅에 거름을 묻는것은 농사군의 량심을 묻는것이라고, 좋은 거름은 나쁜 땅을 탓하지 않고 알찬 열매를 맺어 주듯이 성실한 농민은 땅타발을 하지 말고 거름 타발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군.》

순간 장세동은 가슴에 세찬 충격을 느꼈다. 그 말은 캄캄한 들에서 박세철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한 소리였다. 그런데 자기는 벌써 그 말을 잊었고 그렇게 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관리위원장이 뭐라고 한줄 아나? 땅에 정을 쏟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수 있다고 하더군.》

장세동은 그만 정신이 번쩍 드는듯했다. 그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 말이였다. 장세동은 불현듯 관리위원장이 보고싶었다. 그가 어디에 있을가. 사방을 둘러보던 장세동은 관리위원장이 안쪽구석의 논두렁에 주저앉아 담배를 구수하게 피우고있음을 알아보았다. 감탕흙이 제발린 그의 옷주제는 말이 아니였다.

장세동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기사장을 알아본 관리위원장은 기름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지리에서 일어났다. 어느덧 피곤에 물렸던 그의 두눈썹에 물기가 번쩍이고있었다.

《기사장동무, 이제 한시름놓게 됐습니다. 거름원천이 생겼으니 금년농사도 떼는 당상이지요.》

《고맙소, 위원장동무. 하지만 아무래도 난 이제 늪은가보이.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구만.》

장세동은 자책에 잠겨 이렇게 말하며 박세철의 흙문은 손을 뜨겁게 잡았다.

《허허... 무슨 소릴 그렇게 하십니까. 전 언제나 이 벌에서 한생을 바쳐오는 기사장동무를 존경하며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깨우쳐주는 조언대로 일하려고 애쓰고있습니다.》

박세철도 찰찰 웃으며 기사장의 손을 잡고 다정히 흔들었다.

그들은 나란히 논둑길을 걸었다.

저녁녘이였다. 온 하늘을 물들일듯 저녁노을이 장엄하게 불타오르고있었다.

아직은 겨울이였다. 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봄이 오고있었다. 환희와 희열, 생의 활력을 주는 새봄이!...

승패에 대한 시

김정곤

행진

행진이다
《1211고지》 농업전선
포전을 누비던 걸음들이
운동장을 구른다

가슴팍엔
농장명찰
활개치는 두팔에선
벌바람이 일렁인다

뿌리는 비
쏟는 피약벌을
농립모 한겹에 다 받으며
논뚝을 이랑을
메주밟듯하던 이들

오늘은 농립모
잠간
말코지에 걸어놓고
하얀 운동모아래
웃음을 날리며
취주악에 발걸음 맞추니

미덥구나

그처럼 겹겹 어려움 밀려와도
나라의 쌀독 품에서 놓지 않고
온 벌 살지우며 검붉어진 저 얼굴
변색을 모르는 땅빛을 닮았는가

활기넘쳐 흐르는 대오
풍년이삭 떠실은
배미들이
등등 운동장에 떠가는가

관람석이 일어선다
들꽃이 날아내린다
머리수건 눈곱에 대이며
목이 메여 손 흔드는 녀인들

행진이다
참호없는 전선
오늘의 《1211고지》에서 내려온
주공전선의 기둥선수들!

아! 손벽으로는 모자라
군민체육대회장 저 하늘가에
축포 가득
짜 울리고싶다

바줄당기기경기

영차! 여영차-
군민이 힘 합친
바줄당기기

앞에는 런던장
군모밀엔 총알같은 땀방울이 굴고
옆에는 관리위원장
팔뚝엔 가래줄인듯 힘살이 솟고

저봐라
모관관리공 아주머니
통신병처녀와
하늘을 보며 누웠다

당겨라! 당겨!
배추 한포기도
군민이 나누어먹으며
된장 한사발도
군민이 같이 풀어먹으며

처창즈의 이랑끝에
가슴들을 대어보며
논뚝에 놓인 쑥떡 한사발이
해종일 축나지 않아
세 곱으로 논길 잡던 이네들

병사들 기상나팔에 맞춰
 벌로 함께 가며
 폭우 몰아치던 그 밤엔
 어깨 어깨 성을 쌓아
 혁명가 함께 부르며
 푸른 배미우에
 노을빛 하늘 엮어놓던 이네들

 군민이 합친 힘

바줄에 모아 잡고
 당겨라- 당겨라-
 팽과리 북통이 목이 메인다

 저봐라
 바줄 한끝으로
 하늘을 툭툭 건드리며
 만풍년 로적가리가
 덩실덩실 끌려나온다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군모 쓴 운전공전사
 해모자 쓴 공급수처녀
 손목잡고 달린다

달린다
 모내는 기계 같이 탈 땀
 운전공전사는 앞을 보며
 공급수처녀는 뒤를 보며
 방향이 다를 때에도
 마음이 맞아
 푸른 벌을 누볐는데

방향도 같고
 걸음도 맞아
 쌍어깨엔 쌍날개 돌렸네

사람찾기경기
 공급수처녀
 사람도 잘 찾았지

웃으면 덧이마저 고운
 저 운전공병사

모내기 첫날
 운전대 잡으며
 손발 맞춰 본때있게 해보자고
 첫 발동 올린 그날부터
 만풍년 그날에도
 방향잡고 함께 달리던 걸음

들에서 맞춘 걸음
 운동장이라 달라질가
 달린다
 결승선이 코앞이다

그래도 달린다! 달린다
 결승선 넘어
 만풍년테프까지
 끊고말 기세다

아빠는 문지기

애젊은 너인
 내옆에 앉아있습니다
 아기의 고사리손 잡아 흔들며
 축구경기에 혼이 빠졌습니다

아빠는 문지기랍니다
 거리가 좀 멀어
 가까이만 가고싶은듯
 너인은 자꾸만 일어섭니다

나는 아기를 봅니다
 두어살 되었을가

강행군의 날에
 태어난 아기

이 애들은 알가요
 《봉쇄》의 검은 창을
 《암살》의 검은 화살을
 오는죽죽 잡아 꺾으며

다시는 다시는
 아이들 앞날에 어찌지 못하게
 아빠 엄마들
 허리띠를 조인줄을...

그때문에
아버지가

지금도
문을 지키고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롱구선수들

군민 혼합팀 우리 선수들
롱구장에 척 나섰소

해종일 배미 타고앉아
논을 삼던 땅크병
우리네 방어수라오
산도 강도 날아넘던 날파람
코깁에도 썩썩 내뿜어
누구나 맞서면 편안치 않소
두손 펼치면 씨레살같이
풀깎 걸리듯 다 걸린다오

우리네 공격수는 농산분조장
새초만 히히 런결차에 던지면
차곡차곡 줄날가리 하늘끝에 세우는
그 손은 요술손이라오

공을 던지면 쪽쪽
롱구관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다오
우리 롱구선수들
손발도 잘 맞는다오

《우리 초소-우리 농장》오고 가는 정
그 정 안고 구름산 바위도 날라
탈전소 뽕뽕 돌제방도 쌓았는데
갑작한 공이야 그 정 불으면
튀는 공 나는 공 주고 받으며
산벼랑 끝엔들 못오르겠소

어떻습니까
이래도 맞서보자면
한번 붙어봅시다

쌍그네

웃음도 한쌍 그네에 실고
하늘에 썩썩 쌍그네 나네
분홍치마 훨훨 파수반치녀
군복자락 펄펄 해안포처녀

어제는 사과나무 나란히 올라
파일꽃 구름처럼 피워놓더니
오늘은 그네줄 같이 집고서
저하늘 어디쯤 올라보려나

군민의 맺은 정 날개로 펴고
어느새 허공중 방울도 찻네
오르고 또 올라 구름도 헤쳐
하늘도 툭 차서 구멍이 날라

아무렴 아무렴 군민의 날개
이 세상 못닿을 끝이 있을가

제목없이

왜 이리 자꾸만
컹컹 목이 메입니까

만시름 다 잊고
운동장에선
공을 차며 달리고
씨름판에선 배지기를 뜨고
감실한 땅의 선녀들
널판을 튀어오르는데

터지는 웃음소리
하늘이 흔들려
해도 병실 웃는데

왜 이리 자꾸만
목이 메입니까

웃으며 떠들며 들끓는
운동장의 열기
활활
이 가슴 달쿵것입니까

강성대국건설의 최후결승선을
바짝 당겨와
운동장에 쭉-그은듯
아무나 밟을수 없는 하얀 선이
이 가슴을 굶고 지나가며

걱정의 물목을 터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시름 다 잊은
저 밝디밝은 웃음들이
방금 품에 잠든 아기의 보조개와
저 운동장의 환희가
어디서
그 어디서 온것임을
이 미음 한끝이 가닿아있어

온 벌에 일어난진 싱싱함이
그대로 운동장에 옮겨와
달리고 달려도 진함모르는 힘의 박동이!
석삼년 허리띠 조이면서도
굴하지 않는 이 힘의 줄기가

어디서
그 어디서 굵이쳐온것임을
이 마음이 더듬고있어

아 아
지금 이 시각도
최전연 위장포아래에
쌍안경 내리지 못하시는 장군님
낮익은 잠바옷깃에
쏟아내리는 불별이...

아
그 한가닥
이 가슴 휘저어
나는 자꾸만 킁 킁
입을 열수 없습니다

응원풍경

춤이다 춤이다
풍년벼이삭
이삭수염 쓸어내리고
감자의 덩실한 머리우에서
열두발 상모 운동장을 휘감는다

뒤산 풀판에서
살진 염소 젖통 흔들며 내려온다
땅 딛고는 못사는
양어장 잉어도
춤판에 끌리어 튀어나온다

춤이다
군모가 돌아간다
해모가 감겨돈다
감집 령감님
새장구도 휘돈다

춤이다 춤이다

《1211고지》전승춤
가락 굴리는 장새납은
고지를 흔들던 화선악기인가
저 물결치는 록색치마는
남강 건너온 너인들인가

춤이다
쌀고지 전투원들의 춤
만난도 웃음으로 날려보내며
온 벌을 싱싱 쫄게 하는 춤
밥먹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춤

춤이다
관람식 돌계단도
들썩들썩 일어서게 하는 춤
이 늙은 시인도
등-뜨게 하는 춤

승패에 대한 시

대오가 떠나간다
운동장으로부터
다시
주공전선 전야로

금시 운동장이 비인다
시인 나만이
관람석 돌계단에 서서
시상의 나래를 펴고

대오가 들어설
버들방천 동구길에 서본다

시내물이 흐르고
흰 바위밑에 버들치 맴돌고
자장가처럼
모포기 도닥이는 논고물소리...

길숲에 때없이

산평 살갈이 오르는
이처럼 평화로운 전야에
무명고지도 아닌
불의 고지
《1211고지》 표찰을 달아주었는가

불을 토하는 화점도 없고
전호도 없는
가래삽으로 곱게 다듬은 논둑길에
전선이란 구획을
저 지평선 한끝까지 그었는가

아니다
대포와 총알만이
화점과 좌지만이
불을 내쫓는것 아니다

《봉쇄》의 검은 장벽에서
소리없이 무자비하게
굶주림의 흉탄이
불줄기없이 날아오고있으니

쌀! 쌀!
원췌의 《봉쇄》 환을 끊어 팽개치며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인 전야

쌀을 위해선
왕별 군복을 논둑에 엎어놓고
사단장이 제초기를 밀고
꼬마분단원들
썰매밑에 바퀴를 달고
가루비료를 싣고온다

우리 장군님
북방의 언 고드름
신발에서 녹이실새없이
또디시 고지로 오르시는 그 자욱을
눈물 머금고 이랑에서 쓸어보며
불이 되어 끓는 가슴들

최전선 중대를 찾으시여
우리 장군님
꼭꼭 들리시는 화선식당을
논머리에 세워두고

그날에 짚어보신
저 장강기슭의 전기온돌집과
성강의 로동자지구
그 부엌들의 쌀독들을
이랑이랑에 당겨놓고
김을 잡고 복을 엮는 마음들

여기서는 난알 한알이
총알의 무게로 영글고
양수기가 뿜는 물줄기조차
《봉쇄》 환을 물어 끊으며
방울방울 부서진다

《봉쇄》와 맞선 최후격전장
목숨을 긴 결승의 판가름!
누가 승자나 패자냐!

이제 군민이 함께
바줄을 당기던 그 힘
백배로 더해

《봉쇄》와 《압살》의 검은 응어리
지구밖으로 뱉다 차던지리라!

이제 농업전선 《1211고지》는
의지와 신념으로 알알이 익힌
만풍년의 쌀성새를
고지의 그 이름처럼 높이
그처럼 위엄차게 쌓아올리리라!

경기장의 점수판처럼
인류가 쳐다볼
지구의 축대우에
력사는 승패의 판결을 새기리니

제국주의 련합세력이 내세운
《봉쇄》와 《압살》에 패전을!
우리 당이 키운 주공전선 기동선수들
군민의 힘에 승전을!

승패에 대한 시
운동장에 흐른 이 하루가 다 말하고
나는 지금
강성대국의 령마루에서 울려오는
승리의 함성을 듣고있다

봄날의 언약

최치성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맞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다 가고 새봄이 왔다.

하얀 눈이불을 쓰고 잠자던 대지가 젖빛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며 눈석을 하던 때도 언뜻 지나가고 지금은 고요한 들먹임속에서 씨앗을 기다리고있다.

봄, 인간세상의 천하지대본인 농사의 일년지계가 다 담겨져있는 봄!

가장 약동하고 가장 보람있는 절기인것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이 류다른 애착과 강렬한 그리움을 안고 드넓은 대지로 달려가는 참 좋은 계절-봄.

푸지게 갈아엎은 거름기 진한 논판에 씨레를 치느라 밤낮 가림없이 통탕거리는 트랙터의 구성진 노래소리를 어서 듣고싶다. 맑은 이슬이 아롱진 비닐집속의 푸른색에서 가을의 황금빛을 가늠해보는 농민들의 속구구에도 귀기울여보고싶다. 또 두벌농사의 전작인 감자밭과 밀보리밭에 구슬져내리는 그네들의 성실한 땀방울에도 이 마음한껏 적셔보고싶다.

부강하고 번영하는 조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의 해, 충진격의 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제일돌파구로 정해주신 농업전선!

그래서 더더욱 한시바빠 그리로 달려가고싶은 마음 금할길 없다. 발걸음보다 그 마음을 먼저 앞세우며 나는 취재길에 올랐다.

하루가 달리 훈훈해지는 바람결을 타고 별판에 울려퍼지는 처녀들의 청아한 노래소리, 미출하게 다듬어진 논뚝을 따라 중횡으로 세워진 붉은 기발들, 배비마다 출렁이게 물을 잡고 바야흐로 모내기를 눈앞에 둔 논벌이 정다운 모습으로 나를 반겨 맞는다.

나는 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만난 그들은 하나같이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담당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이 땅에 기어이 풍년가을을 안아올 하나의 일념으로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부모들이 한참 푸르싱싱하게 자라나고있는 모판에서 나를 만난 한 청년분조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배고픈것과는 타협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불려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는것이 자신의 평생소원이라고 하

시며 대대로 내려오던 <의식주>라는 말까지도 <식의주>로 고쳐 부르도록 해주시고 한평생 친히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로고를 바쳐오시였습니다.》

한줄금 스쳐지나는 바람결에 싱싱한 벼모들의 실한 잎이 설레이고 황소의 구성진 영각소리가 봄들판에 울려퍼져간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 기간 나라의 쌀독을 채임진 주인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아글타글 애쓰고 조금만 더 안타깝게 뛰어서 제구실을 했던들...》

분조장동무는 격해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오늘도 평양하늘 송엄히 바라보면
우리를 불러주는 수령님 그 유훈
만풍년 노래속에 당의 뜻 꽃피워가며
못다바친 효성을 다해 그 유훈 지키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분조장동무는 문득 손을 뻗내저었다.

《지금은 자랑할것도 할 말도 없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가을철에 다시 오십시오.

날알에 무르익는 그날에 다시 만납시다.

꼭 농사를 잘 지어 풍작이룬 논머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만풍년의 보고를 드리는 그날 다시 와주십시오.

그때면 저 들판이 꺼지게 잘된, 알알이 영근 이삭들이 다 말해줄겁니다. 그 이삭들이 밤새도록 터쳐놓아도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던 우리들의 한해 이야기를 대신해줄겁니다.

우리 그때는 품농고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그러나 지금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맺고난 분조장은 한창 씨레를 치는 트랙터쪽으로 다급히 걸어갔다.

멀어져가는 그의 뒤보습을 바라보며 나는 점도록 서있었다. 투박한듯 하면서도 진정이 배인 분조장동무의 말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것은 나 한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약속이기전에 경애하는 장군님 앞에, 조국앞에, 인민앞에 다지는 이 나라 농민들의 크

나 큰 맹세이며 새봄의 언약인것이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들의것으로 받아안고 시대 앞에 생의 언약을 맺어놓고 그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몸부림치고 애태우는 우리 농민들...

아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한가지 생각을 하고 한가지 일을 해도 그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해 자기의 심신을 불태우는 우리 인민들...

그것은 다만 농촌사람들의 심장뿐이 아니였다.

정초에 가보았던 화력발전기지의 로동계급들에게서도,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의 청년돌격대원들에게서도 나는 그것을, 오직 장군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의 열도를 느낄수 있었다.

그 후더운 심장들이 합쳐지고 이어져 이해의 봄은 더더욱 류다르게만 느껴지는듯싶다.

나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봄날의 대지우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이 땅에 만풍년의 가을을 안아올 우리 농민들의 봄날의 언약!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마련해올리라는 봄날의 맹세!

그것이 환희로운 현실로 펼쳐지게 될 그날을 나는 방불하게 보고있었다.

하다면 나는 이 봄날에 조국앞에, 인민앞에 어떤 언약을 다져야 하는가?!

나의 마음속에서도 언제나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당을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한 더 훌륭한 글을 써내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할 결의가 끓어오르고있었다.

사랑하는 농촌사람들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내가 다지는 봄날의 언약이...

빛나는 미래가 우리앞에 있다

김영택

그 얼마나 자랑높은것인가
고난을 헤치고 시련을 이기며
최후의 승리를 위한 총진격의 길에 오른
우리의 가슴가슴은
그 얼마나 희망으로 넘치는것인가

또다시 천리마대고조의 나래를 펴고
빛나는 래일로 줄달음쳐가는
불타는 우리의 심장은
백두산의 기상으로 끓어넘친다

저절로 올 좋은 날이었다면
우리 어찌 고난의 자옥을 남겨왔으랴
저절로 차례질 행복이라면
우리 어찌 강행군의 신들메 더 바싹 조이며
달리는 걸음에 박차를 가하랴

승리는 우리의것
이것은 백두에서 전해오는 민족의 혈통
제국주의의 고립 압살 폭풍이 계속 밀려오고
침략의 불구름이 사납게 몰려와도
천리마대고조의 북소리높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결코 멈추지 못하리

찬란한 래일을 눈앞에 보는
환희의 언덕우에 올라선 우리
장군님 섬없는 로고로 이 땅에 펼쳐주신
강성대국의 휘황한 설계도우에
땀과 열정을 한껏 쏟아바치며
래일을 앞당겨오자

우리의 붉은기는
천리마대고조의 붉은기!
지나온 세월의 힘겨웠던 나날들을
신념의 붉은기 높이 들고 헤쳐왔듯이
천리마의 나래를 더 활짝 펴고
대고조의 총진군으로 세월을 주름잡아가자

앉아서 기다리라
고난을 맞받아나가는 투쟁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이 있다
숫아 길이 빛날 주체의 새 세기가 온다

신념의 강자 사상의 강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육탄영웅이 되고 자폭용사가 되는가를
하여 승리자들의 삶이 어떻게 조국을
떠받드는가를

그 어떤 세월의 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산의 기상 승리자의 기상을
불타는 심장마다에 넣으로 심어주시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령장이 계신다
승리의 대오앞에 장군님 서계신다

아 맑고 푸른 저 하늘가에
백두에서 솟은 태양은 눈부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언덕우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 빛나는 미래가 보인다
조국이여 인민이여 힘차게 달리여가자!

세월과 순간

문상봉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자강도청년돌격대원들이 벌리는 오락회는 참으로 이채롭다.

종목의 다양함은 물론 연기 또한 생신하고 개성들이 독특하여 그 흥취감을 나의 미숙한 글로 써는 다 표현할수가 없다.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리는 조국의 벅찬 현실, 들끓는 우리 생활의 축소판이랄가 봄별이 한껏 무르녹은 대자연속에 차넘치는 혁명적랑만과 가슴마다에서 용암처럼 솟구치는 청춘의 열정...

대문짝만한 속보판을 마주하고 취재수첩에 몇자 더 적어놓던 나는 장강대대쪽에서 터져오른 요란한 웃음소리에 끌려 서둘러 오락회장에 끼여 앉았다.

려단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송동무의 입재주가 한창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그는 온갖 짐승소리로부터 시작하여 못하는 흥내가 없다고 한다.

지금은 예술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하게 재현시키고있다. 우리 경찰병이 적소굴에서 작전문건을

감쪽같이 탈취해내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손에 땀을 그리쥐고 숨소리마저 죽였다. 정말 공훈배우가 왔다 울고갈지경이다.

전너편에서 누구인가 이쪽에 대고 기웃하며 목을 쭉 뽑았다. 오락회책임자인 전동무가 어느새 나를 알아보고 커다란 눈을 깜박하는것이였다. 준비하라는 신호인가?

아니나다를가 시공참모의 서정넘친 자작시랑송이 끝나자 절절한 소개말소리가 울려왔다.

《다음은 우리 건설장의 명망높은 경제선동가이며 목고대장인 기자선생의 18번을 부탁드립니다.》

짹자그르... 박수소리가 요란히 울리였다.

헛참, 비행기를 태워도 분수가 있게 태워야지 내가 무슨 명망높은 경제선동가이고 목고대장이란말인가.

《부르실 노래는...》

나는 능청스러운 목소리를 성큼 받아넘기며 한복판에 나섰다.

《더 많은 일을 하자 어머니당을 위해》

하늘에서 불덩이리 같은 태양이 따사로운 봄별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만물이 약동하는 대지, 시각을 다루며 뻗어가는 넓고 아득한 고속도로, 우줄우줄 키돋움하는 교각들과 구조물들, 힘차게 펴려이는 붉은기 붉은기...

저 멀리 아지랑이속에서 종알새가 《지중지중》

은근하게 선창을 댄다.

철없던 그 시절엔 하루가 한달같이 길더니
어쩐지 지금은 한달이 순간보다 더 짧아

아차! 나는 허끝을 깨물었다. 하루보다 더 짧은 것은 가사구절을 순간보다 더 짧다고 불러버린것이다.

그런데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것은 《와야!-》하고 터뜨리는 돌격대원들의 환성이였다. 삽시에 오락회장은 걱정을 안은 바다마냥 설렁거리고 어떤 동무들은 파도마루처럼 벌벌벌떡 일어서서 손세를 써가며 노래를 따라불렀다.

...

한품에 나를 안아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당
내 진정 그대위해 지금껏 한 일이 무엇인가
...

노래 3절이 끝나자마자 우뢰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돌격대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나를 에워싸고 돌아갔다. 언제 준비했는지 전동무는 향기가 물씬 풍기는 꽃목걸이를 넘씩 걸어주었다.

(?!...)

나의 당황감은 극도에 달하였다. 꽃목걸이로 말하면 그날 오락회의 《왕자》만이 차례지는것이 아닌가.

《아, 아... 이리저들 마시오. 난 목청이 시원치 못한데다 노래가사까지 오발했던 말ियो.》

그러거나말거나 이번에는 여럿이 달라붙어 나를 공중에 추어올리기 시작하였다.

《엣싸, 여이차!...》

허리가 늘씬해지고 하늘과 땅이 맞붙어 쌍그네를 뛰는듯한 느낌속에 돌격대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단수가 높아!》

《어쩔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 한구절로 신통히 표현할가?...》

《자, 자- 더 높이 올려라.》

어느덧 오락회장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열정넘친 합창무대로 변하였다.

분초를 아끼자 세월은 쉽없이 흘러간다

더 많은 일을 하자 어머니 우리 당 위하여

...

그날도 나의 하루는 희열넘친 로동과 격동 속의 취재로 순식간에 흘러갔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의 비등된 열의와 기적적인 성과에 비하면 기사에 반영할 내용이 너무 빈곤한것 같아 좀처럼 건설장을 쓸수가 없었다.

불타는 저녁노을에 반들리어 한껏 쳐들린 송이구름들은 거대한 무리등인양 밤낮이 따로 없는 건설장에 령롱한 빛발을 뿌려주고 기계화의 대군단이 곳곳에서 울리는 대교향곡은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이 시대를 구가하듯 누리를 우렁차게 진감시키고있었다.

《참, 안타까워요. 하루하루가 어찌나 빨리 지나버리는지...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세월이 우리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는것만 같아요.》

나와 목고작폐인 나어린 처녀 옥이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하소연하던 목소리가 귀가를 또다시 울린다.

세월이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그것은 견잡지 못할 정도로 쏜살같이 흐르는 나날들에 대한 사람들의 단순한 조바심일까?

옥이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장강군을 찾아주셨을 때 꽃다발을 드린 처녀이다.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군내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마

을들에 전기난방화를 실현한것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그렇게도 기뻐하셨다고 한다. 이제부터 동무들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락원의 행군을 하게 되었다고, 이래서 고생끝에 락이란 말이 생긴것이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자애로운 모습...

옥이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우고 오열을 참다가 끝내 흐느낌을 터치고말았었다. 정초의 흑한과 눈보라를 몸소 헤치시며 수천리 험한 령길을 굽이굽이 넘어오신 장군님의 안색은 겹쌓인 피로가 어리였고 옷깃에는 성애가 두텁게 불리어있었다.

아! 우리 장군님 찬바람 눈비를 홀로 다 맞으시며 안아오신 행복한 오늘이여서 무심히 스쳐보낼수 없는 우리의 세월, 쪽잠과 췌기밥으로 현지지도의 험한 길을 이어가시며 열어주신 희망찬 미래여서 청년맛잡이로 귀중한 삶의 순간순간...

나는 뜨겁게 젖어오는 눈시울을 스며이며 건설장입구에 세워진 대형구호관을 바라보았다.

《울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타는듯한 저녁노을이 그 깊은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려는듯 구호관을 더욱 붉게 물들인다.

래일의 더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노을속에서 나는 미구에 솟아오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가슴뿌듯이 그려보고있었다.

풍년종다리

김영근

푸른 하늘 구름가에
우짚는 종다리야
논보리 풍년소식 네 알려주느냐
모내기철이 왔다 재촉을 하는구나

벼바다로 이어질 풍년가을을
손저어 부르며 마중가는듯
무겁게 고개숙인 보리이삭물결이
춤추며 설레며 달려가는 봄

두벌농사 풍년든 이 봄이 좋아
기쁨의 노래물고 떠오른 종다리야
너는 온 나라가 다 들으라고
한종일 쉬지 않고 은피리를 부는구나

하늘엔 네 노래, 벌에선 기계소리...
5월이라 불같은 모내기철을 달고
보리밭을 달리는 바람결에
운전공처녀들의 웃음소리 실려온다

봄가을 겹쳐온 농장일이 좋아
봄노래 풍년노래 함께 부르는
고운 새 너는야 하늘의 가수
어쩐지 네 노래 들을수록 새로와
가슴엔 환희의 금물결이 이는구나

구보행군 내닫는 조국강산에
강성부흥의 새봄이 온다고
하늘에 높이 떠서 노래로 알려주는
아, 종다리, 풍년종다리

세월에 비낀 운명

동기춘

시작에

고대의 어느 하루부터
이 세상엔 주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싸우고 죽이고 서두르며
땅이며 산림, 먹는 열매에
제 소유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량해하시라, 첫 운을 너무 멀리서 펜질을
게다가 매우 까다롭게 시작한것을
하지만 할수 없어라
나의 류별난 이 서사시가
거기로부터 그렇게 시작할것을 바라기에

나는 저주하노라, 나와 나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땅에 금을 긋기 시작한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첫 행위에 대하여
그 금이 령지가 되고
그 금이 주인과 노예를 만들고
그 금이 수난자의 행렬을 낳지 않았는가

세월이여, 너의 흐르는 날들을
력사라 말하며
사가들은 기록했다, 곡절많은 폐지들을
허나 그들, 뻔뻔 마른 선비제씨들은
술한 왕족들의 계보와 환락과
그들의 솟구치고 무너진 략사는 간간히
서술했어도
기록하지 않았다, 진정 땅바닥을 굽으며 걸어난
평범한 인생들의 그 어떤 토막사도

무지와 몽매의 질곡에서
짐승처럼 이름도 못가지고 산 사람들
학대자의 간계에 속아서
고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오랜 세월 묵묵히
유한층의 비계를 살피웠다

세월에 운명을 엮어놓고
인간은 누구나 한세상을 산다
몇배로 끝나도 한생이요
백년을 넘겨도 한생인
저마끔의 길고 짧은 세월의 토막을

운명과 한세상이여
한세상 살고가는 묵숨이여
옛날에도 오늘에도
인간은 같다!
인간은 같았는가?

나도 그 한 인간으로
희여가는 머리를 쓸며
무엇을 이야기하고싶은가
내가 사는 이 제도, 이 정치, 이 사회
우리 식 사회주의라 부르는 인민세상을
마음다해 송가하고싶은 열정 사뭇 끓을 때면
나는 말하고싶어지노라
오늘의 행복을 반증하는
평범한 한 가문의 세월에 비낀 운명사를

1

사람들이여, 호화로운 집을 쓰고
좋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여
인간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대들은 원시의 그때를 생각하리
하지만 아득한 그 시대의 흔적이 아니라
근대인간이 산 자취를 더듬으며
내 지금 심산속 작은 동굴앞에 서있다

오, 내 나라 사회주의
그것을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을
어설피 엮고싶지 않는 내 심정
심각한 마음을 이 동굴앞에 세웠나니

놀라지 마시라, 여기서 나의 조상이 살았다
사람들은 흔히 과장하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법정에서의 진술마냥
진실만을 서술할 량심서약을 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슬프게 밟으려다

근 2백년전의 음산한 아침에로
조상의 령혼이여, 나를 실어가라
실어 안간들 내 모르랴
마치 오랜 사진첩을 번지고
잊혀진 옛모습을 보는듯
생생히 부상되는 그 화폭을
내 후손다운 성실로 기록하련다

북관땅 어느 외진 산기슭
마을에서 흥가라고 꺼리는
염병에 일가식술이 전멸된 초막에
다부지게 생긴 부평초사나이
그것도 거저 생긴 집이라고 기꺼워
젊은 아낙과 더불어 행리를 풀었다

죽음의 섬찍한 내음을 풍기며
썩은 새끼줄이 울타리친 집에서

해묵은 거미줄을 대충 걷어내고
사내는 인생행로의 첫 돛을 올렸다

밤이면 귀신이 희뜩인다는 그 마가리에
오래오래 인적기 없었다
어느날인가 먼지 덕석같은 토방에
끔찍이도 해골이 된 육신이 널렸다

알길없어라
죽음이 그들을 끌고 어디까지 갔는지
아마도 저승문턱어방에서
사자가 지쳐서 내버리고만것 같았다

죽지 않았다
허나 단호히 죽음과 결별한 사나이
시신같이 된 아낙을 발구에 싣고
오라는곳 없는 세상을 피해
내쫓는놈 없는 두메산골동굴에
인생쪽배의 두번째 닻을 내렸다

먼 후날 승냥이골짜기라고 불리운
가파롭고 울울한 숲의 틈바구니에서
몇삼태기 보리와 감자알을 굶어내며
근대판 원시인이 살았다

집이라고 부르면 집이기도 했던 동굴이여
내려오는 승냥이 올라오는 승냥이
앞마당은 늑대들의 공회당이 된듯
물어뜯고 울부짖고 맞붙는 긴 밤
빈대가 들락이는 목침우에서
탈판한 두뇌는 코를 끌었다

죽음은 또 한차례의 래습으로
마누라를 뺏어갔으나
그때도 사내는 죽지 않았다
세상에 남기고간 피덩이를 안고

민족은 심청이를 키운 심봉사를 찬미했지만
그래도 그 참봉은 인촌에서 살았더라
세월의 고개고개 어닐널 몇고개만에
떠도는 꽃잎을 다행히 얻었으나
죽음의 끈질긴 회롱은
다시금 사자의 가마우에 후실을 태워갔고
사내에겐 또하나의 피덩이가 남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두고개 세고개 칼고개를 넘으면서도
이상하게 죽지도 않았으며
수목도 제 종자끼리 물켜사는 하늘밑에
동굴속 몇세월, 초막의 몇세월
그만에야 사람이 그리웠던 그 사람
언젠가는 높은 더기 여라문가호의 인촌에
원시를 결별하고 기여나왔다

폴롭부스가 새 대륙을 발견하고
빠리의 문명이 에펠탑을 치솟을 때
《대평성대》의 파괴합창을 하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갓그늘밑에서
해빛을 모른 콩나물인생
하늘소를 탄 《하늘소》들의 발통에 밟히며
그는 으깨진 이마의 찼찼한 피를 흠쳤다
하바닥인생의 터지는 피를

나라도 있고 왕도 있는 땅에서
나라지경도 왕의 이름자도 모르며 산
노비도 량인도 아니었던
세상이 소외한 인간
그는 《태평성대》의 백성이었다

똑똑하였으나 글 한자 배우지 못했고
피가 끓었으나 녀자 하나 다시 얻지 못하며
봉당재를 뒤쓰고 봉당재같이 산 사람
어느 하루도 변한 날 없이
그처럼 죽음과 맞대결하며
젊은 시절에 버금버금 묻은
마누라들의 뒤통까지 악나서 더 산것 같은 그도
팔십을 넘기고는 다시 온 죽음앞에 패하였다

사람축에 못들며 지지리 고생한 인생
《팔자》도망은 죽어가서도 못했던지
그 무슨 몇대에 가서 좋은 일 있겠으니
본댁의 묘소를 다치지 말라는 풍수쟁이의 엄령에
그는 땅속에 가셔도 홀아비로 묻혔다

하루살이도 하늘을 날다가 죽는데
자유의 날개깃 한번 못하고 사라진
그가 누구였던가
그가 바로 조국이 없어 불쌍히 살고간
우리 가문의 1대조상이었다

2

눈부시라, 해빛이여
푸르러라, 생활이여
그리고 넘치는 희망
아, 이 모든것이 얼마나 값비싼지를
고명한 독자, 당신은 어느만큼 아는가

무너진 돌담장 몇무더기
드문드문 세월의 잡풀에 묻혀
고층같이 널려있는곳-
높은 더기 초원에서
내 그 값을 팔수에 절감하며
풀송구리밑에 어슴푸레 잤아든
어제날의 희미한 발이랑을 밟는다

동굴을 떠나온 나의 발걸음
찾아든 발이랑같이 여기서 사라진
한 인간의 인생길을 밟나니
내 노래 다시금 어두울지라도
고명한이여, 부디 탓하지 마시라

키쨌이 장대하고 풍채좋은 수염을 늘인
그는 호남아였고
마음의 포옹은 항상 여름같이 더웠으나
한생 마을의 하치백성한테서
벼슬도 직함도 아닌 《도유사》로 불리운
그는 두더지인생이었다

영악한 잡풀만 간신히 자라는 더기에서
곤두벌레가 바글거리는 썩은 늪물을 먹으며
땅은 흔했으나 곡식 기를 땅이 아닌 땅에
애바른 마음을 심어 허황한 희망을 호미질했고
살자 살자 모지름쓰며
칠십리 팔십리 도회장마당에
어깨가 패이도록 외상독을 나르기도 했다

하나 둘 아들들을 노예살이에 보내고
하나 둘 딸들을 팔면서
또한 자신도 제 골육을 팔아
금전판에서 철도부설장에서 손톱으로 긁으며
그는 때가 오른 지폐를
아니 아들의 피, 발의 피, 자신의 피값인
설음절은 종이장을 이악의 씹지에 꿰졌다

그의 대에도 국부요 국모요 자칭하는
황제며 왕족들이 바퀴궂듯했지만
등심에서 힘줄을 뽑아가는 그들보다
굶을 때 쌀바가지를 들고오는
이웃의 아낙네가 나왔으니
없는놈 죽으라는 세상에서
그의 슬프고 불쌍한 한오리 목적은
기를 써 죽지 말고 사는것이었던가

남들처럼 살아보자-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고
사람사는 버덕에 내려앉자-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홍도화 붉게 어린 봄물결우에
행복의 물새 우는 포구로 가자-는
할 일 없는 영춘아가씨들의 애상가락이 흐를 때
그는 아들과 딸과 자기의 피를
발이라면 발인 돌각담투성이 산전 몇평과 바꾸고
기어이야 인가 총총한 버덕에 내려앉았다

드디어 이뤄졌던가, 그의 기막힌 희망은
그에겐 각담투성이라도 호박넝쿨 울릴 제
땅이었고
심으면 낱알이 나오는 소작지가 있었으며
여전히 아들들은 머슴의 멍에를 끌며

소처럼 목에 썩살이 더덕으로 앉았건만
만족한 《도유사》는 겨울의 긴 밤
마실근들앞에서 전책을 류창히 읽었고
《삼국지》를 춘추전국시대의 증견자인양 엮었다

누구도 몰랐다, 그가 어떻게 읽을줄 아는지
그는 서당이라는 말도 모르는곳에서 자랐고
시체풍류객들의 냄새를 맡은적도 없었다
어에서 어깨너머글을 배웠겠지만
누가 알라, 어에서 어떻게 익혔는지
알아선 무엇하리, 그는 그러했던 사람

로출되던 조상의 피를
가슴바닥에 무직이 저수하고 산 그 사람
갓쓴 가문이었다면 대감도 되었을 그
《도유사》의 한생을 엮고말았다

그래도 여한은 없었나니
말년의 몇해는 좋은 세월이 흘러
민주조선 새 나라의 공민증을 지녔고
투표하리 선거장에 가는 정치도 해보았으며
흰밥에 배부르는 만족한 저녁들이 있었다

불의지변의 전란속에서도
아들 셋을 전장에 내보낸 장함을 안고
미제의 폭격밑에서 수수모가지를 자르며
한생의 마지막가을을 하였던 로인
강점된 땅에서 강점되지 않은 가슴이
다섯해가 준 생의 보석을 선인처럼 품고
《치안대》떨거지들과 도끼치듯 맞대결도 하였다

힘쓰던 시절은 조선봉건왕조말기에 다 파묻고
일제통치에서 구세먹은 육신을 끌고와
해방된 조국에서 말년의 다섯해를 보낸
세 제도, 세 정치, 세 사회를 편력한 인생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던
무산자
말년에 새 정치의 수레가 실어다준
굴대가 휘는 재부를
미처 때울리지 못하고 넘겨준
유산자

세상살이가 다했음을 예감하며
돌아본 한생의 장장 75년은
판다른 70대 5의 인생 두쪽이었다
회억의 그 두쪽을 달아보면
가치의 천평은 명백히도
5년이 70을 눌렀다

원썩들과 사생관결하던 전란의 날
일흔여섯번째의 눈을 밝던 그 어느 아침

한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고
문을 열다 토방에 거꾸러져 숨을 거둔
필경 그 소리 강도를 치라고
전장나간 아들들에게 웨친것이였을
그는 누구였던가
그가 바로 조국이 무엇인지를 어슴푸레 알고간
우리 가문의 2대조상이었다

3

노래여 격류하라
생활의 달라진 들에 사품치라
정의는 백성을 버리지 않았거니
역스런 력사의 굽이를 돌아
가난한자의 삿잡문을 제끼고
위대한 날이 들어섰노라

내 이제 그 위대한 날의 손을 잡고 걸은
한 인간의 환희에 찬 생을 노래하련다
싱싱한 태양의 해토진 들에서
그는 갈아엎었다, 시퍼런 보습날로
자기의 분여된 땅만이 아니라
못발길에 지리밧힌
자신의 전반생도 엮어놓았다

혈기방장하던 시절에
달구지채를 겨드랑이에 끼고
바퀴채 공중들어 꼬나올리던
힘꼴 드센 그 근력으로
밤마다 농촌위원회의 어유등밑에서
그는 지주와 반동의 목을 비틀었다

봄내가에 버들개지가 그리 복스러운줄
발가는 설참에 처음으로 알았고
목젓히고 종다리를 찾아보는 푸른 하늘에
제 땅을 가진 기쁨을 실어보았다

아리랑 고개고개를 오르내려 서른몇해
소처럼 말처럼 고용살이 달구지를 끌며
박달재 령령에 구비자은 아리랑 띠길은
긴긴 밤 가위눌린 악몽의 환영이었던가

새 나라 민주의 푸른 강물에
머슴의 신분증갈던 잠뱅이를 벗어
실밥이 풀리도록 행군들
그 세월의 피땀이 말짱 씻길건가

한별 행구고 비틀어짜면
떨어지는 구정물의 역한 그 냄새...
군소리 없이 해야 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돼지새끼를 상자에 지고걸은 장마당길
짐승의 배설물에 흠뻑이 다 젖으면
인간도 짐승냄새나는 막바지

도회지인간들의 쟁그리는 낮짜앞에서
체열로 그 옷을 말리던 치욕

또 행구면 우리나라는 피눈물...
눈보라 눈보라, 갑무세령의 칼바람속
껍질입은 나무가 쨍쨍 튀는 처서판에서
껍질없는 벌건 살의 등어리를 굽히고
그는 도끼를 휘두르기도 했다
세상에 혼한 천은 어데서 썩으며
한자 무명조차 허리에 감아주지 못했는가
탈가진 짐승도 웅크린 때
탈벗고 진화된 인간을 저주했던 울분

행굴수록 우리나라는 쓴물이어
머슴의 멍에에 더덕살이 앉으며
고삐를 채는대로 끌었던 돌두령길은
어느 악마의 계곡까지 뻗었더냐
아편장사치들의 뉘시를 물고
일경의 서느러운 칼날이 번뜩이는
국경의 으스스한 갈밭을 기기도 했으며
이방 감옥소에 갇혀 객귀가 될번도 했던 운명

사라지라, 더러운것은 추억해도 더럽거니
그에게는 생명처럼 안고산것이 있었어라
그 처서판에서 그 국경의 갈밭에서
그는 들었다, 백두의 바람소리를
전설인양 그렸다, 백두산의 장군별을
희망으로 안았다, 열려오는 푸른 하늘을

오, 장군별의 하늘
자기를 위해 언젠가는 열릴
그 미쁜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었고
꽃같은 흰구름이 있었다

하기에 힘이 뻗었다
육체는 사슬에 묶여도
남몰래 그 푸른 조각 품으면
그 하늘에 그는 자유의 새

기어이야 우뢰를 끌고온 그 하늘
혁명의 포화는
그의 《팔자》를 폭파시켰다
민주의 법은
그의 《숙명》을 추방시켰다

낮이면 장군님 주신 해가 뜨고
밤이면 장군님 주신 별이 돋고
들에는 장군님 주신 곡식이 자라고
집에는 장군님 주신 덕이 쌓이는 세상

흠뻑을 정성껏 도배한 방안에
김일성장군님 초상화를 은인으로 모신 그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바친 땅을
나라에 애국미로 바친 날에는
세상 처음 끝없이 잠든 긴 밤이 있었다

장군님 바라시는것이려면
알아볼것도 없이 몸을 내던 사람
땅밭은 그 감사에 겨워
몰어볼것도 없이 당원이 된 사람

계급의 주장을 선포하는
세포의 결정서를 읽고 회의록을 썼으며
행진하는 전위서렬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근위병이 되었다

사람값에 든 그것을 지키려
전장 2천리를 밟은 농민병사
간고한 전후의 바람 찬 길에서
민주의 수레를 사회주의언덕에까지 끌어난
농촌의 걸차고 든든했던 주력군

자신의 한생은 행복했노라고
팔십을 바라보며 그 말 남기고 눈을 감은
정말 그 행복 뉘도 다 모를
그는 누구였던가
그가 바로 조국이 무엇인지를 뼈에 새기고간
우리 가문의 3대조상이었다

4

길거나 짧거나
깊거나 얕거나
아무튼 두 제도를 산
마지막세대들의 머리우에도
이제는 흰서리 내렸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소리를
뜬소리로 외우는자 있거든
내 그들을 위해서도 위으려나
마지막세대들의 그 운명까지
날날이, 세세히 그리고 가식없이...

아들을 쓰다듬는 머슴군의 손은
그 어떤 행운도 약속해주지 못했더라
소년은 거부했나니 그 손이 주는 운명을
한세상 살기는 누구나 갈을진대
뿔때문에 놀리며 살라는
전대와 다른 항거
소년의 가슴에 울분을 키웠다

아직은 그것이 의식으로 되지 못했던 때에도
티없는 동자에 2대3대의 비극을 인찍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삭이는 창자의 분노에
잘사는자들을 천성적으로 증오하게 된 그

그 증오는 벌써 굴종의 기질이 아니었다

학대하던 세상에 유년시절을 팽개치고
민주조선 새 나라의 날개를 겨드랑이에 낀
열혈소년의 생애같은 두눈엔
날아갈 구만리창공이 파들거렸다

나라의 어렵던 첫 년대들에
무인지경 수십리 밤길을
뿌다구들을 움켜쥐고 걸으며
때로는 자취생활의 탄압을 씹으며
강심으로 현대문명을 토했은 계단들에서
대대로 솟지 못한 두뇌의 인자는
태양을 돌음하며 잎살에 즙을 올렸다

그에게는 없었다, 그 어떤
치세술도 흠심도 간계도
농사를 지으라면 농사를 지었고
소떼를 방목하라면 소떼를 방목하였고
작잠을 치라면 작잠을 쳤다
성실하게 이악하게 꾸준하게

하지만 타협하지는 않았다
《농부일생이 무한이로다》-타령에 몸실고
녹거리 술로 흠창자를 씻는
깨지 못한 두메의 태평과는 결별한 그
애오라지 하늘의 별을 그리며
인정더운 가슴에 향토를 안고 일어섰다

노래부르고싶었다, 그의 가슴은
조상들의 념원은 무엇이였으며
그 념원우에 어떻게 꽃잎이 내렸는가를
또 어떻게 노예로부터 주인으로 되였는가를
제 목소리로 세상에 부르짖고싶었다

사회주의혁명의 시련많은 첫 굽이에서
나부래기세력가, 엉터리지성충, 잡동사니
협잡배들
힘있는 새싹은 누르고 멸시했으나
부르는 조국의 차별없는 손길을 더위잡고
그 겹겹한 층막을 뚫어뚫으며
지각의 룡기같은 목적의 분출은
드디어 닿았어라, 성스러운 문명의
최고전당에까지

오, 그러했다 그는
대대로 내린 생활의 뿌리를
두메에서 뽑은 가문의 첫 사람
농사군의 세계를
지성인의 세계로 돌연 변이시킨
궤도수정의 첫 전철수

수령은 그에게 태양이었고

당은 그에게 하늘이었으며
조국은 그에게 어머니였으니
4대의 슬픈 력사우에
빛나빛나는 은공
그 태양, 그 하늘, 그 어머니에
드릴 감사는
태양에 달아야 했고
하늘에 가득차야 했으며
어머니의 정에 미쳐야 했다

대대로 수모받던 음달인생우에
봄별같이 내린 주체의 정치해살
그에게 주체란 말은
인간이란 말
나도 너같은 인간이라는 말

가슴젖는 주체의 그 뜻으로
그는 제 생각을 사랑했고
조상들의 짓밟힌 력사에 분노했으며
공화국의 공민된 양보없는 권리로
사랑과 증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명리와 공명을 조소한 심장이어
리기적인 악투를 충성의 열의처럼 치장하는
더러운 잡초가 어느 구석에라도 움틀세라
량심의 바닥을 툇없이 김매며
오로지 조국에 빛을 더하고자
초불같이 자신을 태운 그 열정

숨김없는 마음으로
고마운 제도에 목이 메고
나라의 분렬이 아파서 화를 내며
민족비극에 통절히 가슴을 찢
그는 누구였더냐
그가 바로 우리 가문의 4대손
고동치는 심장은 웨치고있어라

-조국아, 조국아
너는 나
나눈 너

마감에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누가 나처럼 너를 사랑했더냐
만일 내가 없는 세월이
나의 운명에까지 휘감겼더라면
나는 반항아로 철쇄에 묶였으리
인간은 갈다!
인간은 갈았는가?

너나의 한자격으로
그 누구와도 마주했을 때면

네가 없애준 금이 생각나시
네가 뽑아버린 울타리가 생각나서
조국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나는 빈입으로 쉽게 외우지 못한다

좋다, 너의 세월 나의 세월
아, 떨어지고 부딪치고
뛰어넘고 굽이돌며
찢기고 울부짖던 먼 길은 뒤에 있고
세월의 대하는 강물인양
너의 느슨한 들의 푸른 굽을 탔다

회고의 물결에 쓴 눈물 뿌려던지고
흘러갈 생활의 머언 지평을
두눈 가느스름 내다보는 기쁨
아침언덕의 트럼베트음향인양
내 삶의 소리는 랑랑하다

조국이어, 너를 다시 불러보면
생일날 아침같은 기쁜 설레임
생활의 트렁크를 힘있게 들고
너의 걸음을 따르는 즐거움에
내 심장의 박동은 소리도 높다

자랑찬 조국이어
너의 힘찬 어깨에 나뉘는 옷자락은
창파우의 돛인양 부풀고
너의 튼튼한 몸매는
건강한 너인같이 아름답다

밤없이
쉽없이
먼 세기를 휘여잡아
주체의 대들보에 얹어놓고
인민의 념원을 포도처럼 드리우는
내 사는 내 나라

조국이 없어 곤욕치른
조상들의 수난을 생각할수록
가슴에 사무치는것이어
오, 나에게 조국은
그 조국은 존엄
그 조국은 집
그 조국은 생명

조국이어, 내 경건히
너의 엄숙한 목소리 듣노라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폐허들에서
득실거리는 돈벌레처럼
제 어머니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도적놈이 되지 말라고
제 동지에서 나무가지를 뽑아내는
장사군이 되지 말라고

걸음걸음 다잡아세우는 너의 그 음성을

지금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제국주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
생활은 어려워도
하지만 조국이며 그대의 기강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 정신의 발을 맞추는
나의 의지는 오히려 랑만에 웃나니
조국의 배신자들과 탈선 위선자들
넘어져도 재산을 안고넘어질 험잡배들에겐
조국은 한갓 치부의 장마당일지 몰라도
나에게 사회주의는 죽어도 안고죽을
생활이며 운명이며 유산의 전부

혁명의 길 갈수록 준엄차절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고난의 행군》이 피어릴수록
법처럼 명령처럼 새기노라

선서처럼 서약처럼 외우노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그대의 성스러운 부름소리를

누구나 이 부름앞에
제 할말이 있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부름앞에
제 할말이 있도록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동지
해와 별을 엮어주신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해와 별을 빛내시는 나라
이 조국이 없이는
나도 없다
너도 없다

봄날의 저녁

김충기

또 하루

구슬땀 휘뿌리며 모낸 들에
등근달 솟는 봄날의 저녁
달아오른 모기계 논머리에 세우고
누벼온 논배미 돌아다보면

이 하루에만도

그 얼마나 푸르려졌느냐
눈길 모자라게 펼쳐진 나의 논벌
내 마음조차 환희로이
저 하늘엔 휘영청 달이 밝네

어디 보자

네 흘린 땀 금구슬로 받쳐들고
파란잎 흔드는 예쁜 모들아
너희들은 알지
온종일 정을 주고도 떠나못가는 이내 마음

아니 좀 보자

쌀로 강성대국건설의 돌과구 열고
구보의 진군길에 더 높은 박차를 가할
내 마음도 함께 묻은 모들아
너희들은 알지
결심품고 나선 농민의 이 마음

어서 뿌리내리렴

열일곱치녀의 꿈많은 가슴처럼
봄맞아 푸근푸근 부푼 이 땅에
어서 단물먹고 새아지처럼
복합미생물비료 듬뿍친 배미마다
출렁출렁 물도 알맞춤하니

내 너희들과 함께

봄내 여름내 들에 살며
내리는 비 부는 바람 함께 맞을래
만풍년의 고운 꿈도 함께 키울래

이 벌에 뿌리내린 너희들처럼

나도 내 고향에 뿌리깊이 내릴래
여기서 청춘은 불태우고 삶을 가꾸며
강성대국 새 아침도 먼저 맞을래
장군님께 풍년꽃다발 선참 드릴래

아, 저 하늘엔 달도 밝고

가슴엔 행복의 꿈도 많은 이 저녁
래일의 기쁨을 들가득 싣고
마음속에 먼저 자래워가는
봄날의 이 저녁은 얼마나 좋아

향기

현성하

1

겨울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도표 《조선회관》에서 단기강습을 받고있던 각지 조선학교 교원들과 함께 니이가다로 향한 순이는 자기가 복이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밖에!

단발머리 처녀교원으로서, 그것도 먼먼 북해도의 자그마한 민족학교 교원으로서 당당히 중앙강습에 뽑혀와 큰 선생님들의 강의와 경험토론들을 통하여 단꺼번에 시야가 확 트인것만도 그는 분에 겨운 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강습 마감행사로 니이가다항에 정박하고있는 귀국선 《만경봉》호참관이 조직되어 온 일본땅 모든 동포들이 꿈에도 보고싶어하는 조국의 배를 직접 가보게 된 것이었다.

열차와 배, 배스를 번갈아 타며 니이가다로 가까이 갈수록 순이는 그리운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가까이 가는듯한 심정이였다. 아직 조국에 가본적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신문, 잡지의 사진들에서만 본 그 배는 곧 어머니조국이였다. 순이는 그리운 조국의 모습을 보러 달려가는것이였다.

넓은 눈발속에 묻힌 니이가다항은 온통 기발천지였다. 발디딜 자리 없이 부두를 짝 메운 동포들의 머리우에도, 의젓하게 떠있는 배의 열려진 창문들과 마스트우에도 그리고 배란간에서 부두로 길게 늘어뜨린 수십갈래의 벌줄에도 붉은 기발들과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숲을 이루고있었다.

재빛 눈발을 머금고 불어오는 바다바람에 조용히 펄럭이는 기발의 《쑤》에 묻힌 《만경봉》호는 항에 정박하고있는 다른 배들에 비해볼 때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작은편이였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만경봉》호가 온 부두를 짝 메운 거대한 산악처럼 느껴졌다.

부두에서 순이네를 반갑게 맞이한 서른대여섯 살쯤 돼보이는 사람(총련에서 배참관사업때문에 파견한 일군이였다.)이 그들을 배우의 나이 지숙한 조국일군에게 안내하였다.

《우리 <만경봉>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봉의 이름을 지닌 배로서 온 세상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귀국실현과 더불어 세상천하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습니다.》

정중하게 첫발을 땀 그 일군은 설득력있는 어조로 배의 일반적인 해설을 하고나서 그들을 선체안으로 안내했다. 밝고 아늑하게 꾸러진 선원

실이며 침실이며 문화오락실... 그 모든것이 순이에게는 더없이 친근한 그 무엇, 자기의 눈속에 아니, 심장속 한복판에 영원히 간직하고싶은 소중한것으로 생각되였다. 더우기 저 발당은 촉감이 류달리 부드러운 융단이며 티 한점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 한장, 침실의 정갈한 모포 한장에 이르기까지 다 조국동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만져보는 순이의 마음은 정다운 그들의 손을 잡는듯한 마음이었다.

참관이 끝나자 조국일군들은 그들을 식당으로 이끌었다. 그리 크지 않은 선원식당에서는 네개의 크고 둥그런 식탁에다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부두에서 그들을 맞이하던 사람이 풍채좋은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머금고 식탁앞으로 안내해주며 말했다.

《다른 참관성원들한테 이렇게 식사까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두에서 보셨겠지만 참관을 요망하는 동포들은 많은데 배의 정박날자는 제한되어있다나니. 하지만 머나먼 산간의 민족학교들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국의 넋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의 사업이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조국일군들이 특별히 마련한 식사입니다. 그러니 많이들 드십시오.》

그다지 성찬은 아니였다. 하지만 고사리볶음이며 룡두지짐이며 도라지무침, 농마국수, 김치... 차려놓은 음식마디에서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겼다. 특히 그들의 눈길을 끈것은 매 사람들앞에 세알씩 작은 접시에 담아놓은 빨간 사과였다.

《야, 사과!》

순이는 금시금시 터지려는 탄성을 가까스로 누르며 자리에 앉았다.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들을 하였다.

조국동포들의 음식만드는 솜씨에 못내 감탄하며 모두들 음식그릇을 거의다 비우다싶이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째선지 자기앞에 놓여있는 사과만은 누구도 들려고 하지 않았다. 순이도 사과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학생들의 얼굴에 떠올라서였다. 아직 조국의 사과를 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가져다 보여주고싶었고 다문 한조각씩이라도 꿀고루 맛보게 하고싶었던것이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 생각때문에 사과를 선뜻 집어들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순이는 생각하였다.

《사과도 드십시오.》

자리를 같이하고 앉았던 총련일군이 순이와 다른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알아맞힌듯 웃는 얼굴로 《조국동지들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릴 조

국의 사과를 다 준비해놓았습니다.》

《야!》 하는 탄성이 일시에 터져올랐다. 얼굴들이 한결 더 환해져서 접시위의 사과들을 집어들었다. 벌써 사과를 한입 떼문쭉들도 보였다. 그윽한 사과향이 짙게 풍겨왔다. 순이도 사과를 손에다 집어들었으나 먹음됨을 앓고 신기한 보물이라도 되는듯이 들여다보기만 했다. 다문 한알이라도 더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주고싶어서였다.

조금 안있어 스물일여덟 되는 교원들에게 사과를 넣은 구럭들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헤쳐보니 한결같이 크고 빨간 사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순이는 자기한테 차례졌던 세알의 사과도 구럭에 담아두고 일어서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한 애한테 한알씩 차례졌으면... 그러면... 이걸 한알씩 나눠주고 글짓기를 시켜야지.)

조국의 사과맛자랑을 해대는 스물세명 아이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모습들이 일시에 눈앞을 꽉 가리고 귀속을 쟁쟁 울렸다. 순이는 그 모든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배를 내렸다.

2

새 학기의 첫날 첫 수업을 앞둔 10분전.

출석부와 교수안을 들고 교원실을 나선 순이는 바로 옆에 있는 교실문을 그냥 지나 복도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루밤 자고 새날의 첫 수업에 들어갈 때면 늘 야릇한 흥분을 느끼곤하는 순이었다. 일요일. 혹은 명절 다음날이거나 이렇듯 긴긴 방학을 마친 다음의 첫날 첫 수업때면 그 흥분이 한결 더해지곤했다. 하지만 오늘은 여느때의 그 흥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제오후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개교를 앞둔 첫 등교날이어서 학교에 나와 강습간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팔고루 나눠준 순이는 계획했던대로 새 학기 첫 수업인 《우리 글》 시간에 《조국의 사과맛》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발표모임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던 것이다. (우연하게도 구럭에 든 사과는 순이가 먹지 않고 넣은것까지 합하여 스물세알이어서 한 학생한테 꼭 한알씩 차례졌었다.)

아이들과 헤어진뒤 오늘아침까지의 하루밤을 순이는 얼마나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보냈는지 몰랐다. 숙소에 돌아와 구럭을 펼쳐놓고 사과를 세여보다가 속으로 탄성을 올리던 일, 아무리해도 감출길 없는 사과향기때문에 러객들의 부러워하는 눈길을 받으며 렬차와 배, 배스를 번갈아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일 그리고 제나름의 글을 지어 가지고 올 학생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밝혀와 수업을 앞둔 이 순간까지도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교원은 교수에 앞서 절대

로 흥분해서는 안되었다. 령정한 리성으로 착실하게!

그래서 순이는 밖으로 나온것이였다.

소대한이 지나고 림춘절기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북방산골의 아침대기는 차거웠다. 얼음같이 쌀쌀한 기운이 샅시에 온몸을 휩싸고 뼉뼉이 늘어선 멀고 가까운 산발들에 두텁게 쌓인 흰눈이 차갑게 눈을 찔렀다.

그 싸늘한 공기, 차디찬 흰빛에 얼마간 속이 서늘해지는것을 느낀 순이는 무심결에 학교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의 키높이로 빙 둘러친 붉은색벽돌담장위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한 학생을 보았다. 새까만 학생복에 어찌선지 모자는 없이, 역시 새까만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흰 입김을 훨훨 날리며 이쪽으로 달음질쳐오는 그애는 키가 작은탓에 맨 앞줄에 앉지만 어금이라는 처녀애와 함께 집은 제일 멀리 있는 홍일림이였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대체로 여무지고 빨랑빨랑한데 저애는 좀 달랐다. 푹푹하고 마음씨 착한것은 분명한데 동작이 굼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늘어금이와 같이 가지만 아침에는 저렇듯 수업종이 울릴무렵에야 혼자서 정신없이 뛰여오곤했다. 교사앞에 거의다 이르러서 선생님을 알아본 일림은 그 바쁜 짬에도 접이칼 꺾이듯 꾸벅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나서 불에 덴 송아지처럼 후닥닥 복도로 뛰여들어갔다.

《그러나 넘어지겠어요. 천천히 들어가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순이는 벌써 복도안으로 사라져버린 그애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무 대답도 없고 텅- 교실문이 닫기는 소리가 열어놓은 복도문으로 또렷이 들려왔다.

금시 갈았는듯하던 마음이 흥떡흥떡 멀기를 일으키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팔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분전...

복도문을 넘어 교실로 향했다. 벽작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쟁쟁한 목소리가 웅웅 울려나오는 복도를 지나 교실문앞에 다가섰다. 도무지 가려들올수 없는 아이들의 말씨름이 끝나기를 잠시 기다리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췌! 선생님이다.》

누군가의 외마디소리에 교실앞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교실 한복판에 우르르 몰려서서 그 무슨 론쟁에 열중하던 아이들이 나는듯이 제자리로 달려가 곳곳이 섰다.

천천히 교탁앞으로 다가간 순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아이들을 한눈에 일별해보고나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먼저 인사했다. 학생들이 깊이 머리를 숙여 답례했다.

순이가 들고섰던 교수안과 출석부를 교탁우에 올려놓자 아이들은 곁상을 당기는 빼거덕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다.

순이는 습관적인 동작으로 출석부를 펼치며 그 런듯이 앉아있는 학생들을 굽어보다가 소리없이 덮었다.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교수안을 펴놓고 잠시 들여다보다가 물로 깨끗이 닦아놓은 새까만 칠판우에 백묵으로 천천히 써나 갔다.

《조국의 사과맛!》

별로 마음이 후터워지는것은 느끼며 애들한테 돌아서 물었다.

《다 지어왔어요?》

《예!》

힘찬 외마디대답이 기분 좋게 교실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순이는 자기를 또렷또렷 쳐다보는 학생들을 한명 한명 굽어보며 잠시 망설이듯 서있었다.

순이와 시선이 마주친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길이 그냥 미끄러져 지나갈까봐 겁내는듯 엉거주춤을 일으켜세우기까지 했다.

순이는 맨 뒤줄에 앉은 키가 남보다 머리 하나 만큼 더 큰 남학생과 그옆에 나란히 앉은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가 류달리 새까만 너학생을 눈여겨보았다.

《예.》

《예.》

두 학생이 동시에 일어섰다. 학생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들한테로 쏠렸다. 두 학생은 둘이 서로 마주보다 말고 판결을 내려달라는듯 순이를 쳐다 보았다.

순이는 당황해졌다. 《통수학생.》하고 남학생을 지명하면 너학생은 금시 얼굴이 빨개지며 몸둘 바를 몰라할 것이었다. 벌써 그것을 느낀듯 너학생의 귀바퀴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반대로 《봉미 학생.》하고 너학생을 지명하면 통수가 메사해할 것이었다.

순이는 누구에게도 무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두 학생 다 서세요. 먼저 봉미학생, 다음 통수 학생.》

교실안은 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잠시 기든 그 야릇한 정적을 조용히 흔들며 학습장을 펼쳐든 봉미학생이 학습장을 보지 않고 줄곧 순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조국의 사과맛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고 제일 담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수학생이 책을 펴들지도 않은채 뜬금으로 외었다.

《선생님이 가져다주신 조국의 사과는 꿀맛보다 더 달고 초콜레트보다 더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실입니다.》

《맞아, 꿀보다도 더 맛있었어.》

누군가 앞에서 큰소리로 맛장구를 쳤다.

《바나나보다도 더 맛있어!》

그옆의 애가 더 큰소리로 받았다.

순이는 못들은척하고 그냥 서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제각끔 자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각종 열매나 당과류 이름들을 련속 끌어대며 그보다 더 맛있다고 웨쳐대기 시작했다.

순이는 그들에게 조국의 사과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것을 직감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순이 역시 조국땅을 아직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난생처음 차례진 조국의 사과도 손으로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봤을 뿐... 입에 대보지 못했던 것이다.

순이는 이제껏 자기가 먹어본 사과맛들을 상기 해보았다. 아이적엔 엉마주리로 근근히 집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한테 사과를 사달라고 떼를 쓸 형편이 못되어 손에 쥐여보지도 못했다. 조선대 학교시절에 더러 먹어보긴 했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나는 링고(사과)였지 조국의 사과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땠던지 기억에 없다. 시름했던지, 텅텅했던지...

순이는 창너머로 시선을 주었다. 찌뿌둥하게 흐려든 하늘이 내다보였다. 구름너머 아득한 저 하늘밑에 있을 조국의 모습이 그려졌다. 찬란한 해빛아래 꽃이 만발하고 온갖 열매 주렁진...

위도상으로 볼 때 지금 순이네가 사는 북해도 못지 않게 춥고 눈이 강산같이 쌓였을 것이지만 순이에게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의 모습이 이 순간엔 바로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었다!

뭐라고 할가? 멀리 있는... 아직 보지 못한 조국의... 무엇인가 잡힐듯말듯하면서도 딱히 규정할수 있는, 심장만이 할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순이는 꼭 이야기해주어야 했다. 왜냐면 순이는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하나?

선생님의 존재를 잊은듯 저들끼리 벅작 떠들어 올리는 학생들을 망연자실한 눈으로 굽어보며 생각을 굴리던 순이는 맨 앞줄에 앉은 일림에게 시선이 멎었다. 다른 동무들의 말씨름을 앉아서 구경만 할뿐 그에 끼여들음을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순이는 그를 불렀다.

《일림학생.》

싱갱이질에 열이 오른 동무들을 돌아보던 일림이가 선생님한테로 얼굴을 돌리더니 주춤주춤 일어 섰다.

《조용하세요.》

학생들을 제지시키고난 순이는 일림에게 물었다.

《일림학생은 글을 지어왔어요?》

《예.》

《그럼 읽어보세요.》

일림은 어째선지 동무들을 둘러보고나서 책에다 눈길을 내려깔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읽었다.

《조국의 사과맛은… 조국의 사과맛입니다.》
 《예? 뭐라고요?!》
 순이는 그애한테로 상반신을 기울이며 다시 물었다.
 《조국의 사과맛은…》
 여기까지 읽고난 일림은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더욱 신심을 잃은듯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갈데없는 조국의 사과맛입니다.》
 학생들속에서 키드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사과맛을 말하라는데 사과맛이래.》
 《그러게 말이다. 조국의 사과맛이 조국의 사과맛인걸 누가 모른대?》
 《히히, 늦잠 자다가 숙제 못해온 모양이지.》
 뒤줄에 앉은 학생들이 저들끼리 찡고 까불고 하는 말이었다. 그들의 말대로 얼핏 들으면 마치 못해 하는 대답같았으나 두번세번 씹어보니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있는 말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다. 그 애의 대답으로서는 너무나 의미가 큰 아니, 순이로서도 체험세계가 부족한것 같이 느껴지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뿐이었다.
 (저 애가 혹시 사과를!?)
 불현듯 떠오른 의문이었다.
 (수업이 끝난다음 따로 만나봐야겠어.)

3

《솔직히 대답해요. 사과를 일림학생이 먹었어요?》
 《예.》
 《정말?》
 《예.》
 《선생님을 속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던가요?》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똑바로 대답해봐요.》
 《저 사실은…》
 …

저녁무렵이 되어서야 학교에서 돌아온 일림이와 어금이는 늘 그렇듯이 마을어구에서 갈라졌다. 한마을이지만 일림이네는 넓다란 행길옆에 바투 나앉은 길가집이고 어금이네 집은 행길에서 가지를 친 동구길을 따라 산기슭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었다.

어금이와 헤어지자 일림이는 책보속에 넣었던 사과를 꺼내들었다. 선생님한테서 받아들 때부터 한입 톱 떼먹고싶은것을 여직껏 겨우 참아오는데 그였다. 그러나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그 욕망을 눌러왔다. 그래 이번에도 꺼내들기만 했을뿐 차마 먹을넘은 못하고 걸으면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일림의 주먹같은걸 두개쥼 합친것만큼 큰데다 불라는것처럼 새빨갳다. 그것도 그저 빨간색이

아니라 노오란 줄이 알릴듯말듯 세로 그어졌는데 그줄사이로 하얀 속살이 들여다보일것만 같다. 거기에도 또 그 향기는… 새콤하면서도 톡크트레한, 사람의 마음을 막 취하게 하는 그 향기.

일림이는 저도 모르게 닭알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도중에서 한입이라도 먼저 떼먹을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누나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과를 보지 못할것이다.

하면서도 일림이는 아쉬운 생각을 금할수 없어 사과를 코에다 바싹 가져다내고 그 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향긋한 사과향기가 폐부로 흘러들어 일림의 정신을 어리벙벙하게 했다. 일림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후-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나서야 일림이는 사과를 다시 책보에 싸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니 시오리가랑 떨어져있는 직업학교를 다니는 누나 설미가 저녁밥을 짓고있었다.

《어머니 안오셨?》

《응. 그런데 넌 왜 이리 늦었니?》

누나는 열어제낀 미닫이문사이로 정지칸(정지칸이자 옷방이었다.)벽에 걸려있는 구식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꾸지람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일림이는 책보안에서 사과부러 꺼내들었다.

《지, 이거 봐!》

《야, 사과!》

누나가 손에 들었던 그릇을 떨구며 환성을 올렸다.

《어디서 난?》

《조국의 사과야. 우리 선생님이 <만경봉>호 견학을 갔다가 가져오셨어.》

《그래?!》

《누나하구 어머니한테 주자구 가져왔어.》

일림이는 누나앞에 사과를 내밀며 으시댔다.

《넌 먹언?》

누나가 사과를 받아들면서 물었다.

예견치 않았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불쑥 대답했다.

《응, 먹었어. 선생님이 두개씩 주셨거든. 하난 우리 먹구 하난 집에 가져가랴구.》

이것은 일림이로서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짓말이었다.

《그럼 이건 어머니하구 누나가 먹을거니?》

《응.》

일림이는 조금 김빠진 소리로 대답했다.

누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듯 사과를 하얀 접시에 담더니 당반우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오시면 드리자. 좋지?》

《응. 좋지 않구. 그런데 어머니?》

일림이는 벌써 새까만 어둠이 기웃이 들여다보는 창너머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은 오후교대래.》

《그럼 11시가 넘어야 오시겠구나.》

일림이네 어머니는 아버지없이 자라는 두 남매를 위해 어느 조선음식점에서 일하고계셨다.(일림이 아버지는 얼마전에 병으로 돌아 가셨다.)

《어머닌 우리끼리 먼저 밥먹고 자라고 하셔어. 그러니 밥먹자.》

누나가 살뜰하게 말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일림이는 당반우에 얹어 놓은 사과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떻던? 조국의 사과가 맛있던?》

누나도 사과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응, 맛있었어.》

《우리 엄마도 조국의 사과는 참 별맛이라고 하셔어.》

《엄마가?!》

《응, 엄만 조국에 있을 때 조국의 사과를 잡춰 보셨대.》

《그래?!》

《엄마네 집에두 사과나무가 있었대.》

《응-》

일림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럼 나하구 누나 둘이서 먹어두 될걸...)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일림이는 한입으로 두번 거짓말을 할수 없는 사내였다. 그것도 아버지없는 집의 유일한 남자였다. 어머니는 일림이를 아버지처럼 사나이답게 억세고 대바르게 키우려고 애쓰셨다. 일림이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 사과를 먹고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일림이는 그만 식곤을 못이겨 뚫아떨어지고말았다.

다음날(그러니 오늘이었다.)아침 일림이는 펴 늦어 잠을 깨었다. 어제밤 늦어서야 잠에 든때문이었다.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두드려 깨우는 누나의 짜증섞인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앉은 일림은 손잔등으로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누나, 사과를 먹었?》

《응.》

《어머니가 일찍 오셨덴?》

《아니, 기다리다 못해 나두 너무 졸려서 절반을 먹고 절반은 점시에 담은채 저기 올려놔뒀지 뒀.》

누나의 눈길이가리키는 당반우를 쳐다보았다.

점시도 사과도 없었다. 그러니 어머니도 잡수셨구나!

《어머니가 무슨 사과인지 일구 잡수셨을가?》

《응, 너의 선생님이 가져오신 조국의 사과라고 편지 써놓고 왔어.》

바로 그 순간에 물바께즈를 무겁게 든 어머니가 부엌문으로 들어섰다.(일림이네는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어머니, 사과 잡수셨어요?》

일림이는 부엌쪽으로 쪼르르 다가가며 물었다.

《응, 먹었다.》

《조국의 사과맛이 어때요?》

《사과맛말이냐?》

어머니는 배가 볼뚱한 물독에다 불을 쏘아넣고 나서 일림이를 바라보며 혼연스레 대답했다.

《조국의 사과맛이 어디로 가겠니.》

《?!》

일림이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수가 없어 되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나요?》

《글쎄... 조국의 사과맛은 갈데없는 조국의 사과맛이란 말이다.》

《에?!》

일림은 어머니의 알쏭달쏭한 대답에 그만 실망했다. 어머니한테서 조국의 사과맛에 대한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들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일림이었다. 그런데 조국의 사과맛은 조국의 사과맛이라니... 참! 일림은 옆에 서있는 누나에게 물었다.

《누난?》

《응. 나두 같애.》

《뭐 누나두?!》

《글쎄 뭐랄가... 조국의 사과맛은 이 세상에 없는 맛이었어.》

일림은 아주 실망하고말았다. 그리고 큰 격정에 사로잡혀버렸다. 조국의 사과맛에 대한 짧은 글을 지어오라는 숙제를 못하게 된것이였다. 사과를 다문 한입이라도 먹어봤을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다. 그러나 늦었다. 것처럼 먹음직스럽던 빨간 사과는 이미 없어진것이였다.

...순이는 사과를 먹어본 애들의 말씨름에 끼여 들지 못하고 구경만 하던 일림의 얼굴모습이 다시금 어려와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저앞에서 그냥 장난질을 치면서 걸어가는 일림이와 어금이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선생님이 지켜보는것도 모르는듯 저녁해빛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되비치는 얼음우를 주르르 지치기도 하고 공연히 눈덩이를 발로 차기도 하면서 앞서걸고있었다.

순이는 지금 일림이네 집으로 가는 길이였다.

계획에 없던 가정방문이였다. 일림이 되받아 외운 어머니의 짧은 대답에 마음이 끌린것이였다. 무엇인가 깊은 사연이 깔려있는듯한 말이였다.

어릴적에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 재일동포 1세대중의 한사람인 일림의 어머니를 만나면 아침에 학생들에게 해주지 못한 조국의 사과맛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만 같았다.

일림은 선생님의 그 심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이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저렇듯 좋아했다.

순이는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선생님

이 가정방문오는걸 알면 일림이 어머니는 큰 귀인이나 맞는듯이 부산을 피울것이었다. 그걸 막자면 곧장 일림이네 집부터 들러야했는데 그렇게 되면 왔던김에 어금이네 집에서부터 먼저 들러보려던 계획이 틀어지고마는것이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림을 손짓해 불렀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실가요?》

《어제 오후 일나가셨으니까 오늘은 계실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금동무네 집에 들렀다 갈테니 일림인 집에 먼저 가요. 절대 선생님 온다는 소린하지 말라고요. 약속하지요?》

《예.》

《약속을 어겼다면 집엔 안들리고 그냥 돌아서 가겠어요.》 하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고서야 순이는 그를 집으로 떠밀어보냈다.

4

어금이네 집에서 한시간가량 지체하고 어두워져야 마을들에 있는 일림이네 집을 찾아간 순이는 일림이가 자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앞에서 곧 알았다. 문을 두드리자 《예.》 하고 받는 소리가 기다렸다는듯이 반가움에 젖어있었던것이다.

문밖을 나서야 즐거운 일이 그리 없는 여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야 반가운 사람은 별로 없고 세금독촉을 하러 온 국세청의 하급관리들이거나 귀찮은 나그네들뿐인 이 길가집에서 문두드리는 소리에 반가이 대답하는것은례외적인 일이었다. 아닐세라 대문을 대신하는 아래칸문이 활짝 열리더니 뿌옇한 불빛속에 음식냄새를 실은 흰김이 확 쏟아나오고 이어 그 흰김을 헤집듯이 달려나온 일림의 어머니가 반갑게 순이를 맞았다.

《선생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일본땅의 어느 길에서는 말아보기 힘든 어딘가 맵고 쨍하면서도 구수한 냄새를 한가득 풍기며 다가와 무작정 안으로 잡아끄는 일림의 어머니를 따라 집에 들어서자 문옆에 서있던 일림이와 그보다 일여덟살쯤 더 되어보이는 그의 누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일림이, 약속을 어겼군요.》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밥상이며 부엌과 방을 경계지은 사이문이며 그리고 이부자리를 엮어놓은 큰 농작 두개와 갈음옷들을 넣어두는듯싶은 색날은 옷장이며를 한눈에 일별해보면서 순이는 일림을 가볍게 꾸짖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일림이가 얼른 발뻘을 했다.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길래 <야, 좋구나. 선생님이 오시는데...> 하고 그

만 실수했습니다.》

일림의 불분명한 대답에 순이는 저도 모르겠음음이 나갔다. 부엌에 내려간 어머니도 들었는지 사내같이 결절한 웃음소리가 사이문을 넘어왔다. 상우에다 부지런히 음식들을 가져다놓던 일림의 누나도 방긋이 웃으면서 일손을 다그쳤다. 그런데... 상우에 날라다놓는것마다 여기 일본땅에서는 자주 먹어보기 힘든 우리 나라 민족음식들이었다.

좁고 긴 접시에다 보기좋게 썰어놓은 시원한 통김치와 아직도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썩장그릇을 가운데 놓고 온통 새빨개보이는 깍두기며 콩나물찬이며 설기떡이며 깨끗이 손질한 마늘쪽들을 박아넣은 고추장그릇이며에서 풍겨오는 향긋하기도 하고 들큰하기도 한 음식냄새가 《만경봉》호에서 마주앉았던 음식상을 편상케 했다.

열어놓은 사이문을 닫으며 일림의 어머니가 올라왔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던 순이는 《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탄성을 올린다. 거의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던 일림이네 남매도 일을 향- 벌리더니 《아! 사과!》 하고 외마디 환성을 올렸다.

순이는 그것이 자기가 가져온 사과인것을 대뜸 알았다. 일림이도 그것을 알아봤던지 어머니와 누나를 번갈아보며 하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과를 들고 식탁앞으로 다가온 일림의 어머니는 그것을 상우에 놓더니 다른 손에 들고온 과일칼을 그옆에 놓고 한동안 말없이 순이를 바라보는것이였다. 순이도 눈길을 떨구지 않고 마주 바라보며 앉았다.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고보니 일림의 어머니는 눈이 참 고왔다. 일림이가 처녀같이보이는것도 기본은 연하게 쌍꺼풀진데다 눈빛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저 눈을 닮은 때문이라고 순이는 생각했다.

《선생님.》

일림의 어머니가 말을 뗐다.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난 이 사과를 꺼내놓고 저 애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니이가다에 갔던 너의 선생님이 조국의 사과를 가져다줘서 우리가 다 맛보았더니 오늘은 우리 분회장 어른이 <만경봉>호 참관을 갔다와서 또 사과를 주더구나. 두알 주는거 내가 한알 먹고 너희들생각때문에 한알 남겨왔다 하고 말입니다.》

《헛,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을줄 알구.》

일림이가 얼굴이 벌개서 코웃음을 쳤다.

《이 에민 뭐 네가 선생님한테서 이 사과 한알 받은걸 모르는줄 알았니?》

일림의 어머니가 곱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예?!》 일림이도 그의 누나도 눈이 멍그래졌다.

《선생님.》 하고 일림의 어머니가 순이를 바라

보며 펍 같았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애들이 얼마 먹으라고 머리말에 놓고 잠든 이 사과를 보느라니 저 일림이만할 때 조국을 떠나던 생각이 나면서 잠이 안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과 이 조국의 사과도 같이 나누고 조선음식도 해먹으면서 조국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생각에 없는 살림이지만 큰 마음 먹구 이렇게 차리는데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우선 식사부터 드십시오.》

《드십시오. 선생님!》

어머니와 아이들의 권고에 수저를 들긴 했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다. 먹기보다는 이렇게 앉아 오래도록 보면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참 이상하지요.》

순이는 수저를 든채 말했다.

《저도 이 애들도 일림이 어머니하곤 달라 다 여기 일본땅에서 나서 자랐는데 이렇게 조선음식을 마주하면 벌써 구미가 확 당기니말이에요.》

일림의 어머니도 수저를 그냥 든채 이야기했다.

《그건 나서 자란곳은 남의 땅이지만 다 같은 조선사람이기때문이지요. 피야 어디 가겠나요?》

우리 음식점에도 가끔 왜놈흥내를 내면서 오는 얼치기 <일본인>들이 있지만 음식만은 숨기지 못한답니다.》

순이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또한 너무나도 신기한 말이기때문이었다. 순이 자신도 옷은 왜놈옷을 걸치고 걸땃을 부려도 음식만은 어쩔수 없이 조선음식을 몰래 사먹곤하는 그런 얼치기인간들을 더러 보았었다.

《선생님앞이지만 내 오늘 이 애들한테 해주자면 얘길 하나 할가요?》

《하세요. 어머니님.》

순이는 들고만있던 수저를 놓고 자세를 고쳐앉았다. 아이들도 앉아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과를 접시우에 올려놓고는 어떻게 쪼갤것인가 궁리하는듯 뱅글뱅글 돌리면서 한동안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얼굴을 쳐드는데... 그 순간 순이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곱게 생긴 그의 눈속에서 번쩍하는것을 본것이였다.

《내가 왜 이렇게 곱고 맛있는 사과랑 팡팡 먹을수 있는 내 고향을 떠나 이 더러운 왜놈들땅에 왔겠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대번에 분노에 젖었다.

어머니는 달아오른 마음을 가라앉히려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담당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내가 살던 고향집 뒤울안에도 사과나무가 한그

루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우리 집을 <사파나무집>, <사파집>이라 불렀지요.

해마다 봄이 오면 가지마다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 짙은 향기를 풍기고 그 향기를 쫓아 벌, 나비가 날아들고... 어렸던 나는 그 사과나무밑에 앉아 오빠와 소꿉놀이를 재미나게 하곤했지요. 그러면서 언제면 가을이 와서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릴까 하고 생각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곤했지요.

가을이 와서 사과가 빨갱게 익으면 오빠는 제일 크고 잘 익은걸로 골라따서 날 주곤했지요.

그때 우리 집 사과는 정말 탐스럽구 별맛이었지요. 꼭 선생님이 가져온 이 사과처럼 하나같이 크구 새빨간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도는게 정말 먹음직스러웠지요. 맛은 또 어떻구요. 한입 깨물면 새하얀즙이 철철 나오구 새콤하면서도 달큰하구 또 향기롭구... 참 그 맛이란.

우리 부모들은 비록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마음씨만은 무척 고운분들이였답니다. 사과를 따면 우리 오누이를 시켜 많지는 못하나마 다문 몇알씩이라도 마을 집집에 골고루 나누어주곤했지요. 나와 오빠는 사과바구니를 의중게 맞들고 온 마을 집집을 돌곤했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에서는 <사파나무집>에서 또 왔다면서 얼마나 반겨맞아 주고 고마와들하던지.

그 사과 몇알이 뭐 많아서였겠나요, 귀해서였겠나요. 아니지요. 다문 한알이라도 마을사람들과 같이 나누려는 그 마음, 그 인정이 고마와서였지요.

사람들이 <사파나무집>, <사파나무집 딸>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걸 큰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그 사과나무, 우리 집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던 그 사과나무가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화근으로 될줄이야...》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금시라도 흘러넘칠듯했다.

순이도 아이들도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옷섶을 들어 눈굽을 찍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듯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순이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것을 푹푹히 보았다.

금시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집 한채를 품에 안고 오בות하니 솟은 나지막한 언덕아래에 한그루의 사과나무가 서있다. 가지마다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열서너살 먹은 더벅머리소년 하나가 나무우에 올라갔다. 나무아래엔 그의 동생쯤 되어보이는 처녀애 하나 오도카니 서서 오빠를 올려다보며 소리친다.

《오빠야, 고걸 따달라. 고걸.》

《어느거?》

나무우에 올라간 오빠가 짜증섞인 어조로 소리친다. 처녀애가 자기도 안타까운듯 가냘픈 팔을 들어 가리킨다.

《고거말이야 고거.》

《이것말이야?》

《응 고거. 고거야!》

사내애가 벌써 옷더니 사과를 따들고 내려와 처녀애의 손에다 쥐여준다.

《어서 먹어.》

《오빠?》

《난 안먹어도 돼. 너나 먹어. 쪽발이들 보기전에...》

순간 언덕 웃쪽에서 짹 하는 고향소리가 들려온다.

《야, 이 사과도적놈새끼들아!》

올려다보니 옆구리에다 검술훈련용 긴칼을 찬 왜놈아들새끼가 내려다보며 고향질이다.

《야, 누가 도적놈이라는거야?》

사내애가 동생더러 쪽발이놈 보기전에 어서 먹으라고 불안해하던것 같지 않게 당당한 어조로 올리쏜다.

《뭐야?》

칼찬놈이 구울듯이 내려온다.

사내애가 두손을 부르친채 바위처럼 떡 버티고 서서 놈을 불같이 쏘아본다. 처녀애가 한입 떼먹다만 사과를 잔채 오돌오돌 떤다.

《이새끼, 이게 너네 사과야?》

굴러난 바위처럼 달려온놈이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친다.

뿌리깊은 바위처럼 우뚝 선 사내애가 주먹을 펴며 맞대담한다.

《우리거다.》

《전엔 너네거였지만 이젠 우리거다. 우리 아버지네 동척회사에서 이걸 다 샀단 말이다.》

《아니다. 강도질해서 뺏았다.》

《아니다 샀다.》

《아니다. 강도질했다.》

《샀다. 이 죠센징!》

《강도질했다. 이 쪽발이야!》

《칙쇼!》

왜놈새끼가 칼을 뽑아든다.

찰나 사내애가 허리를 구뿔하더니 어느새 처든 커다란 돌을 놈의 면상에다 힘껏 뿌려던졌다.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억! 하고 놈이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다음 몇번 버들썩하더니 아주 콧꽃 해졌다가... 땅에 척 너부러졌다.

사내애는 그러는 꼴을 돌아보지도 않은채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떠는 동생의 손을 잡아끈다.

《가자!》

동생을 끌고 집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왜놈순사들이 쫓아든다. 차고

뺏고 때리고... 갖은 폭력끝에 사내아이를 포승에 묶어 끌고간다.

《오빠! 오빠야!》

왜놈들의 총칼에 떠박질리워 동구밖으로 멀어저가는 오빠를 울며불며 따라가는 처녀애의 연하디연한 손엔... 그때까지 먹다만 반쪽짜리 사과가 쥐여져있다.

...

《단 한번의 돌타격에 미시리같은 왜놈아들새끼가 죽어빠드러지고 오빠 감옥에 끌려가고 그놈애비는 우리 아버지까지 강제로 끌려다 여기 이 더러운 쪽발이나라 왜놈탄광에 팔아버렸지요. 이 사과 한알때문에 우린 오빠를 잃고 아버지마저 빼앗기고... 살길 찾아 헤매다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려 날 데리고 또 저주맛을 현해탄을 건넜수다. 이 사과 한알때문에 결국은 우리 온 가족이 집을 잃고 고향도 잃고 남의 땅의 노예로 되었던 말이우다. 이 사과 한알때문에.》

그때부터 난 사과를 먹지 않았수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빼앗아다 비싸게 팔아먹는 조선사과, 고향의 사과가 가게마다 그득그득 쌓여있어도 난 먹지 않았수다. 비싸서가 아니였지요.

사과를 보던 고향생각, 어릴적 생각이 나구 또 그 사과 한알때문에 오빠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잃은 억울한 생각이 치밀어 먹고싶어도 먹을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국에서 보내주신 사과를 가져오셨군요 .

이 사과를 보니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윽한 향기를 풍기던 우리 고향집 사과나무를 눈앞에 보는것만 같군요. 제비쫓지만한 머리태를 달싹거리며 사과를 하나하나 세여보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는듯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 오늘 이 사과만은 선생님이랑 이 애들과 함께 먹으렵니다.》

이야기를 마친 어머니는 과일칼을 집어들더니 접시우의 사과를 이윽도록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네쪽으로 갈라놓았다. 향긋한 사과냄새가 더욱 짙게, 그윽하게 폐장깊숙이 흘러드는듯했다.

어머니는 그중 한쪽을 집어 순이에게 준 다음 량손에 하나씩 집어 두 아이에게 주었다. 모두 사양없이 받았다.

《어머니도 드시지요.》

순이가 조용히 권했다.

《어머님이 잡숫는걸 보고 우리도 먹겠습니다.》

《나부터요? 그러지요.》

선뜻 대답만 어머니는 그다음에도 한동안 손에 든 사과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한입 떼물고 조

용히 씹기 시작했다.

세사람은 사과를 천체 보기만 했다.

몇십년만에야 조국의 사과를 맛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앞에 마음들이 격해진것이였다. 딸애 설미는 눈곱에 눈물까지 글썽하니 고였다. 순이도 눈뿌리가 시큰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 선생님도 이젠 드시우.》

일림의 어머니가 애써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여전하군요. 하긴... 조국의 사과맛이야 어디로 가겠나요. 너희들도 어서 먹어라, 많아야 맛있네. 뭐든 부족해야 귀한줄을 아는 법이다.》

순이도 아이들도 소리없이 사과를 먹기 시작했다.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맛이 아니,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의미가 깊고 뜨거운것이 온몸으로 흘러드는듯했다. 그 향기, 그 의미를 씹어보면서 말없이 앉아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일림의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내가 왜 봄이면 사과꽃이 피고 가을이면 빨간 사과 주렁지는 내 고향땅을 떠나 이런데로 왔겠나요? 도무지 정이 붙지 않는 남의 나라 땅에 저애들을 낳았겠나요? 오고싶어 왔겠어요? 이 땅에 애들을 낳고싶어 낳았겠나요? 아니예요.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고향을 빼앗고 우릴 여기에 끌어다 팽개쳤지요...

내가 운다고 욕해 마시우.

선생님, 서러워서 우는게 아닙니다. 나에게, 저

애들에게 이렇듯 내 고향의 사과도 보내주는 당당한 조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읊니다. 기뻐서...》

...밤늦어 순이는 일림이네 집을 나섰다. 얼어붙은 길은 더욱 미끄럽고 밤공기는 얼음같이 차거웠다. 하지만 순이는 그 모든것을 못느끼고 걸었다. 오히려 속에서 번열 같은것이 일어났다.

별안간 눈부시게 밝은 류성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그제사 하늘을 쳐다보니 맑게 개였다. 류성이 흘러간곳- 희뵤한 빛이 비쳐오는 저 하늘아래 조국이 있을것이다. 그가 아직 밝아보지 못한...

일림의 어머니가 눈물때문에 다하지 못한 심장의 이야기가 순이의 가슴속을 울렸다.

...우린 전쟁란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피난민이 아니다. 스스로 조국을 버리고온 이주민은 더욱 아니다. 왜놈들의 총칼아래 피눈물을 쏟으며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 오고싶어 오지 않은 땅, 살고싶어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 그것이다. 바로 그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저기- 어머니 조국에 있는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대지에 뿌리를 내린 사과의 향기가 영원하듯이 조국의 품- 어버이수령님의 한품속에 뿌리를 둔 우리들의 피도 났도 영원한 조국의것이다.

순이는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가시목음

우리는 혁명의 대하가 되리

한유정

시내물 모이서 강을 이루듯
사람들 모여서 단결 이루네
장군님 두리에 천만이 뭉쳐
우리는 혁명의 대하가 되리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듯
인덕의 품 향한 마음은 하나

장군님 따르는 신념을 합쳐
우리는 혁명의 대하가 되리

하나의 뜻으로 노도처가는
이 대하 막을자 세상에 없네
장군님 웅위할 맹세를 안고
우리는 혁명의 대하가 되리

내 마음

김순녀

새싹이 움틀적엔 잎을 피우려
따뜻한 봄빛을 뿌려준 해님
이 강산에 설레이는 무성한 잎새
그 해님 고마워 인사드리네

꽃망울 터칠적엔 열매 기다려
따사론 해빛을 뿌려준 해님

이 강산에 무르익은 향기론 열매
그 해님 고마워 감사드리네

내 마음은 언제나 무성한 잎새
내 마음은 변함없이 향기론 열매
은혜론 사랑으로 나를 키워준
어버이장군님께 충효다하리

류다른 봄

박원성

누구나 다 봄이라는 계절을 말할 때면 먼저 양지쪽이 움터나는 새싹들부터 표상하게 된다. 그만큼 봄은 모든 식물들을 본래의 자기 모양으로 소생시키는것으로 하여 사계절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계절로 노래되어왔다. 하건만 올해의 봄은 어느해와는 달리 소생의 계절속에 수확의 계절이 합쳐진 류다른 봄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그것을 나무리벌 한가운데 자리잡은 어느 한 협동농장 포전에서 받아안게 되었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나는 리당비서를 만나려고길에 나섰다. 흰구름송이들은 하늘중천에서 고요히 흘러가고 따뜻한 해빛은 금빛을 뿌리면서 연한 풀잎들을 자래우는 대지를 어루만지고있었다.

봄시위로 녹녹해진 땅우에서는 아지랑이가 몽게몽게 피어오르고있었다. 어디선가 습습한 물비린냄새가 풍기며 물소리가 들려왔다. 간선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고있었다. 물은 논고마다 차넘친다.

온 들판이 물속에 잠긴듯싶다. 수로둑과 잇닿아있는 논배미에서는 앞코송이가 새빨간 프락또르가 뒤바퀴를 논물에 깊숙이 잠그고 부지런히 맴돌고있었다. 프락또르의 뒤꽂무니에는 참빗처럼 칸살이가 촘촘하고 묵직해보이는 씨레가 매달려있었다. 논물을 한아름 감싸안은 씨레가 지나갈때마다 결면에 몽글몽글하게 드러난 흙덩어리들이 부서지며 샅시에 팔죽처럼 걸죽하게 풀어진다. 낮게 뜬 제비들이 프락또르의 뒤를 바짝 따르며 질적한 논흙을 한입 물고 바람에 풍기듯 날아오른다. 모드는 녀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판을 적시고있다.

분명 봄은 봄인가보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수로둑너머 저쪽 밭에서는 시누런 이삭을 빼어문 보리가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설레이고있지 않는가. 부쩍 호기심이 동한 나는 보리밭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보리밭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져있었다. 나는 통통 여문 보리이삭들에 마음이 끌려 무릎을 접고 앉았다. 그리고 아름답게 끌어안았다. 뽕족한 보리수염에 찔려 두볼이 따금거렸다.

하건만 그게 무슨 대수랴. 내 가슴은 희한하고 벅차오르기만 하다. 이제 며칠후이면 보리를 썰것이고 이 넓은 땅에 벼모가 꽃히게 된다고 생각하니 자못 감개가 무량했다.

정말 이상도 했다. 나는 분명 봄계절에 이곳에 온듯싶는데 수확의 계절을 맞고있으니 대체 지금이 가을인가 봄인가!

내기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서있는데 등뒤에서 리당비서의 웅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생각을 하시우?》

웃음이 실린 리당비서의 눈길을 받으며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봄풍경이 가을풍경같아 어리둥절해집니다.》

리당비서는 껄껄 소리내며 웃었다.

《허허허... 그럴거우다. 자기 손으로 종자를 뿌린 사람들도 다 익은 낱알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데 처음보는 사람들이야 더할나위가 있겠습니까. 보시우. 저 보리밭끝에는 밀밭이 잇달려있습다. 그 반대쪽에는 온통 감자밭이구요.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들이게 되었은즉 우린 난알더미를 타고앉아 농사를 짓게 되는 행운을 지녔습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지요.》

리당비서는 목이 짹 막힌 소리로 말하며 눈시울을 습벅이는것이였다. 격정에 휩싸여있는 그를 바라보는 내 가슴속에도 뜨거운것이 몽글 솟구쳐올랐다. 두벌농사! 정녕 우리 인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그처럼 갈구하던 두벌농사... 평생의 소망이 현실로 꽃피나 그덕을 단단히 보게 되었으니 어찌 감격의 눈물을 쏟지 않으랴.

봄계절에 가을계절을 함께 맞은 봄... 봄과 가을이 합쳐진 이런 류다른 봄이 또 언제 있었느냐.

이 가슴 뜨겁게 더웁히며 봄노래소리, 가을노래소리가 울린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환희와 웃음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의 시작은 정녕 어디냐. 나는 이 시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농사를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규정해주시고풍년작황을 마련해주시려고 돌려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심장으로 느낀다. 저 들판에 울리는 물소리, 이삭이 설레이는 소리는 자연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귀기울여보라! 심장에 메아리쳐오지 않는가. 올해 정월초, 몸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신 고귀한 말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 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게 하며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잘 살도록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격조높이 강조하시였다.

대흥단을 찾으시여서는 자신께서 감자농사의 사령관이 되어 나라의 농업구조를 고치고 농사법에서도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바로
지금 전야에는 밀보리이삭들이 설레이고
감자풍년이 마련된것이 아니겠는가. 봄노래소리,
가을노래소리는 온 나라들에, 언덕에서
울리고있다. 이 봄의 가을날을 마련해주시려고
우리 장군님 삼라만상이 고요에 잠기고 온 나라
인민들이 안식의 꿈을 꾸는 깊은 밤에 눈비에
젖으시며 걷고 걸으신 길 몇만리던가
몇천만리던가. 2월의 사나운 눈보라에 옷자락
날리시며 토지정리를 하는 강원도의 협동벌을
돌아보시던 그 나날,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을
내다보셨으리라! 이 풍년노래를 듣고계셨으리라!

그러니 봄이어! 더는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모습도 달라졌구나. 그래서 너
의 노래는 더더욱 희망으로 가득차 사람들의 심
장에 메아리치는구나. 이 봄, 이 가을과 함께 웃
음도 많아지고 열정도 불같이진 농장원들이 나는

이때따라 돋보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리당비서가 아까보다 더 높아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가을날에 다시 오시우. 낱알더미를 높이 쌓아
놓고 한바탕 춤을 춥시다.》

《정말입니까?》

《우린 빈말을 할줄 모릅니다. 두고보시우. 우리
농장원들은 결사전을 벌려 강성대국의 돌파구인
농업전선을 타고있을겁니다.》

리당비서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그렇다. 두벌농
사를 벌리는 이들에게 무엇이 두려울게 있으랴.

이들은 분명 준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구보로 달릴것이다. 나는 머지 않아 강성대국의
봄소식을 온 세상에 남먼저 알릴 이들의 자랑스
런 모습을 그리며 리당비서와 함께 모내기전투장
으로 향했다.

쇠물이 웃는다

최정용

성강사람들
높뛰는 심장의 박동인양
그 힘찬 동음에 이끌려
나는 다가섰다
쇠물이 뚫는 전기로앞에

그 얼마나 장엄한가
길길이 솟구치는 불보라, 불보라
빛나는 화광
불노을에 물든 용해공들
쇠장대로 쇠물을 휘저어가는 모습은

용해공들 그 미더운 어깨너머로
내 로안을 굽어보느라니
펼 펼쳐 뚫는 쇠물이
아 나를 마주보고 웃는다
백광을 뿌리며 뿌리며
장쾌한 웃음을 웃는다

웃는다
모진 광풍 몰아오며
원수들은 우리를 압살한다 날뛰여도
장군님 지펴주신 신념의 불을 안은 사람들
그 억센 심장이
그 동요를 모르는 정신이
여기서 불이 되어 웃는다

웃는다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며
대고조의 진군길에 오른 성장의 로동계급들

용기백배하여 신심에 넘치며
최후승리를 내다보며
웃는다, 쇠물웃음을 웃는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몸소 용해장까지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아 우리의 장군님
그앞에 다진 맹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기어이 지켜가는 이들

한마음 우리의 장군님을
강철로 받들어가는
그 불같은 심장과 심장들이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박차고
충성의 쇠물폭포 쏟아내거니

천리마의 강철나래가
거세게 퍼덕이는 여기
그 날개를 펼치고
주체의 봉화꽃이 세월을 주름잡으며 달려가리니

아, 내 가슴의 벽을 두드리며
웃는다, 쇠물이 웃는다
꺾을수도 주저앉힐수도 없는
성강의 그 마음이 웃는다
오늘에 벌써 래일을 안고사는
승리한 미래가 웃는다

다시한번 논의에 부치다

-중편소설 《1학년생》에 구현된 동심문제를 놓고-

정룡진

원숙한 형상단계에 이른 작품은 흐르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게 되는 법이다.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 작)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언간 10여세월이 켜 지나갔다. 하지만 작품은 어린 독자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좋은 인상과 공감을 불러일으켜주고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소설을 대여섯번은 읽었다고 할수 있는데 매번 흥미를 느꼈고 공감을 받아안았다.

특이하거나 이채로운 생활령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동요시절에는 체험할수 있고 목격할수 있는 아이들의 생활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것은 바로 그속에 아이들의 고유한 동심이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확실히 《1학년생》은 아동문학이 가지는 거대한 형상적감각력이 동심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하고있는 점에서 오늘도 자기 존재를 뚜렷이 하고있다.

그래서 나는 동심구현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려는 욕망을 안고 지난 기간 논의가 없지 않았던 《1학년생》을 다시금 토론에 부치려고 한다.

1. 동심구현에서의 세부의 효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1학년생》이 보여준 창작적모범의 하나는 생활세부가 가지는 형상적효과를 살려 동심을 생동하게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 생활세부들이 동심구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세부에 인물의 특징을 말해주는 내용이 담겨져있는것과 관련된다.

례를 들어보자.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고 제절로 쓰는것.

-편지를 부칠 때 점잖지 못한 아이와 제구실을 못하는 아이의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는것.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수자들의 세계를 비로소 이해하는것.

-어른을 흉내내여 공중전화기로 《동지》와 전

화하는것.

-속셈시간에 친구의 손가락을 빌려려다가 망신 당하는것.

-옷중에 있는 동무와 낚시줄로 먹을것을 교환하는것.

-평양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탐방여행하는것.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출장》을 간다고 으시대는것.

-우편국에 가서 어른스럽게 소포를 찾는것 등 세부에 담겨진 이런 내용들은 어느것이나 주인공의 면모를 특징짓는 성격과 동심의 한 측면들이라고 할수 있다.

주인공이 편지를 부치는 세부를 구체적으로 보자. 주인공은 다 쓴 편지를 가지고 우편함 있는 데까지 갔으나 키가 모자라 넣을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낮이 익은 3학년생처녀애가 다가온다. 처녀애는 주인공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자기가 편지를 넣어 주겠다고 자진하여 나선다. 그러나 주인공은 선뜻 편지를 내밀지 않는다. 그애의 깔보는듯한 눈매와 팔랑대는 몸가짐이 마음에 들지않았던것이다. 이번에는 8호동의 4학년생총각애가 터벌터벌 다가왔다. 총각애는 만나자마자 자기가 넣어준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번에도 편지를 선뜻 내놓지 않았다. 축구할 때 헛다리질을 잘하는 그애의 손을 빌리면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갔다가 도로 빠져 달아날것만 같은 예감이 든때문이었다.

이 세부는 편지를 부치려고 애를 쓰는 내용을 담고있지만 그밑에는 점잖지 못하거나 제구실을 잘못하는 대상한테서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자립에 대한 소박한 지향과 자신의 노력으로 먼곳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싶어하는 친진한 동심이 깔려있다.

떨거한 세부들의 형상적의미는 모두가 비반복적이여서 동심에 찬 아동주인공의 성격을 한측면씩 부각할수 있는것들이다.

어떤 세부는 생활에서 체험하는 어린이다운 불안과 걱정을, 또 다른 세부는 세상리치에 대한 소박한 인식과정과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모방성, 엉뚱한 기질, 탐구욕, 유익한 일에 대한 동경, 그것을 실현했을 때 느끼는 자부심을 보여주기도한다. 의미상으로 겹놓인 세부는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비반복적인 세부들은 작품의 요소요소에 자리잡고있으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인물의 모습에 각이한 체취를 풍기는 동심적인 정서를

보태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인물들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여러 세부들과 관련하여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있다.

먼 후날에 가서 작품들은 주로 인상깊은 세부와 결부되어 추억되는데 독자들이 두고두고 외울만한 그런 세부가 없으면 작품자체의 생명력도 담보할수 없다.

중편소설 《1학년생》에서 생활세부들이 동심구현에 적극 작용할수 있는것은 또한 세부자체가 독자들의 마음을 감각으로 자극할만큼 표상적으로 되어있고 본질적인것, 심오한것을 암시하는 문학적으로 짜인 이야기로 되어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활세부는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 묘사가 조형적이고 회화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직관성을 띠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감각적으로 받아안을수 있다. 또한 이야기는 작은것, 레사로운것 같지만 큰 사상을 천명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작품의 중간부분에 씌여진 평양시교외에로의 탐방장면을 놓고보자.

평양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한 소박한 론쟁끝에 아이들은 드디어 탐방의 길에 나선다.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뺨스를 타고 동쪽으로 30리, 서쪽으로 30리, 평양은 정말 넓기도 했다. 그들은 하루종일 들판을 헤매면서 《쌀밭》이며 트랙터며 풍우유를 주는 풍발의 희한한 모습을 보았고 자기들이 디디고 사는 이 땅을 일생토록 기를지게 결구어온 농장원할아버지의 보배로운 손도 만져보았다.

작가는 이렇듯 교외농촌의 특이한 정서와 풍경, 그곳에서 사는 인간들에 대한 회화적묘사를 실현하면서 어린 독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것을 표상으로 받아안도록 하고있다.

세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탐방의 주인공들이 평양이 얼마나 넓은가를 제발로 걸어 확인하는 《통이 큰》 아이들임을 확인하는데로 지향하면서 1학년생들을 응석받이, 철부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주고있다.

교외의 이채로운 풍경과 농장원들의 작업모습에 대한 묘사가 동심을 건드리는 구체적표상으로 된다면 인물들을 《통이 큰》 아이들로 느끼게 하는것은 본질적이고 심오한것을 암시해주는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세부는 주인공과 작중인물들이 사물과 현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 탐구욕과 실천적활동능력을 자래우며 살아가는 산 개성적인물이라는것을 친근한 감정으로 받아안게 한다.

이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짜인 생활세부로 되는것은 부피는 작으나 기승전결의 구획이 뚜렷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분분하던 론의, 려행의 시작, 교외현지에서 보게 되는 특이한 자연과 농장원들과의 교우, 들판에서 지새우게 된 하루밤, 농장원네 집에서의 지

녁식사와 귀가, 이런 매듭들은 그대로 기승전결의 구획을 지어준다. 그리하여 세부는 굴곡이 없는 범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칠맛있고 탄력있는 이야기로 될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짜인 생활세부로 되는것은 또한 이야기의 외적구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감정흐름세를 가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려행의 시작과 더불어 느끼는 기대와 호기심, 현지에 도착하여 맛보는 경이로움과 희한함, 푸짐한 식사시간과 귀로에서 체득하는 은근한 만족과 궁지 등은 발단과 상승, 전개와 해결의 감정조직선을 이루고있다.

이렇듯 이 세부는 이야기의 외적구조와 감정조직이 치밀하고 인물들을 《통이 큰》 아이들로 일반화하는 사상의 씨앗까지 안고있음으로써 문학적으로 짜인 이야기로 될수 있었다.

《1학년생》에서 동심과 성격을 암시하는 인상깊은 세부를 탐구하고 그것으로 형상을 돈구어낸 작가의 시도와 노력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것이다.

2. 동심구현에서의 대사의 효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답게 해야 한다.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는 대사라야 진실하게 들리며 인간을 생동하게 그려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중편소설 《1학년생》은 생동하고 인상적인 생활세부가 성격과 동심구현에서 노는 역할을 확인하고있을뿐아니라 대사의 효과적인 리용이 동심발양에 미치는 커다란 작용력도 아울러 보여주고있다.

대사가 인물의 성격에 맞아야 한다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을만큼 깊은 뜻을 담고있어야 한다면, 간명하면서도 함축되고 밀도가 높은 통속적인 말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은 아동문학에도 그렇게 적용된다.

대사는 서로 분리된 말마디의 토막으로 이루어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과 성격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의 흐름선우에서 씌여지는것이므로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아야 한다.

아동문학에서 대사를 명대사화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의 경우와 같이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말만을 골라쫄수는 없다.

아동문학에서의 대사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생활과 지적수준, 사고, 취미, 기질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동심이 습배인 그런 대사로 되어야 한다. 사상과 철학이 있고 동심이 있는것이 아니라 동심의 토양우에서 사상도 철학도 울려나와야 한다. 아직은 우리가 이룩한 사상과 지성의 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그속에 아이들의

친진함과 발랄함이 깃들어 있고 모든 아름다운것, 정의로운것, 좋은 일에 대한 은근한 지지와 동정, 그 모든것을 소박하게나마 자신의 생활에 구현하려는 열망이 숨배어 있을 때 또 그들의 천성적기질이 번뜩일 때 그런 대사는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안겨오며 어른들에게까지 인상을 새겨주는것이다.

최근에 나온 한 아동단편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다.

공부를 착실히 하던 아이가 시험에서 실수하여 4점을 맞았을 때 그는 자기 동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난 이번에 4점 맞고보니 좀더 공부 안전하게 회회되더라. 푹푹히 모르면서 아는척 슬슬 넘겨놓구.》

《난 이번에 시험치면서 모르는게 많다는걸 깨달았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1학년으로 내려갔어.》

《난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에 대해 나의 실력을 광심적으로 점수를 매겨봤어. 따져보니 보통도 되나마나한 과목이 있더구나. 난 내성적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봐. 그래서 잘 모를 내용들은 제때에 깨우치려고 해.》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하는 주인공이 전혀 아이답게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대사에 동심이 배여 있지 않기때문이다. 고등중학교 3학년생이면 열서너살미만이다. 소년다운 영웅성, 호기심, 의협심, 친진관만성, 솔직성, 발랄성이 있는가. 이 대사에서는 그 어떤 기질특성도 찾아볼수 없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소년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나이포레가 가질수 있는 연령심리적특성이 있을것이고 자신이 걸어온 생활경로에서 굳어진 특이한 성미가 엿보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앞에 나타난 인물은 오직 공부를 착실히 해야 한다는 사상을 신봉하는 무형의 존재, 추상적존재일 따름이다.

독자들이 느끼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대사가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는 역할, 주제와 사상을 고스란히 옮겨놓는 역할만을 하고있다는것이다.

어린 주인공이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는 전달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에게서 어린다운 모든것은 삽시에 거세되어버린다.

동심이 숨배이지 않은 대사, 사상을 직선적으로 표출하는 대사들이 아직도 작품들에서 없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레중한 대사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참으로 심각하다.

《1학년생》의 대사들은 바로 이런 약점을 적지않게 극복함으로써 성격과 동심을 살리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1학년생》의 대사와 관련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첫째로 대사가 인물의 성격적면모를

밝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주제적문제리론의 요구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관찰하고있는것이다.

인물의 성격적면모는 사상정신상태, 취미, 기질, 지식수준 등에 의하여 밝혀진다.

레1. 《형, 사과도 나무에 열리지, 응?》

《그럼, 나무에서 열리지 않구.》

《나무는 어떻게 생기니?》

...

《애기나무.》

《애기나무는 어디서 생기니?》

《넌 참 진드기처럼 끈끈하구나.》

레2. 《넌 그래 팔이 붓지 않았니?》

《아니.》

《침이 들어갈 때 아프지 않던?》

《시원했어.》

《대포쟁이, 시원한 주사가 어디 있어?》

《정말이야, 의사선생도 이번 주사는 시원한 주사라고 했어.》

레3.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모자를 썼니?》

《쓰고싶으니까 썼지 뭐.》

《할아버진 덩치두 않은 모양이지. 저런 털모자를 쓰구...》

《할아버진 겨울이니까 털모자를 쓴거야.》

《해해, 눈두 안왔는데 겨울이라구?》

《...이것 봐. 소나무에랑 언덕에랑 눈이 내린걸. 평양은 가을이지만 할아버지가 서있는 홍산골은...》

레1은 주인공의 무엇에나 주의를 돌리며 알고 싶어 하는 끈끈스러운 성미를 강조하고있다.

레2는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가 주사를 맞지 않은 아이를 끌려주기 위하여 시원한 주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의심할바없이 주사를 맞은 아이가 능청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있는것은 명백하다.

그런가하면 주사를 맞지 않은 아이는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추궁을 생각하며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레3은 거리에 나뭇은 혁명가극의 소개판을 제 나름으로 리해하는 아이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소개판에 그려진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보며 해빛이 내려비치는 한낮의 더위에 시달릴것을 걱정하는 인물은 확실히 그림의 세계와 현실을 옹계 가려보지 못하는 인식수준이 낮은 아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소개판의 인물이 평양이 아니라 눈내린 홍산골에 있기에 털모자도 쓰고 덧저고리를 입었다고 바로 리해하는 아이는 그와는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높다.

《1학년생》의 대사들은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성미와 기질, 지식수준의 높낮이를 형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성격적면모를 밝히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작품에서 이런 대사들은 형상을 간결하면서도

인정깊게 창조하게 한다. 그것은 많은 설명과 서술이 절약되고 묘사가 집중화되기때문이다.

한 인물의 능청스러운 기질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방주사를 시원한 주사라고 말하며 대방을 끌려주는 모습을 내놓은것은 얼마나 기발한 발견으로 되는가.

또한 한 어린이의 인물초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혁명가극의 소개판앞에 내세운것은 또 얼마나 옳은 장면선택으로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합당한 계기와 장면을 선택한 솜씨와 그런 계기와 장면에 어울리는 대사를 특징적인 말마디들로 조직한 진지하고 탐구적인 노력을 엿보게 된다.

정황과 정황,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면서도 성격과 정황에 어울리는 대사란 바로 이런것이다.

《1학년생》의 대사와 관련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둘째로 대사들이 말마디가 나타내는 직관적인 의미외에 그뒤에 깔려있는 인물의 심리정서적내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말뒤에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뒤에 뜻을 담을줄 아는 재능은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나타낼줄 아는 작가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형상을 단순화하지 않고 조형적으로, 립체적으로 창조할것을 지향한다.

형상의 조형성, 립체성은 결면에 나타나는 생활뿐아니라 그뒤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생활과 그로부터 환기된 감정정서까지 밝혀낼 때에만 실현된다. 대사를 말마디가 나타내는 직관적의미뿐 아니라 그뒤에 깔려있는 인물의 심리정서적내용까지 암시할수 있도록 구사하는것도 형상을 단순화하지 않고 조형화, 립체화하기 위한 한 고리로 된다. 어린 주인공이 난생처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문밖에 나서는 장면에 있는 대사를 더듬어보자.

《어디 가?》

《<출장>가지 뭐.》

《<출장>?》

《응, 우리 아버지가 날 저기로 <출장>보냈어.》

《그런데 왜 가방도 없니?》

《가방이 없으면 뭐 출장을 못가니? 난 이제 유보도에 가서 어떤 화가아저씨를 만나거던. 그 아저씨한테 이 책을 전해줘야 해.》

《너의 아버지 널 정말 고와하누나.》

《너두 아버지보구 좀 <출장>보내달라구 하려마.》

《그런 심부름은 시키지두 않아. 더퍼리라고 하면서...》

《어머니두?》

《어머닌 그저 수도꼭지를 잘 틀어막으라는것밖에 몰라.》

이 대사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는것은 말마디의 결면에 나타난 의미이다. 그러니 대사는 이외에 사건의 뒤에 깔린 인물의 심리정서적내용도 암시해주고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집을 비우고 출장떠나는것을 늘 부러운 마음으로 감수해온 동심적인 심정이다.

큼직한 가방을 들고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세상구경을 하는것은 얼마나 좋을것인가.

다음으로 련상되는것은 두 집 부모들에 대한 두집 아이들의 정반대의 《평가》이다.

주인공은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면 대화의 상대방은 그런 믿음을 주지 않는 아버지와 고작 수도꼭지를 틀어막으라는 《임무》밖에 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하여 《노여움》과 《불만》을 느끼고있다. 대사의 뒤에 깔려있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일이나 독자적으로 해보고싶어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서 오히려 공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주인공의 성격적면모를 밝히는데서 없어서는 안될것이다. 많은 지면에다 서술과 묘사를 하지 않고도 이런 소득을 얻는것은 형상의 간결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어떻게 되어 이런 《일거량득》을 얻게 되었는가. 작가는 주어진 생활을 걸어로만 파악하지 않고 그와 인과관계를 가지고있는 앞뒤의 의미를 아울러 포착했으며 그 의미를 결면의 생활에다 자연스럽게 융해시켜놓았다. 그것이 결국은 말뒤에 큰 뜻을 담은 좋은 결과를 안아온것이다.

이것은 아동문학의 대사라고 하여 험한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더욱 굳게 다져준다.

《1학년생》의 대사와 관련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셋째로 대사들에 썩여진 말마디들이 아이들의 생활과 밀착된 의미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친숙하게 안겨오고있는것이다.

아동문학에서 대사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답게 구사되어야 성격과 동심을 발양시킬수 있으며 진실하게 안겨온다. 아동문학에서의 명대사는 무엇보다도 말마디들이 아이들의 생활과 밀착된것으로 되어야 한다.

- 《국어 열번 쓰라는거 말이지? 건 밤에 해두돼.》

- 《...젠내빈 사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또 또 또... 할아버지라고 했어.》

- 《<사양공 우리 누나>라는 노랜데... 얼음사탕처럼 달달해.》

- 《토요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너한테서 매일 얼음보숭이 한개씩 받아내겠다구 했어.》

- 《순일이 이발은 왜 이렇게 별레가 잘 먹니?》
《그거야 내 이발이 맛있어서 그렇지 뭐.》

레문들은 아이들의 생활과 밀착된 말마디들이다.

학교에서 교원이 숙제를 내줄 때에는 국어 제

× 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열번 써오라고 했을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국 이 열번 쓰는것》이라는 말로 그 복잡한 표현을 대신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언어생활 그대로다. 《조상》이라는 말이 익지 않아서 《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고 갑자르는 표현이라든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노래를 얼음사탕에 비유한것, 소포를 제때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일 얼음보숭이 한개씩 바쳐야 한다는것, 이발이 맛있어서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 표현들은 다같이 어휘소유량이 빈약하고 무엇이나 자기생활과 가까운것에 비유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언어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대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과 밀착되게 되던 독자들은 즉시에 인물들의 연령과 성미, 기질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동문학에서의 대사는 어린이들이 늘 쓰는 생활적인 말, 그들의 연령심리적특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인물의 사상, 감정, 체험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말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중편소설 《1학년생》은 이런 대사들을 살려써서 작품의 아동문학적성격을 강화하고있다.

3. 동심구현에서의 지문의 효과

지문은 작품에서 인간과 사건, 사건과 인간관계를 연결시키고 추진하며 다양한 형상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문을 순수 《이음말》이나 《설명문》처럼 단순하게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지문을 사건의 진행과정과 인물의 행동, 내면세계를 깊이가 있고 정서가 있게 문학적미문장으로 꾸리면 꾸릴수록 작품의 형상수준이 그만큼 올라서기때문이다.

《1학년생》은 작품의 전반적형상수준을 올리는 데서 지문이 노는 역할을 확증하고있는 점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사실 일부 아동문학작품들에서 좋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동심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는것이 지문을 잘 살려쓰지 못하는것과도 관련된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1학년생》의 지문들이 전반적동심구현에서 한몫 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철두철미 어린이들의 시점으로 씌여진 글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문은 작가의 글이다.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문학에서는 지문에서 인간과 생활, 구체적 정황과 사건에서 받아안은 작가(어른)의 느낌과 감정,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여 그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

조하는 문학이므로 그렇게 할수 없다. 성격도 사전도 대사도 묘사도 어린이의 구미에 맞아야 하며 지문에서도 그런 요구는 관철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창작실천은 작가들이 사건조직에서나 인물의 모습을 그리는데서 아이들의 구미에 만족을 주려는 노력은 하고있으나 지문에 대하여서까지는 관심을 덜 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지문을 순수 《이음말》이나 《설명문》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형상적효과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그릇된 편향이다.

《1학년생》에서는 작품의 아동문학적성격을 강화하려는 작가의 관심과 노력이 지문의 영역에까지 미치고있다.

레1. 《얼마전까지는 맹물로 고양이세수를 했는데 지금은 금석이처럼 당당한 비누세수를 한다.... 아직은 금동이네 아바트 1학년 생들중에서 화장비누로 세수를 하는 아이는 한명도 없다.》

레2. 《그는 뭉뚱이 달린 바지대신 금석이가 입는것과 똑같은 바지를 입고 고리우에 땅크가 새겨진 매끈매끈한 비닐혁피를 띠었다. 앞코숭이에 바둑판무늬가 있는 비닐신대신에 제멋대로 끈을 늦췄다 조였다 할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다닌다.》

레문들은 마치 한쪽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레1은 유치원을 마치고 1학년생이 된 주인공의 달라진 생활방식에 대하여 말하고있고 레2는 달라진 옷차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얼마나 생동하게 안겨오든가. 이런것을 놓고 순수 이음말, 설명문으로 여길 사람은 없다. 유치원때까지는 맹물로 고양이세수를 했으나 어언간 학생이 되어 화장비누를 쓰게 되었다는것은 아이들만이 찾아낼수 있는 생활이다. 또 뭉뚱이 달린 바지를 벗어던지고 형이 입는것과 같은 바지에 고리우에 땅크가 새겨진 비닐혁피를 띠었다든가, 앞코숭이에 바둑판무늬가 있는 신발대신 마음대로 끈을 조절하는 운동화를 신고다닌다는 표현도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되어 어른인 작가가 이런 말을 쓸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작가가 시점을 아이들수준에 맞춰놓고 눈에 뜨이는 모든 대상들을 고찰했으며 그로부터 느끼는 감정도 그 높이에서 체험했다.

다시말하여 작가는 아이들의 립장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한것을 지문에 옮긴것이다.

만일 이런 내용을 행동거지가 의젓해지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며 어른들의 말을 곰상곰상 잘 듣는다든가, 깨끗하고 다림발이 선 교복을 입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면 작가의 의도는 전달할수 있어도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는 형상으로는 되지 못한다.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무나 품들이지 않고 상상해낼수 있다.

맹물로 하는 고양이세수와 화장비누를 쓰는 세수, 멜빵바지와 혁피를 쓰는 바지, 바둑판무늬의 비닐신과 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운동화... 등은 작품의 그 상황에서 주인공의 외모와 행동의 의의함을 방불하게 나타낼수 있는 표현들이다.

작가는 이렇듯 지문을 소여정황에서 있을수 있는 특징적인것을 어린이의 시점으로 포착하고 그에 기초하여 쓰고있다.

이런 지문들에서는 다른 형상의 고리들에서 밝히지 못한 인물의 면모가 해명될수 있으며 지어는 레몬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면세계의 안속까지 들여다볼수 있게 된다.

지문에서까지 주인공의 호감과 감정, 정서를 풍겨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없다. 지문이 인간과 사건, 사건과 인간관계를 련결시키고 추진하는 글이라고 하여 시점을 고려함이 없이 랑담한 서술로 일관시켜나간다면 이런 형상적효과는 나타낼수 없다.

《1학년생》의 지문들이 전반적동심구현에서 한몫 할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작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지문을 성미와 특기를 발양시키는 마당으로 전환시키고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아동문학에서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지문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문학에도 그런 지문들은 적지 않지만 아동문학에서는 정적인 상태에서 사색에 잠겨있는 인물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활동하는 인물들을 내놓은 조건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응당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품들에서 인물의 운동과 관련된 지문을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잘 쓰는것은 전반적동심구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1학년생》의 경우를 보면 이런 지문들에서 인물의 성미와 특기를 보여주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레를 들어보자.

《금동이의 바로 뒤에서는 무슨 가벼운 물건들이 달그락달그락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금동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도 그것이 굵은 그물실에 꿰여가지고 다니는 단추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라는것을 잘 안다. 그 단추들은 수자를 대신한다.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순일이는 이 단추의 힘을 빌어 어물쩍 속셈을 하군한다...

금동이의 앞에서는 몸집이 류달리 뚱뚱한 동학이가 삐그덕삐그덕 소란스러운 의자소리를 낸다. 궁리가 잘 트이지 않을 때면 그는 늘 그런다.》

《일요일이여서 삐스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손님들이 다 내리자 맨앞에 섰던 재수가 <단체!>하고 소리치며 5전짜리 일곱일을 차장에게

내밀었다.

그는 자기들이 멋도 모르고 아무데나 망탕 헤바라다니는 코흘리개들이 아니라 당당한 인민학교 1학년생들이며 더군다나 평양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려고 길을 떠난 려행가들이라는것을 한껏 뽐내고싶었던것이다.》

레몬들에서 인물의 성미와 특기는 노끈에 켜 단추를 가지고 어물쩍 속셈을 대신하는 행동에서, 궁리가 잘 트이지 않을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의자소리를 내군하는 관습에서 그리고 고작 일곱명이 길을 떠나면서 《단체》라고 호기를 부리는 당돌함에서 나타나고있다. 이런 특기와 기질은 그 자체도 흥미가 있는것이지만 그를 통하여 인물의 모습을 가늠하여보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문들에서는 인물의 성미와 특기뿐아니라 그 밑에 깔린 심리와 정서의 안속까지도 알아차리게 한다.

속셈할 때 단추를 리용하는 외적행동은 머리를쓰지 않고도 좋은 평가를 받아보려는 엉큼한 속대를, 의자를 삐그덕거리는 행동은 궁리가 트이지 않아 모지름을 쓰는 안타까움을, 일곱명의 인솔자가 《단체!》라고 소리치는 행동은 자기들을 코흘리개로 보지 말라는 요구와 얼마든지 큰 일을 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안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 인물의 운동과 관련된 지문들은 이렇듯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에 뿌리를 둔 행동의 세부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으로써 인물의 면모를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

《1학년생》에는 기승전결로 가진 일관한 사건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어린 독자들의 연령심리적특성은 고려했기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작품은 생활세부들의 련결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느낌을 준다.

이런 조건에서 작가가 생활세부의 탐구와 대사적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작가는 타산과 설계를 잘하였으며 노력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편소설 《1학년생》이 아동문학의 리상적표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품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전반부에 비하여 후반부가 흥미도 덜하고 형상이 처지는 느낌을 준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인상적인 세부도 맺힌 대사도 지문도 적어지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작가가 동심구현을 위하여 기울인 지도와 노력을 귀중히 여겨 지난 기간 미흡하게 론의되었거나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 글에서 상정시키고 분석을 주었다.

비록 사소한것이랄라도 창작에 도움될수 있다면 제때에 찾아내어 그 의의를 밝히는것이 평론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창조리 (1회)

정진혁

서로서로 말려돌아가던 락업들이 한산하게 불어치는 가을바람에 우르르 밀려간다.

봄부터 앓기 시작하던 서천왕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태의원의 문돌찌귀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온 나라가 왕의 병환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대규모의 사냥행렬이 도성문을 나섰다.

나팔과 북들이 요란히 울고 높이 든 기치마다 청룡, 백호의 기발들이 펄펄 날리는 행렬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아니, 저게 뭐요?》

《보구두 모르슈? 태자께서 상감님 병환에 쓸 약재를 사냥해온답네다.》

《태의원엔 약재가 동이 났다오?》

《없긴 왜 없겠수. 디디구 쌓였지유. 저 알량한 태자님이 구실대구 놀려 가는것이지.》

《원 저런.》

창조리는 이 행렬을 자기 집앞에서 보았다.

서천왕의 병때문에 멀리 고명한 의원을 찾아갔다가 전날저녁에야 돌아온 그였다. 이런 때에 뭐가 이다지도 위풍을 떨치기에 소란하냐고 그는 밖으로 나와보았었다.

창조리는 잠시 의아해하였으나 곧 알아차렸다.

도리머리를 저으며 창조리는 태자의 사냥행렬을 외면하여 대문을 달았다.

집안에 효자 못하는 자식이 국사를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는가. 한숨만 나울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 나라는...)

당시 고구려는 통성기에 들어서고있었다.

시조 동명성왕이 왕위에 오른 때로부터 5백여년세월.

세월의 흐름속에 나라의 위용은 더욱더 빛나 동방의 대강국으로 국력을 크게 떨치고있었다. 지어 중원의 위나라와 그를 전복하고 전중국을 통일한 사마씨의 진나라도 고구려를 높이 보고 허술히 여기지 못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서천왕은 총명하고 인자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 크게 인망을 얻고있었다.

《국사는 애민이 근본이라.》

즉 나라일을 봄에 있어서 백성을 아끼고 사랑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천왕은 늘 이 말을 입에 올리곤하였다. 말만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는 구제, 진휼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 태자는?

서천왕과 왕후 우씨 사이에 출생한 태자의 이름은 상부이다. 죽은후에 받은 시호는 봉상이라고 한다.

한창나이의 상부는 누구를 닮아서인지 교만방탕하고 시기와 의심이 많았다.

질투군들의 일반적표징이 그러하듯이 상부에게는 무사다운 용기와 대담성이 부족하였다. 체격은 뚱뚱마하였고 젊은 나이임에도 두팔과 입귀가 아래로 처져내린것이 척 보기에 무뎡한 인상을 주었다. 태자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벗어던진다면 저자바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뚱뚱보에 불과하였다.

고대에는 령수 즉 제왕이라든가 추장, 장군 등이 갖추어야 할 한가지 징표라 할가 어쨌든 무리를 위압하고 틀어잡는데서 중요한것으로 육체적 웅장함과 장수힘을 꼽았다.

게다가 《태자는 박덕하고 편협한데다 못생겨먹은 뚱뚱보이다》는 소문이 멀리에까지 퍼져있어 화려한 대지의 사냥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장한 위세에 위압된척했으나 속으로는 《쳇!》하고 코방귀를 끼고있었다.

허나 상부의 눈을 똑바로 본다면, 그의 눈총에 맞는다면 아무리 담대한자라도 즉시 눈길을 피하였다. 세모지고 영악하게 번쩍이는 독기로 가득찬 상부의 눈은 먹이감을 노리는 술개미의 눈을 방불케 하였다.

태자 상부는 지금 누가 보든말든 말잔등에서 몸을 흔들거리며 조율면서 사냥터로 가고있다.

고구려인들은 사냥을 단순히 《수렵》이라는 생업으로가 아니라 무예수련으로 삼고 널리 장려하였으며 해마다 3월 3일이면 국가적인 사냥경기도 조직하여 장수를 선출하였다. 사냥터에서는 너나없이 살을 날렸고 호탕한 웃음으로 총화하는 그런 쾌활한 성격을 지닌 민족이기도 하였다.

력대 고구려왕들도 시조 주몽처럼 사냥을 즐겨하였고 이를 중시하였다.

고구려에서 제일 훌륭한 사냥터로는 나라의 서부에 위치한 신섬부근의 평야라고 인정되어왔다.

신섬은 고구려 서부국경의 중요한 요새로서 료하류역 무순 북쪽에 위치한 고이산성(고려산성)이다.

장수왕이후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평양남쪽의 락랑평원이 제일로 되어 국가적인 사

냥경기도 벌렸지만 4세기까지만 하여도 신성부근의 사냥터를 가장 훌륭하다고 일러주었다.

특히 서천왕이 이곳에서 흰사슴을 잡았기에 더 유명해졌다. 고구려사람들은 흰사슴을령물로 생각하였으며 이를 잡으면 소원을 이룰수 있다고 믿고있었다. 건국시조인 동명성왕 고주몽이 흰사슴을 잡아 거꾸로 매여달아놓고 소원을 빌어 비류국왕 송양을 항복시켰다는 전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흰사슴에 대한 숭배도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렇지만 유흥을 즐기는 태자 상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냥을 무예편마로는 보지 않았다.

사냥은 단지 오락일뿐이다. 말타고 짐승을 쫓아가 쏘아잡는것은 둘째다. 뛰니뛰니해도 넓은 들판에 일산을 세워놓고 오가는 바람에 실려오는 대자연의 향취를 한껏 맡으며 생신한 고기를 구워 미인이 쳐주는 한잔 술에 좋은 풍악이면 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얼마나 좋으나! 나는 미래의 고구려국의 주인이다. 무엇보다문에 힘겹게 뛰여다닐 필요가 있단 말인가?!

상부가 마상에서 절반 조율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행렬은 어느덧 신성평야에 이르렀다.

《자-아, 여기다. 말을 달려라! 마음껏 활을 당겨라! 제일 많이 잡는 무사에게 상을 주겠다.》

몇백년일지, 몇천년일지 모를 오랜 세월을 자라고자라 크게 우거진 수림은 정말 장관이었다. 일망무제한 그속에 무엇이 있을지. 웅대한 무사들은 말을 몰아 수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냥복차림의 상부는 둔덕진곳에 세운 일산아래 앉아 끝없이 펼쳐진 수림의 장엄함에 반한듯 한동안을 종이 바라보았다.

이깁나무, 붓나무들이 열기설기 서로 얹혀 자라난 무성한 원시림, 참으로 태고적신비를 간직하고 술렁이는 수림은 신성해보이기까지 하였다.

《동궁마마, 조심하소서!》하는 웨침소리에 상념에 잠겨있던 상부는 눈을 들어 앞을 보았다.

작은 떨기나무들을 마구 짓밟으며 한마리의 메돼지가 미친듯이 수림밖으로 뛰쳐나오더니 상부가 앉아있는 일산쪽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메돼지가 어쩌나 컸던지 상아처럼 뼈죽이 내뿜은 송곳이는 거의 한자가량이나 돼보였다. 누가 쏘았는지 궁둥이에 화살이 석대나 꽂혔지만 속력은 조금도 떨어짐 없이 맹렬한 기세로 일산을 향해 돌진해왔다.

상부는 까부러지듯 놀랐다.

주위의 수많은 호위병들이 창을 꼬나들고 태자의 앞을 담벽처럼 막아나섰다. 그러자 흥행스레 달려들던 메돼지는 방향을 돌려 옆으로 쪽 빠져달아났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질겁하여 어쩔바를 몰라

하던 상부는 갑자기 달아나는 메돼지를 잡아보고 싶은 욕망이 솟아올랐다.

말에 뛰어오르며 《자, 따르라!》하고 크게 웨친 상부는 메돼지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일반적으로 종교사원은 외딴 산중이나 그밖의 조용하고 아늑한곳에 위치하고있다.

여기 신성밖의 어느 한 이름없는 작은 야산에도 시조 동명성왕의 사당이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조왕을 천제의 손자로, 하백의 외손자로 신성시하여 이르는곳마다에 사당을 세워놓고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냈고 무슨 소원이든 여기에 아뢰면 풀어진다고 여겼다.

조용한 사당밖으로 남매간으로 보이는 두 젊은이가 걸어나왔다.

차림새는 수수하고 지닌 패물도 많지 않았지만 띠로 조여맨 잘룩한 땀시나는 허리, 치렁치렁 늘어진 윤기나는 기름진 머리태, 한송이 백합같이 아름다운 용모와 우아한 걸음씨, 귀족가문의 교양있는 처녀가 문명하였다.

처녀의 뒤를 따르는 총각은 검도 전통도 갑주도 없었지만 타고난 장수로 보였다.

쩍 버그려진 사슴, 무쇠방패도 단매에 때려부실만한 철퇴같은 역센 주먹, 열기가 확확 뿜겨나오는 두눈, 키만 해도 8척이 켜 4~5치 정도는 더되는듯.

이 남매는 판나부 대사자 창조리의 자녀들이었다.

판나부 대가의 귀공자, 귀공녀들이 나라의 국경지역에 온것은 여기 사냥이 《령험》하다는 소문이 나있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해서였다.

여기 신성의 성주는 고노자라는 사람이였다.

고노자는 고구려의 왕족이였고 반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백전로장이였다. 아침도 출세욕도 없는 무장 고노자는 소형이라는 작은 작위에 만족하고있었다. 고노자가 가장 즐기는것은 창쓰기라는 정도로 알려져있다.

그는 제바부의 출신이였다.

고구려의 력대 왕과 왕족들은 거의모두가 계루부의 출신이다.

고노자의 직계의 먼 조상은 명림답부에 의해 폐위된 폭군인 차대왕 수성이였다. 차대왕이 폐위된후 그의 자식들은 도망쳐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대사령과 함께 수도로 돌아와 신대왕을 만나 용서를 받고 제바부로 출신을 바꾸게 되였다.

고노자는 자신의 이런 처지를 탓하지 않고 호협한 협객의 기개를 지니고 성장하였다.

바로 창조리의 자녀들도 이 고노자라는 사람을 믿고 자기들이 살고있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에 오게 되었다.

창조리와 고노자는 한 스승아래서 무예를 닦은 친우였다.

당시 고구려에는 유교가 그닥 퍼지지 않고있었고 자주정신이 강하였기때문에 봉건사회후기,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많이 생겨나 사회의 진보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서원, 서당 등은 없었지만 교육거점으로 《경당》이라는것이 있었다. 경당에서는 글도 무예도 다 가르쳤지만 기본은 무예를 가르쳤다. 경당에서 맺어진 창조리와 고노자의 우정은 수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이어졌으며 날로 두터워갔다. 이런 친구를 믿었기에 호위병도 없이 오랑캐무리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국경에 자녀들을 보냈던것이다.

남매는 사당에서 나와 성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었다. 갑자기 외딴 떠들며 말을 달려오는 소리, 야수의 울부짖음소리가 한데 섞이며 멀리서부터 소란스레 울려온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산굽이를 돌아 중소만한 커다란 메돼지가 여러대의 화살을 궁둥이에 꽂은 채 그들쪽으로 달려들고있었다.

잠시후 한대의 기마무사들이 뒤쫓아 나타났다.

메돼지는 쫓기기만 하는것이 노여워서인지 아니면 살을 맞은 화살이를 앞에 나타나 길을 막고 있는 그들 남매에게 해보고싶어서 그러는지 송곳이를 추켜세우고 냅다 덤벼들었다.

《누나, 비켜!》

동생은 누이를 옆으로 확 밀어던지더니 달려들어오는 메돼지를 향해 획 몸을 날렸다.

《악!》

누이는 소스라쳤다.

동생이 메돼지에게?!

걱정은 순간이었다.

메돼지의 창날같은 송곳이가 동생의 배를 꿰지를듯 들어오다 그만에야 그의 억센 손아귀에 잡혔다.

잠시 메돼지와 동생은 서로 떠밀내기를 하는가 싶더니 그 육중하고 커다란 야수의 몸체가 허궁 떠올랐다가 쿵 하고 패대기쳐졌다. 메돼지는 다리가 꺾어졌는지 갈비가 부러졌는지 버둥거리기만할뿐 일어서지 못하고 비명만 질러대었다.

재차 동생은 오른손을 짝 펴서 머리위에 높이 올렸다가 대기를 헤가르며 《앗!》하는 기함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모두어쥐고 쓰러져 버둥거리는 메돼지의 목고대를 강타하였다.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수박치기였다.

《우썹》하는 소리가 곁에서도 들리리만치 크게 나더니 메돼지의 네다리는 쏙쏙해지고말았다. 이 거대한 야수를 순식간에 처눕힌 젊은이는 숨도돌릴사이 없이 누이를 돌아보았다. 자기의 드센 팔로 밀쳐 쓰러뜨린 누이가 걱정돼서였다.

처녀는 이미 일어나 동생과 야수와의 격투를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고있었다.

동생은 이제는 평온한, 그러나 놀란 기색이 력력한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리나게 씩- 웃어 보였다.

《놀랐지?》

처녀의 흑진주같이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야!-》

뒤늦게 들이닥친 상부와 여러 무사들속에서는 경탄의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대개 협객이나 무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부러웁고 선망이 가는것은 강한 인간의 육체적힘과 용기이다. 무사들은 쓰러진 야수의 거대함과 이를 맨손으로 단숨에 때려잡은 젊은이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너희들은 어디 사는 누구들이냐?》

상부는 그들 남매에게 호기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태자마마, 소인은 관나부 대사자 창조리의 아들 궁진이웁고 이는 소인의 누이로소이다.》

처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앉으며 치마를 감싸쥐고 납신 절을 하였다.

《아, 창조리.》

금상대왕께서 신임하시는 충신이지. 그에게 이런 장수아들이 있는줄은 정말 몰랐도다. 하하.》

상부는 뒤의 무사들, 측근들에게 호탕하게 웃어보였으나 그 웃음은 어떤지 징그러워보였다.

《그대의 부친은 나도 잘 안다.》

잠간사이에 《너》로부터 《그대》로 호칭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상부의 시선은 어느새 처녀의 몸에 가있었다.

(미인인걸...)

아름다운 처녀의 자색을 보면 볼수록 타오르는 욕욕을 누를길 없었지만 체면도 있고 하여 상부는 《자, 성으로 들어가자.》 한마디로 몸을 돌렸다.

×

어느덧 삼경이 펴 지나 구슬프게 찌룩거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점점 뜸해만 갔다.

《애야, 나도 네 마음대로 신랑감을 고르게 하고싶었다. 허지만 그는 우리들의 임금이 아니냐. 그러니 마음을 달리 먹어라.》

창조리는 딸을 설복하였다.

《싫소이다, 아버지. 아무리 비단옷이 많다 한들 저고리위에 저고리를 덧 입겠나이까.》

소녀는 그 말쑥만은...》

《네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이 아비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아라.》

대지가 있어 금수초목이 있고 바다가 있어 고

기가 있듯이 임금이 있어 신하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 자식이 있거늘 네 어찌 이 아버지의 말을 그르다 하며 거역하느냐.》

당시 고구려사람들은 처녀총각이 서로 좋아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있었다. 그렇기에 후세에서처럼 부모가 정해주는곳에 무조건 시집, 장가를 가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창조리의 딸은 여러 후, 비들이 가득한 궁중의 압투와 알뜰에 말려들기 싫었다. 그 녀자가 오직 바라는건 진실한 총각을 만나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것이였다. 지금 이 소박한 꿈이 숙절없이 깨어져 홀날림을 느꼈다.

그 녀자는 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채 어깨를 떨기 시작하였다.

창조리는 딸의 흐느낌소리만 간간이 울리는 방에 긴 한숨을 남긴채 조용히 문을 나섰다.

정원엔 달빛이 교묘히 흐르고있었다. 이따금 먼곳에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온다.

희끗한 채수염과 귀밑머리를 바람에 가볍게 날리며 정원을 거니는 창조리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전날아침 봉상왕을 만나 딸을 후궁으로 들이라는 요구를 수락한 그는 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며 한편으로는 딸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설복을 하였으나 그의 마음도 개운치는 못했다.

서천왕이 붕어한후 태자 상부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해 3월에 상부는 자기의 삼촌인 안국군 달가가 큰 공적이 있어 백성들이 따른다 하여 의심하고 음모를 꾸며 처형하였다.

민심은 소란해졌고 관료들속에서도 공포감이 배회하였다.

새 왕의 이러한 정사를 불안속에 지켜보던 창조리는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왕의 행차에 내심 놀랐다. 6등관밖에 안되는 자기의 집에 왕이 직접 행차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왕이 찾아오게 된 연고를 안 그는 놀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의 행동이 어이없이 생각되었지만 신하로서 레절과 체모를 갖추어 정중히 맞아들였다.

상부는 창조리를 여러번 보아왔으나 이렇게 단들이 무릎을 마주하고있기는 처음이였다.

한다하는 장수들도 부러워할만한 체구는 아직도 쇠하지 않았는듯 혈기로 충만되어있었고 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듯한 두눈은 정기를 뿜는다.

창조리의 인품과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웅근 목소리, 사리정연한 론조에 은근히 위압감을 느끼고있던 봉상왕 상부는 《상감마마의 뜻을 따르겠다》고 머리를 수그리며 응해나서자 희색이 만

면하여 돌아갔다.

왕에게, 아니 탐화봉접(꽃을 탐내여 날아드는 벌과 나비라는 뜻)같은 이 사내에게 고이 길러온 딸을 맡기고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선 《충성》이라는 두 글자 대의명분이 위구를 누르고 응낙하게 하였다.

정원에 우뚝 선 로송의 터갈라진 줄기를 쓰다듬으며 창조리는 깊은 상념에 잠겨 서있었다.

발소리가 자박자박 어둠속에서 다가왔다. 부인 연씨였다.

연씨는 남편의 어깨에 털배자를 걸쳐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공께서 밤이 찬데 어이 정원에 나와계시니까!》

《부인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오?》

《소침이 무슨 뚱 생각이 있겠사오이까. 허나 그애 마음은...》

《물론 괴롭겠지. 하지만 신하는 임금을 위해 자신을 바칠줄 알아야 하는거요.》

《...》

다음날 아침 창조리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딸을 이룰수 없는 심정속에 바래우며 오래도록 대문밖에 서있었다.

×

만조백관이 이전에 모여 조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있다.

대신들의 얼굴빛은 너나없이 황황한 기색이였다.

《선비족이 쳐들어와 선왕의 릉을 파헤쳤다누먼.》

《저런?! 큰일났군.》

3세기후반에 들어와 료서일대에 큰 집단을 이루고있던 모용선비족은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여 평토를 급속히 넓히면서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해나서기 시작했다. 선비족은 여러개의 부족들로 나누어져있는데 부족마다 최고통수를 선우라고 부른다. 선우의 성씨에 따라 모용선비, 우문선비, 단선비 등으로 불리웠다. 당시 이 유목종족의 여러 부족들중 제일 크고 강한 부족은 모용선비족이였다. 선우 도용외대에 이르러 모용선비족은 한층 더 강해져 고구려의 변경을 자주 침노하여오더니 이번에는 서천왕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고구려군의 반격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채 달아났던것이다. 이후 고구려는 장구한 기간 선비족과의 힘겨운 투쟁을 벌렸다.

한참 관원들이 모용선비족의 만행에 대해 쉬쉬하고있을 때 내시가 일어나와 큰 소리로 웨쳤다.

《상감마마께서 나옵신다-》

모두는 그자리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으리으리한 곤룡포를 펼쳐입은 봉상왕이 두명
의 내시에게 부축을 받아 통상에 올라앉았다.

어느때같으면 거드름을 부리며 호통부터 요란
히 쳤겠지만 오늘은 한동안을 멍하니 앉아 피발
이 가득 선 두눈을 굴려 백관을 휘 둘러보기만
하였다.

봉상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용씨의 선비족오랑캐들이 크게 세력을 뻗쳐,
자주 우리의 변경을 침노하여오더니 이제는 선
왕의 성릉까지 파헤치거늘 이 어인 변고냐. 짐과
경들이 선조를 뵈울 날이 있는고?!》

봉상왕은 주먹으로 통상을 두드리며 통분한 심
정을 토로하였다.

《무슨 방책이 없느냐?!》

부월지하에 여러 고관대작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말도 못하고있을 때 반렬의 앞에서 한
사람이 한걸음 나서며 아뢰었다.

《국상 창조리 대왕께 한말씀 올리겠나이다.》

창조리는 봉상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후 국상
의 자리에서 선왕을 보좌해오던 비류소국출신의
상루가 죽자 작위를 대주부로 추가받고 국상직에
임명되었었다. 창조리가 국상의 직무를 맡은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워낙 사람들속에서 신망이
컸던 창조리는 그 기간 해놓은 많은 일과 또 그
자신의 청결한 성품으로 하여 관리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허리에 띠 금어대로 자색의 조복을 산뜻이
조여입은 창조리의 신선같은 풍채를 바라보며
봉상왕은 어서 뽀족한 방책을 내놓으라는듯
상신을 읊짚하였다.

《공에게 무슨 묘책이 있느냐.》

창조리는 담담하나 저력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
다.

《강한 장수밑에는 약한 병졸이 없고 어진 군주
밑에는 속된 백성이 없는 법입니다.

모용외휘하의 선비족이 사납다고 하나 그 근본
은 초원의 유목민에 지나지 않으니 국경을 튼튼
히 지킨다면 자연히 나라가 안정될것시오이다.

제나부의 대형 고노자가 사람됨이 어질고도 용
감하니 대왕께서 민일 외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
히 살게 하시려면 이 고노자가 아니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소이다.

소신이 보를 서나니 이 사람으로 신성의 태수
를 맡긴다면 만의 하나도 실수가 없을줄로 아뢰
옵나이다.》

《고노자?》

3년전의 일이 생각키웠는지 봉상왕은 눈섭을
휩췌 떨었다.

…3년전 8월 상부는 또다시 도성을 멀리 떠나
국경부근에 이르러 질탕한 세월을 보냈다.

렴람을 통해 이것을 안 모용외는 수천의 정예

병을 풀어 국경을 범해들어와 곧장 봉상왕을 잡
으려들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끊고 사납게 몰아치는
적군의 기세를 적은 수의 호위병들로 당할수 없
어 멀리 신성을 바라고 말머리를 향했다.

곡림에 이르렀을 때 수하를 둘러보니 태반이
죽고 떨어져 이십여기만이 상부를 따르고있었다.
뒤에서는 먼지구름을 뽐양게 말아올리며 적의
추격병이 무리지어 쫓아오고있었다.

상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연해 뒤를 힐끔
힐끔 돌아보며 수레우에서 발까지 동동 굴러대었
다.

《빨리!》 소리를 떨리는 목소리로 련발하여 수
하를 재촉하였으나 적은 조금도 덜어짐 없이 바
짝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옆으로, 머리우로 화살들이 《픽, 픽.》 소리를
내며 대기를 가르며 날아간다.

얼마 못가서였다.

앞에서 《와-!》 하는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한
떼의 군사가 맞받아 달려왔다.

《아이쿠, 끝장이로구나.》

상부는 이제는 다라는듯 머리를 떨구며 락심어
린 목소리로 탄식하였다.

《폐하, 저길, 저길 보소서!》

생기넘친 신하의 목소리에 봉상왕은 눈을 번쩍
들어 앞을 보았다.

맞받아 달려오는 군사의 선두에서 날리는 큰
기폭에는 《신성 성주 고노자》의 일곱자가 크게
씩여져있었다.

《삼감마마, 소신 고노자 폐하를 마중하여 나왔
나이다. 힘을 다해 오랑캐무리를 무찌르겠소이
다!》

말우에서 한마디 웨친 고노자는 휘하 5백 철기
를 휘몰아 선비족의 무리를 향해 장창을 비껴들
고 그대로 깃쳐나갔다....

이 전공으로 고노자는 대형으로 작위가 올랐고
곡림땅을 식읍으로 받았다.

(그래. 그 고노자가 적당해.)

봉상왕은 창조리의 추천이 정확하다고 생각하
였다.

여러 관원들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경들은 어떻게들 생각하는고?》

봉상왕은 누구에게랴없이 물었다.

《국상대감의 추천이 지극히 옳은줄로 아옵니
다.》

《그러할진대 제나부의 대형 고노자를 신성태수
로 봉하고 아울러 질월을 내리노라.》

봉상왕은 칙지를 내렸다.

×

《무엇, 을불마저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창조리는 후궁에 비로 들어가있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보고 크게 놀랐다.

과연 그럴수가?!

봉상왕은 피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누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잡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덮어놓고 시기하며 죽여 버리고 싶어하였다. 간사한자들은 왕의 무지한 성격을 리용하여 자기들을 밋게 보는 충신, 현신들을 모함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게 하였다. 이것은 봉상왕의 동생인 돌고가 왕에게 자살을 강요당해 죽는 참사까지 빚어내었다.

돌고는 비겁하면서도 질투심 많은 형과는 달리 성품이 강직하고 엄정한 호걸이었다. 근육이 잘 발달한 흰칠한 체구, 수려한 용모로 못녀인들의 애간장을 태우는적이 종종 있군하는 풍류남아이기도 하였다.

봉상왕은 돌고의 인품에서 자신에 대한 렬등감을 느껴 평소에도 까닭없이 동생을 미워하였다.

왕의 여러 후, 비들중에 송씨성을 가진 비가 있었다.

송비는 재상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눈에 들어 왕비로 되었다. 송비는 자색이 빼여났지만 대단히 간교하고 음란한 녀자였다.

어느날 그 녀자는 왕이 궁전을 뜬것을 모르고 왕을 만나러 온 돌고를 얼핏 보게 되었다. 저절로 끌리는 사나이의 기품에 송비는 넋을 잃을것만 같았다.

《한 부모소생의 형제가 어쩔 이다지도 다를가.》

내심 탄식하던 송비는 끝내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궁녀를 시켜 돌고를 불러오게 하였다.

원래 왕궁의 법에 내전에는 왕이 직접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있다. 여기에는 왕족들도 례외가 아니었다.

왕궁은 왕 하나만을 위한 락원이였다.

수많은 후, 비들 그리고 궁녀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온 세상을 다 거머쥔듯 이름할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이지만 반대로 소박을 맞게 되면 독숙공방의 쓰디쓴 설음을 묵묵히 새기며 한생을 외로움속에 살아야 한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 한다. 기어이...)

이렇게 빼문 송비였기에 수많은 미인들을 밀어 제치고 여직껏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돌고의 남아다운 풍채에 끌림을 어찌할수 없었다.

《고추가 돌고 왕비마마께 문안드리나이다. 상감마마께선 어디에 계시옵는지?》

고추가는 대가, 소가의 우에 놓이는 고구려봉건사회에서 제일 높은 작위이다. 이것은 왕족들

과 공신들만이 받을수 있는 작위였다.

《그대는 참말 미남이예요.》

왕청같은 대답에 돌고는 흠칫 놀라 왕비를 올려다보았다.

돌고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송비의 눈은 욕정으로 활활 타고있었다.

(아차, 잘못되었구나.)

왕이 예서 부른다기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던 돌고는 순간 자기가 잘못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져나가야 한다.) 하고 다음순간 그는 결심하였다.

《그만 소신은 물러가겠나이다.》

돌고는 몸을 움쭉 일으켜 걸음을 돌쳤다.

《개자식, 어디 보자!》하는 송비의 악다구니를 뒤에 남기며 무거운 심정을 안고 돌고는 뚜벅뚜벅 궁문을 나섰다.

왕도 없는 내전에 함부로 뛰어들어 자기를 희롱하려 하였다는 송비의 허황한 참소를 끝이 믿은 왕은 이를 구실로 끝내 돌고를 죽이고말았다.

이는 봉상왕 2년인 293년 9월에 있는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모으고있던 돌고가 죄없이 헛된 루명을 쓰고 죽은것을 사람들은 매우 애통하게 생각하였다.

죽은 돌고의 아들이 바로 을불이다. 후일 왕위에 올라 미천왕으로 력사에 길이 남았지만 을불은 돌고의 죽음과 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 오래동안 궁벽한 촌락들에서 변성명을 하고 숨어살았다.

력대 고구려왕들중 을불만치 초년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없다.

처음 을불은 수실촌이라는곳에 도망쳐가 그곳 소지주 음모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밥을 얻어먹었다.

머슴살이의 고됨이란! 종일 피약별을 잔등에 받으며 밭에서 흙을 뿌치고돌아가지 않으면 나무하러 맹수가 울부짖는 산판을 싸다녀야 했다.

머리에 달빛을 이고 돌아와도 음모는 집앞의 늪에서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며 잠잘수 없다고 을불에게 밤새 돌을 던져 개구리를 쫓게 하는 등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더는 견딜수 없었던 을불은 일년만에 그 집을 뛰쳐나와 채모라는 사람과 함께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소금장사를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였다. 소금장사도 수월치 않았다.

때로는 억울한 도적의 루명을 쓰기도 하고 잡혀들어가 불기도 여러번 맛았다.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산다고 향간의 생활에 몸을 푹 잠그어 백성들의 아름다운 풍속, 깨끗한 심리를 직접 체험한 을불은 왕위에 오른후

나라를 잘 다스려 후세에 현군으로 평가되었다.
 (그건 너무 지나친것이다.)고 생각하며 창조리는
 태후궁으로 찾아갔다.
 자기가 아무리 간했잖아 봉상왕은 들어줄것 같
 지 않았다. 아마 태후라면 들어줄것이다.
 그의 집작은 옳았다.
 태후 우씨는 요즈음 몸이 불편하여 침상에 드
 러누워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다시 말씀 올리오나 을불에게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창조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태후에게 을불을 비
 호하였다.

《스스로 도망쳐 수년째 종적을 감추어버린 나
 어린 그를 이제와서 찾아내여 죽인다는것은 전례
 에도 없는 무리이다.》고 간곡히 간하였다.
 태후 우씨는 지금껏 돌고의 죽음을 슬피 여기
 고있었다. 법대로 다스린다고 하여 아들의 처형
 을 멈추지 못한 우씨였다. 상부와 우씨는 어제날
 에는 모자지간이었지만 이제는 군신지간이었기에
 그 녀자는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을불만은 안된다.)고 그 녀자는 결심하
 였다.

(다음호에 계속)

나는 우리 집 창문을 사랑합니다

리성애

나는 창문을 사랑합니다
 깊은 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우리 집 창문
 내가 왜 창문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그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그 창문가엔
 내 소녀시절 꿈을 키운 아동궁전이
 솟구쳐오르는 로케트마냥 거연히 솟아있습니다
 떨기떨기 웃음을 꽃잎처럼 뿌리며
 맨발로 뛰고 뒹굴던
 공원의 초록색 잔디가 푸르게 펼쳐져있습니다

우리 집 창문은 크지 않습니다
 내 어린 그 시절처럼
 지금도 그 창문가엔
 파사로운 해님이 정답게 웃어줍니다
 솟눈같은 웃을 입은 하얀 비둘기가
 사뿐히 내려앉아 구구거립니다

내 아직 세상을 모르던 그때
 나는 그 창문가에 발돋움하고 서서
 풍금소리 아름다운 유치원뜨락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가져온 화보의 그림을
 그 창문에 붙여놓고
 영웅이 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창문으로
 웃음많은 나의 처녀시절과
 내가 다닐 대학의 높은 창가를 내다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창문으로 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
 먼 한끝까지 다 내다봅니다
 천리마타고 날마다 새 기적 세우며
 전진하는 내 조국의 모습을 나는 봅니다

나는 오늘도 하얀 천으로 창문을 닦으며
 그 창문에 비끼는 푸른 하늘을 내다봅니다
 거기엔 무지개같은 나의 꿈이 비쳤습니다
 그 무지개는 오늘도 하늘과 나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 나를 손저어 부릅니다

나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집 창문을 사랑합니다
 내 처녀시절 마치고
 후대들이 태어나면 그들도 나처럼
 그 창문으로 고마운 보금자리 이 땅을 내다보고
 그들도 나처럼 이 창문을 사랑하게 될것입니다

세계를 가없는 하늘에 비한다면
 나의 집 창문은
 그 하늘에 비끼 한점의 빛일것입니다
 허나 그렇듯 자그마한 나의 집 창문엔
 온 세계가 비쳐들고
 행복한 나의 미래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만약 격전의 시각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해빛이 따뜻한 우리 집 창문을
 조국처럼 간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수학여행

김선환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 졸업반인 수정은 영광스럽게도 졸업기념 수학여행차로 어머니조국에 와서 뜻깊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스물한살 꽃나이인 수정의 눈같이 깨끗한 마음 속에는 조국의 벽찬 현실이 돌에 쪼아박은 글발처럼 선명히 새겨지군했다.

나이보다 훨씬 숙성해보이는 그를 보고 고급학교시절부터 집에서는 부모의 친구들이 자주 시집갈 이야길 꺼내놓아 수정의 얼굴을 익은 사과알처럼 만들어놓군했었다.

키가 쑥 빠지고 곡선미 흐르는 날씬한 몸매는 봄바람에 흐느적거리는 실버들마냥 유연하였다. 말수 적고 사색형인 수정의 검은 눈동자는 호수처럼 응심깊고 수정처럼 맑았다. 그러다가도 새것과 아름다운것, 정의로운것에 도취될 때면 그의 아름다운 눈은 강렬한 빛을 뿜었다. 학교적으로 《문학소녀》란 애칭으로 불려온 그는 일보다도 눈으로 더 많은것을 말하는 내성적인 처녀였다.

지금 수정은 창너머 펼쳐진 수도의 황홀한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의 바다를 헤메인다.

(왜 그 아바이가 그토록 가슴아파하셨을가?)

《쳐녀동문 조국에서 나서자란 학생이 아니로군… 쫓쫓…》하던 아바이의 말소리가 자꾸만 귀에 쟁쟁 울려와 가슴이 비구름 덮인듯 답답하기만 했다.

말씨가 류다른것때문만이 아니었다.

동무들이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까르르내는 웃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번민속에 빠진 수정의 눈앞에는 며칠전 일만 새록새록 떠오를뿐이었다.

...

대동강물이 저녁노을을 담아실고 춤추듯 출렁이던 저녁때였다.

수정은 동무들과 함께 유보도로 소풍하러 나있었다.

정갈한 유보도는 꽃밭속에 묻힌듯 황홀하고 흰 나비들이 이꽃저꽃에서 팔랑거렸다. 향긋한 꽃향이 바람결에 풍겨왔다.

수풀 우거진 어느 의자에선지 잔잔한 물결인양 서정넘친 기타의 독특하고 은은한 선율이 바람결에 실려와 마음을 한없이 설레이게 하였다.

웅대한 수도의 한복판에 이리도 풍치수려한 전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리라고는 수정에게 놀랍기만 하였다.

불현듯 수정의 눈앞에는 흐리멍텅한 회색하늘

아래 펼쳐진 도교, 당장 길을 메워내리듯 다닥다닥 들어선 건물들, 서로 맞췄을듯 비집고 고달프게 흘러가는 군상들, 소란한 김 적을 울리며 부딪칠듯 질주하는 자동차의 물결이 언뜻언뜻 떠올라 숨막힐듯 했다.

소음과 광란적인 음악이 혼탕되어 머리끝까지 자극하는 도교는 언제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하여 마음까지 산란케 하였었다.

그러나 조국의 수도 평양은 밝고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와 보는것마다 경탄하게 되었다.

하여 마음은 언제나 망망한 푸른 바다를 바라보듯 씨원하고 푸르청청하였다.

수정은 리상의 꿈나라를 찾아온듯 마음이 한없이 울렁이였다.

《수정아, 이젠 들어가!-》

동무들이 나비처럼 달려와 손목을 잡아끌어서야 수정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유보도를 춤추듯 달리는데 수정의 흰목에 걸렸던 빨간 잠자리목수건이 바람결에 홀 벗어나 나풀나풀 날아났다.

《아. 내 목수건이!》

수정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되돌아섰다.

목수건은 마치 무대우의 무용수의 손끝에서 노니듯 곡선을 거둬 그리며 훌훌 강기슭으로 날아갔다.

수정은 목수건을 따라잡는데만 정신이 팔려 꽃밭속을 가로질러 쿵당쿵당 내달렸다.

목수건이 유보도아래로 날려갈 순간 곤색대학생복을 입은 남학생이 그것을 잡느라고 손을 뻗치다가 물속에 침범 빠졌다.

목수건이 수면에 떨어지려는 순간에 날째게 잡았으나 그의 신발이며 바지가랭이는 물에 흠뻑 젖었다.

이 유보도에 지주 나와 책을 보군하는 대학생이었다.

수정은 물참봉이 된 그에게 미안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이걸 어쩌나? 목수건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정말 안됐습니다. 공연히 하찮은 목수건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목수건이 물에 빠지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대학생은 빙그레 웃으며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수정은 물에 젖은 그의 신발이며 바지가랭이를 보며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는데 뜻밖에도 다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쿠, 저런… 꽃이 꺾어졌구나! 이런 변이라고야…》

수정은 흠칫 놀래며 꽃밭쪽을 보았다.

밤색작업복을 입은 머리 희끗희끗한 50대의 아버지가 꺾어진 꽃을 몇송이 든채 제 살붙이라도 상한듯 상심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섬적해진 수정은 몹시 당황하였다.

《아바이, 제가 목수전에 정신을 팔다보니 그만…》

《…》

아버지는 말없이 꺾어진 꽃대를 쓰다듬기만 했다.

수정은 《제가… 인차 다른 꽃을… 옮겨… 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다른 꽃이라니?... 그런 말이 그리 쉽사리 나오는가? 이 꽃들이 어떤 꽃이기에… 이 꽃은 꼭 살려내야 해!》

억이 막힌듯 뇌이던 아버지의 말이 수정의 가슴에 맺히였다.

어쩌다 실수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나무람하다니…

《꽃이야 또 심어놓으면…》

《저 녀 동 문 여기서 나서자란 학생이 아니구만…》 하고 아버지는 수정의 말허리를 꺾으며 유감스럽다는 눈길로 마주보았다.

《네?!》

수정은 무엇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얼굴만 붉혔다.

가슴이 쿵당거렸다.

이때 목수건을 잡아준 대학생이 슬그머니 아버지곁에 다가서 귀속말로 만류하자 아버지는 한결 부드러운 얼굴표정을 지었다.

《수정아- 어서 가-》

동무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버드나무아래쪽에서 들려왔다.

《너무 상심말고 어서 가보라구. 동무들이 있는데…》 하고 아버지는 수정에게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고는 다시 꺾어진 꽃을 어루만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쉬움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아바이, 정말 안됐습니다. 제가 새 꽃을 꼭 심어놓겠습니다.》

《이젠 그만 됐네. 빨리 가보라구.》

그제야 수정은 마음이 다소 풀린듯하여 그자리를 조용히 떠났었다…

멀리서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들려왔다.

방안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동무들은 이미 꿈나라를 헤매이고있었다. 그러나 수정은 정신이 점점 더 새록새록해지며 잠이

오질 않았다.

《저녀동문 예서 나서자란 학생이 아니구만.》 하던 아버지의 말소리가 다시금 귀에 쟁쟁 울렸다. 귀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듯 안절부절 못했다.

(래일저녁 제일 고운 꽃을 사다가 심자! 꼭 심자. 꼭!)

×

다음날 저녁식사후 응접실에서 텔레비존에 정신팔던 수정은 또다시 유보도로 나갔다.

늦깎반같은 보름달이 하늘중천에 휘영청 떠 대지를 대낮처럼 환히 밝혀주고있었다.

수정은 낮에 구해놓은 한떨기의 꽃모들을 훑한집 흘릴세라 밀뿌리를 비닐로 꼼꼼 싸서 들었다.

그의 한쪽 어깨엔 끈달린 파아란 물통이 메워져있었다.

그가 꽃밭으로 사뿐사뿐 다가갔다.

(아이, 꺾어졌던 꽃이 어데 갔을가?)

수정은 깜짝 놀랐다.

소담한 꽃들은 죄다 얼굴을 쳐들고 달빛을 받아 방긋 웃고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꽃들을 훑어보았다. 꺾어진 꽃대가 얇고 투명한 비닐도 정성껏 바로 이어졌고 그옆에는 저가락만한 가림대가 반쳐있었다. 얼핏 보면 여느 꽃들과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벌써 손질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수정은 눈부리가 찌릿하였다.

수정은 꽃모를 조심스레 심고 물통의 물을 부어주었다. 물기를 머금은 꽃잎은 달빛에 더더욱 싱싱해보이였다.

아버지가 새로 심은 이 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아버지에게 심심히 사과하고싶은 마음이 샘처럼 솟구쳤다.

이때였다.

나무가 무성한 공원쪽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리였다.

수정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굴뚝의 소리가 들리는곳으로 한발한발 다가갔다. 대학생이 푸른 의자에 앉아 두툼한 원서를 읽으면서 뇌이는 소리였다.

그의 앉은 자리옆에는 서너권의 두터운 책이 더 놓여있었다.

청년은 예서 밤을 패울 잡도리같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뜻밖에도 그는 수정의 목수건을 가져다준 대학생이였다.

한참만에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던 그는 수정을 보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저... 소풍을 나왔었어요.》

수정은 어색함을 누르지 못해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바빠 자리를 뜨려 하였다.

《잠깐만이라도 앉았다 가지지요.》

《전 일없는데 학습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일없습니다.》

청년의 맑고 명랑한 웃음보다 류창한 말소리에 수정은 마음이 끌리었다.

일본땅에서 나서자라 조선말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언제나 애를 먹고있던 수정은 저토록 류창하게 조선말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초면부터 실례이지만 한가지 물어봐도 일없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청년은 의아한 눈길을 주었다.

《아바이가 꺾어진 꽃을 보시고 처녀는 예서 나서자란 학생이 아니라고 왜 그토록 가슴아파하셨을가요? 전 그것이 계속 가슴앓입니다. 호...》

《아, 그 말때문에... 실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청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아버지가 조국의 한떨기의 꽃, 하나의 돌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는데는 남다른 그럴만한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하였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아바이와 부자시간이라는것을 알게 된 수정은 부쩍 마음이 끌리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수정은 무작정 청년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이윽고 청년은 생각깊은 안색으로 헉헉히 말을 이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교훈이 될 이야긴데 해드려야지요... 잠깐만...》 하고 청년은 의자옆의 수삼나무아래로 바빠 걸음을 옮기었다.

《?!...》

수정은 의아해하면서 청년의 뒤를 조용히 따라나섰다.

청년은 몰담긴 빨간 비닐바غه쓰안에 있는 흰 조약돌을 깨끗이 씻어 흰 걸레로 말끔히 닦아내면서 《아버지가 신신당부한건데... 내가 책보는 정신에 깜빡 잊었됐소.》 하고 미안한 기색으고 말했다.

닭알처럼 돌을 정히 다루는 그가 자못 이상하게 여겨졌다.

순간 수정의 뇌리에 진한 안개속에 묻혀있던 어렸을 때 한가닥 추억이 섬광처럼 번뜩이였다.

수정이가 일곱살 잡히던 어느 여름날 어스름이 깃든 저녁이었다.

그는 저녁먹을것도 까맣게 잊고 돌차기놀음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흰 조약돌이 수정이 마음먹는대로 굴러가 매번 이기기만 하였다.

동무들은 탄성을 울리며 수정을 무척 부러워했다. 수정은 어른손바닥만한 빨간 천주머니속에 든 농작 깊숙이 간직되어있던 그 하얀 조약돌에 깃든 사연을 알리 없었다.

《수정아, 어서 저녁먹어라.》

어머니가 문앞에 나와 두세번 찾은 다음에야 수정은 별수 없이 흠이 묻어 꺼밋해진 돌을 손에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방안에 들어서니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수정이 손에 쥔 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애가 언제 그 돌을 꺼냈느냐?》 하고 수정의 손에서 돌을 훔 빼앗았다.

《이게 무슨짓이나. 네 장난감인줄 아냐?》

아버지는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부엌으로 나가 어지러워진 돌을 수도물로 깨끗이 씻었다.

언제나 귀여워해주시던 아버지의 처사가 그만 서러워 수정은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다신 그러지 말어. 그 돌은 귀한거란다.》

어머니가 수정의 눈물을 씻어주며 달래였으나 아버지는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다.

그것이 서러워 수정은 더 크게 울었다.

수정이는 열네살 되던 해(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튿날)조약돌에 대한 사연을 어머니에게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열여섯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갈 때 고향집앞에 흐르는 맑은 시내가 바닥에 깔린 흰 조약돌 두개를 주머니에 싸온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돌을 쓸어보며 정든 고향산천을 그리워했고 언제이든 그 돌과 함께 고향의 품에 안길 날을 바라고바라던것이다...

수삼나무두리에 흰 조약돌들을 정히 박아놓곤한 청년은 생각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소년시절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이역만리 일본땅에서 살았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수정의 마음을 점점 자석처럼 끌고갔다.

주체44(1955)년 민수(아버지의 이름)와 그의 딱친구인 《글재》(그는 어디서나 즉흥시를 멋지게 읊어 그런 별명이 붙었다.)가 열다섯살 먹던 해 가을이었다.

요즈음 조선중급학교 졸업반인 민수네 학급 동무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이면 수학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불는 불에 바람부는 격으로 오늘아침 담임선생이 수학여행일정과 그 로정까지 세세히 알려주어 학생들의 흥분된 마음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려행날이 다가올수

록 쇠덩이처럼 무거운 생각이 겹쳐들었다. 민수는 어제밤에도 어머니에게 수학려행을 가겠다고 말을 하리라고 벌떡했는데 끼니에울 쌀이 떨어졌다고 한숨짓는 부모들을 보고서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드디어 수학려행 떠날 날이 왔다.

《민수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쩌노?... 이 못한 에미를 원망하거라...》

뒤말을 잊지 못한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었다.

서리내린 어머님의 윤기없는 머리칼이 민수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눈곱이 찌릿하고 코등이 시큰해졌다. 민수는 말없이 밖으로 후닥닥 뛰어나갔다.

어머님의 흐느낌소리가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향방없이 내달리는 그의 두볼을 적시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새옷을 차려입고 웃음을 함뱉 담고 떠나가는 동창생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눈물젖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민수는 저도 모르는 사이 《글재》네 집앞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글재》 역시 동구밖에서 누런 락엽이 흩어진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는데 그의 두볼에는 눈물자국이 어려있었다. 민수의 가슴이 뭉클하였다.

《<글재>야, 난 안갈래!》

《나도 안갈래!》

그들은 그 누구에게 항변하듯 내뱉고는 미리 약속이나 한듯 바다가로 달음박질쳤다.

처절씩! 처절씩! 흰거품을 흘날리며 파도는 쉬임없이 기슭을 쳤다.

흰갈매기들이 훨훨 날아오고 싱그러운 바다물내가 풍겼다.

그들의 머리에는 한결같이 그 누구든 근심걱정 모르고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울수 있다는 어머니조국을 바다넘어 멀리 그려보았다.

《야 민수, 내가 자작즉흥시를 하나 읊을게!》

《글재》가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두팔을 짹벌리고 소리높이 웨쳤다.

쉬임없이 기슭을 치며 출렁이는 파도여!

네 오늘 이 땅을 찾았다면

래일은 또 어데로 가느냐

네 혹시 어머니조국땅을 찾으려거닌

머나먼 이역땅 쓸쓸한 바다가

조국애에 불타는 우릴

파도여, 잊지 말고 함께 실어가다오

너 자유로운 파도여, 우릴 실어

조국의 한끝 기슭이라도 보게 해다오

오, 파도여, 기어이 실어가다오!

그들은 어깨나란히 노을이 불타는 조국의 하늘

가 수평선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보고싶고 가고싶은 어머니조국에 대한 끓어오르는 그리움에 그들의 심장은 출렁이는 파도마냥 설레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학려행 갔다온 동무들이 민수와 《글재》에게 성의어린 기념품을 주었다.

주로 려행지의 풍경화며 나무와 석고로 만든 공예품이었다.

거기에는 수려한 풍치들이 그려졌다.

민수는 기념품들을 보고 만져보며 《야- 멋있구나! 우리도 함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고 무척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동무들의 성의는 고맙긴 하지만...》 하는 《글재》의 얼굴엔 저으기 무거운 기색이 드리웠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글재》는 여전히 서리맞은 풀잎처럼 어깨가 축 처져있었다.

《민수, 우리에게 이역땅의 꽃들이 아무리 고운들 무슨 소용이니?》

《?!...》

민수는 《글재》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통 알수가 없었다.

《글재》는 의아해하는 민수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민수, 내가 좋은걸 보여줄게!》 하고 방 한구석에 놓인 농 짝을 한창 뒤지더니 빨간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속에서 희고 등글등글한 조약돌이 두개 가 굴러나왔다.

《그건 무슨 돌이야?!》 하고 민수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울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올 때 고향의 실개천에서 주어다 고이 간직한건데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이 돌을 만져보고 두고온 정든 고향을 그리곤하셨대.》

《글재》는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열여섯살 어린 나이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그의 아버지는 짧은 한생을 이역땅의 복변 복해도의 탄광에서 속절없이 흘려보냈다.

《글재》가 여덟살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이역땅에서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이역땅의 고역속에서도 언제이건 정든 고향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 마음먹고 억척스레 살아왔건만 이렇게 끝장나다니! 아, 원통하구나... 어보, 이애만이라도 잘 키워 꼭 고향으로 돌아가오. 이 조약돌만이라도 내가 어린 시절 물고기잡이하던 고향의 개울에 도로 깔아다오. 푸른 숲, 맑은 물, 물고기, 고향... 어, 다시 한번만이라도...》

이것은 《글재》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어느해 초봄 민수와 《글재》는 작별의 눈물을 삼키며 헤어졌다.

《글재》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빗더미에 놀리워 초라한 단칸집마저 떼우고 정처없는 류망의 길로 나서야 했다.

떠나가는 《글재》와 그의 어머니를 바래주려 민수는 역까지 나갔었다.

비는 슬픔에 잠긴 민수와 《글재》의 가슴을 함뿍 적시려는듯 쉬임없이 내렸다.

피나리보짐을 인 어머니가 《민수야, 그만 들어가거라. 우리 죽지 말고... 다시 꼭 만나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글재》는 승강기에 오르면서 한개의 조약돌이든 빨간 주머니(그는 어머니에게 줄라 붉은 주머니를 짓게 하고 두개의 돌중 하나를 그 주머니에 정히 넣었다.)를 민수의 옆주머니에 넣어주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뇌이었다.

《우리 이 돌을 가슴에 품고 언제이건 조국땅에서 꼭 만나자! 민수, 잘 있어...》

렬차는 비내리는 밤하늘에 기적소리를 날리며 사라졌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작별이 될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란 긴긴 세월이 류수처럼 흘러갔건만 아버지는 오늘도 <글재>가 준 붉은주머니의 돌을 가슴에 품고 하루같이 공원관리원사업에 열정과 정력을 바쳐 조국의 한떨기의 꽃, 하나의 돌, 한그루의 나무를 제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글재>와의 감격적인 상봉의 날을 갈망하고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상기할 때마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춘들이 어떻게 빛나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명심하곤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수정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직했던 사연이...) 심한 현기증이 난 수정은 얼굴이 대번에 창백해졌다.

청년은 눈을 크게 뜨며 《어데가 편찮은가요? 신색이 말이 아닙니다.》하며 몹시 당황해하였다. 《저... 일없어요... 그 주머니를 본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제가 알고있는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신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구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인차 오겠으니 꼭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청년이 무척 놀라며 되물었으나 수정은 잠깐 기다려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숙소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한참만에야 손가방을 들고온 수정은 그안에서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그의 입술은 경련이 인듯 바르르 떨고있었다.

《조국에 온다니까 어머니가 이 주머니를 주던데요.》

주머니를 받아든 청년은 놀라움으르 두눈이 커졌다.

수정이가 내놓은 주머니하고 아버지가 늘 가슴에 품고있는 주머니하고는 똑같은것이였다.

(아, 이 주머니가 어찌되어 수정동무한테 있을까?)

청년의 심장은 흥벽을 뚫고 터져나올듯이 활랑거렸다.

《성호(<글재>의 본명)아저씨의 돌주머니가 어떻게 수정동무한테 있습니까?》

《성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수정동무가 정말... 머리에 서리내린 오늘까지 우리 아버지가 하루도 잊지 못해 기다리었던 성호아저씨의 딸이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와하겠습니까.》

밤늦게 손을 맞잡고 들어선 아들과 수정을 민수는 놀라운 눈으로 번갈아 지켜보기만 했다.

《아버지, 성호아저씨의 따님이 수정동무입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나?》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돌주머니를 한참 쓸어보던 민수는 가슴속에 품고있던 자기의 돌주머니를 꺼내었다.

쌍둥이처럼 똑같은 빨간 돌주머니가 환한 전등빛에 비치여 더욱 선명해보였다.

《주머니만 오고 성호, 임자는 어디 있나?》

민수는 오열을 터치었다.

《아버님!》

수정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아, 네가 성호의 딸이 분명하구나. 어디 보자!》

민수는 눈물젖은 주름잡힌 얼굴로 수정의 두어깨를 잡고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어, 분명 성호로구나! 날이 선 코랑... 쌍까풀진 눈매랑... 성호 이자식, 넌 어데로 가고 딸만 보냈느냐? 같이 오면 안된다더냐... 성호야...》

민수는 이렇게 불뽕듯 부르짖으며 수정을 와락 끌어안았다.

수정에도 눈물에 젖은 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랜만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듯싶었다. 그의 눈앞에는 조약돌을 보물처럼 귀히 여기시던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민수아버님! 저를 용서하세요! 조국에로의 수학여행을 한갓 손님격으로 돌아치다 민수아버님이 애지중지 가꾸어온 꽃을 꺾어놓고도 되려 아버님을 속으로 나무람하던 이 못난 저를 용서하세요! 하나 저도 오늘부터 이 땅의 풀 한포기, 한

떨기의 꽃, 한그루의 나무도 제 살점처럼 여기는
조선의 딸답게 살겠어요.》

마음속으로 웨치는 수정의 심장은 더더욱 높뛰
었다.

…수정이네들을 태운 배는 그리운 조국땅에서

작가일화

《상사곡》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고려조정의 충실한 신하였던 포은 정몽주가 왕
위찬탈을 합리화하려는 이성계일파의 회유에 맞
서서 읊은 이 《단심가》는 정몽주의 강직하고 대
바르며 굳센 충의지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물론 《단심가》와 그에 얹힌 얘기들은 다 정몽
주의 말년에 있는 일들이다.

그러면 고려봉건정부의 관료이며 능숙한 외교
가, 재능있는 학자, 박식다재한 문인인 그의 유년
시절은 어떻게 흘렀을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거
리가 없을가.

이제 그의 어린 시절의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도 있고 기지 또한 풍부한 나른 하나
의 정몽주의 모습을 엿보고저 한다.

정몽주가 9살때에 있는 일이다.

외가집에 가서 글공부를 하던 어느날, 그가 있
는 방문앞에 심부름군녀인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
고는 머뭇머뭇하는것이였다.

령리하면서도 싹싹한 편인 몽주는 그 녀인의
인사를 받으면서 벌써 그 녀인이 뭔가 부탁이 있
어서 왔음을 제격 눈치챘다.

《저, 도련님께… 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저어하나이까?》

온화한 웃음을 담백 띄우며 묻는 몽주의 말에
녀인의 얼굴은 파리빛같이 익어갔다.

《어서 말을 하시오이다.》

《저, 사실은 도련님께 편지를 좀 써달라고…》

《하하하, 편지나 하나 쓰는것을 가지고 뭘. 그
런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그렇게 말하기
를 힘들어하나이까?》

물음에 대답하는 녀인의 말을 듣고보면 그렇게
웃어버릴것도 아니였다.

멀고먼 북쪽땅에 떠나보낸 랑군님이 그리워
문안편지나 보내자니 글을 모르는 제 처지가
가궁하기도 하고 랑반집도령께 그 사연을
말하자니 자연 그럴수밖에 없는 일인것이다.

정몽주는 시원한 웃음을 지으며 선선히 승낙하

점점 멀어져가고있었으나 수정의 마음은 민수가
버님과 더불어 만경대고향집앞에 정성담아 깎 두
개의 조약돌과 함께, 아버지의 생전의 뉘과 함께
어머니대지에 억세게 뿌리내리고있었다.

고 붓과 벼루를 펴놓고 두루마리종이를 손에 들
었다. 9살소년의 눈가에는 순간 천진하면서도 능
청스러운 웃음의 물결이 가볍게 스쳐갔다.

(어디 내 글공부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알아볼
가.)

생글생글 웃으며 붓을 달리던 그는 얼마 안돼
서 두루마리종이를 쳐들고 자못 만족스런 표정으
로 읽어보더니 그채로 봉투에 넣어서 녀인에게
주었다. 녀인은 그것을 받으며 미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저, 무슨 편지가 그렇게 반장도… 제 마음갈
아선 열장, 스무장도 모자라겠는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허물이 없는 녀인의 말에
몽주는 봉투를 도로 받아서 결봉을 찢고 제가 쓴
편지를 읽어보다가 싹 웃더니 그밑에 두어줄 더
써서 녀인에서 주었다. 마음에는 아직도 차지
않으나 그이상 더 요구할수도 없어 녀인은 그것
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보냈다.

그후에 9살난 소년이 쓴 편지형식의 이 글은
사람들속에서 특히는 녀인들의 입에서 널리 불리
워졌다. 먼곳에 가있는 랑군님을 그리는 녀인들
의 굳센 절개와 결백한 마음, 사랑의 감정을 잘
그린것으로 하여 그렇게도 인기가 높았던것이다.

구름은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달은 찼다가도 기울지만

님 그리는 마음 변함이 없소이다

이것이 정몽주가 녀인에게 처음 써준 글이였다.
이만하면 님에 대한 녀인들의 마음을 잘 그렸다
고도 할수 있지만 녀인의 간곡한 청에 그밑에 두
어줄 써준것 역시 소년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큰
것이라고 할수 있다.

봉한것을 다시 뜯고 한마디만 더 쓰오니

세상에 병이 많은들 상사병만 하오리까

이렇게 되여 9살소년이 지은 이 글에 《상사곡》
(님을 그리는 노래)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지금까
지 전해오고있는것이다.

리원희

실재한 인물인가, 허구적인 인물인가?

1719년에 《로빈슨 크루소우》가 창작되어 나왔을 때 독자들 속에서는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소설은 성공하였으며 그것이 던진 파문은 컸다. 발표되어 불과 넉달어간에 4번씩이나 출판을 거듭하게 되었다. 속편에 대한 독자들의 독촉이 불같이 같은 해에 2부가, 다음해에 3부가 세상에 태어났다.

기형적인 취미, 무기력, 권태, 무능력으로 일관된 귀족적주인공들이 판을 치던 당시의 문단에 건전한 분별력과 근로정신,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나타난 《로빈슨 크루소우》, 그는 과연 실재한 인물인가, 허구적인 인물인가?

칠레의 가장 큰 항구인 발파라이소로부터 서쪽으로 670킬로미터 떨어진 주안페르난데즈의 무인도에 한척의 해적선이 나타났다. 때는 1704년, 한명의 선원과 한자루의 총, 하나의 침대, 한권의 성경책을 내던지고 배는 서둘러 떠나갔다.

인적없는 황막한 섬에 내버려진 중년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쉘커크였다. 스코틀랜드의 한 구두제작공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는 달리 망망대해에 푸른 꿈을 엮고 자란 그였다. 그해에 어느 민간무장선의 해적항행에 가담한 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조포한 선장은 서슴없이 그를 무인도에 버리고 달아나버렸다.

그날부터 시작된 고독한 섬생활, 낮이면 산에 올라 바다를 살피고 밤이면 맹수들을 피해 동굴 속에서 새우잡을 잤다. 여기서 꽤이르게 인생의 닳을 내리우고마는가. 바다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마저도 그의 고독감을 더해주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그 몇번... 5년째 되는 해인 1708년, 행운은 정녕 그를 버리지는 않은듯 이곳을 지나가던 영국선대를 만나 외로운 사나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었다...

작가 디니엘 디포(1660-1731)는 1부의 서문을 이렇게 달았다.

《요크출신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우의 생애와 기괴하고도 놀라운 모험-오르노큐대강의 입구 가까이 아메리카해안의 미지의 무인도에서 28년간을 홀로 생활, 폭풍우를 만나 선원들은 다 죽고 혼자만 목숨을 건지다. 마침내 해적들에 의해 구출된 기이한 이야기. 소설은 그 자신이 쓴 것이다.》

그러고보면 소설의 주인공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재한 인물이며 그가 표류했던 섬도 실지였던 섬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우》의 원형은 누구인가?

셸커크인가? 아니다.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셸커크의 모험적인 생활이 작가에게 어떠한 창작적환상의 나래를 달아주었는지는 잘 알수 없다. 어쨌든 작가는 거기에서 상을 받고 당시와 그 이전시기에 나온 각이한 려행기들에서 받은 사실적인 자료들로 줄거리를 구성한데 기초하여 이야기를 엮어나갔을뿐이다. 마치도 어느 한 선원이 자기가 직접 겪은 모험담을 이야기하듯이...

《로빈슨 크루소우》는 비로 작가자신이다. 소설은 다름아닌 작가의 《자서전》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씌여진 이야기에겐 거짓이 하나도 없다. 나 자신이 28년간을 무인도에서 살았다.》

이름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고독하게 살아온 장년기의 자기 생활에 대한 변호라고 해야 할가.

중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기를 바라던 아버지의 소원도 뿌리치고 실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디포는 당대의 정치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였으며 그 소용돌이속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였다. 한편 그의 붓끝에서 잇달아 탈고되어나온 정치기사, 론평들은 그에 일관된 평등사상과 반종교사상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열화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로서의 인기는 그로 하여금 불운한 운명의 길을 걷게 한 요인으로도 되었다. 디포의 비수같은 론조에 소스라쳐 놀란 지배계급은 입을 모아 그를 비방중상, 모독하는데 열을 올렸다. 한편 토리당과 위그당 양측에서 그를 저마끔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다.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였다. 여러차례나 감옥에 끌어들기도 했다. 그에 덮씌운 기업의 파산, 대가정에 다닥친 기아, 디포는 동요하였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는 절충의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가 조련했던가. 이쪽에서소매를 잡아끌면 이쪽 길에 들어섰고 저쪽에서 다리를 걸면 그쪽길로 옮겨지었다. 위그당의 감정을 섞어 목청을 돋구기도 했고 어느사이에 그것이 토리당의 음모로 변해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위그와 토리 두 당사이에 두 길보기를 하는 정치적인조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회적평가가 주어졌다. 게다가 어떤 정치가의 밀정이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디포는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는 부르쥬아량당정치에 극도의 환멸을 느꼈다.

《나는 모든 당들의 밑바닥을, 허위와 상실의 밑바닥을 보았다. 모든것이 덧없으며 번뇌를 일

으킨다고 목사가 말하듯이 나는 말한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하에서나 매개 당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나 모두가 지긋지긋한 위선이다.... 그들의 리익은 그들의 원칙을 지배한다.》

어느덧 60고개를 바라보게 된 1719년, 디포는 정계를 떠나 쓸쓸히 낙향하였다. 정치무대에서의 그의 인기는 여름날 새벽의 이슬이었던가. 그는 고독감을 느꼈다. 절해고도인들 이보다 더 쓸쓸하라. 《감옥밖의 형틀》에 매달렸을 때 몇몇이 맘

껏 들이키던 그 진한 꽃향기가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이제는 다시는 말지 못할 그 향기가...

이러한 때 디포는 켈커크를 알게 되었다. 버림받고 무인도에서 5년간을 살았다는 그에게서 디포는 비참하고 불순한 장년기의 자기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순간이라도 인민에게서 멀어진다면 불행해지게 된다는것이 다니엘 디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이다.

한류덕

상식

정신적건강의 비결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에서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발표하였다.

-이러저러한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람을 원만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집안사람이나 남들에 대해 관심하고 이해해주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처리하면서 우정을 키워야 한다. 쓸데없는 우려와 불안에 빠지지 말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저러하게 고려하지 말고 문제를 똑바로 보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생활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생활의 시야를 특정된 어느 한점에 고정시키지 말고 지식과 운동, 오락 등 여러 분야에 흥미를 붙여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함으로써 단조롭고 고달픈 생활을 피하여야 한다.

-매일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것이 좋다. 그 계획에는 오락과 체육분야의 활동이 들어 있어야 한다.

-격분하였거나 좌절당하였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는 등 잠시 주의를 딴데로 돌리는것이 좋다.

-거절할수 없는 정황에 맞대들면 이 기정사실을 받아들일 심리적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그다음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